

1. 이동평균선이란?

주가이동평균선(moving average)은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주가의 연속적인 변동과정에서 일일변동과 같은 조작이 가능한 비정상적인 변동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서 전체주가의 흐름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도하여 주가의 흐름을 가장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 하도록 평균화하여 도표상에 옮겨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주가예측의 기술적 분석방법으로 일정기간의 주가 평균치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현재의 주가 진행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주가동향을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2. 이동평균선의 종류

기술적분석 방법시 차트상에서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은 5일, 20일, 60, 120일 이동평균선이 일반적이며 그외에도 200일, 300일 정도로 구분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경우, 단기지표로는 5일, 20일 평균선을, 중기지표로는 60일, 120일 평균선을, 장기지표로는 200일, 300일 평균선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5일과 20일은 매우 유용한 이동평균선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3. 이동평균선의 장단점

장점 : 계산하기가 편리하고 계산결과와 모양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매,신호를 객관적으로 찾을수 있는점.

계산법

5일이동평균 = $p1+p2+p3+p4+p5 / 5$ 으로 계산되어지며

그다음날의 계산방법은 = $p2+p3+p4+p5+p6 / 5$

단점 : 지난 과거의 주가를 평균하여 미래의 주가 이동방향을 예측하려는 모순점.

4. 주가이동평균선의 성질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주가를 분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 성격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①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곡선 운동을 계속하면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②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곡선 운동을 하면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③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 할때는 조만간에 반전할 가능

성이 큼니다.

- ④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에는 조만간에 반전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큼니다.
- ⑤ 이동평균선의 평균치 기간이 길어지면 이동평균선은 더욱 완만한 곡선이 됩니다.
- ⑥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다시 붙을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 ⑦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또는 하향 돌파할 때에는 매입 또는 매도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 ⑧ 주가가 장기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에는 주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표상의 이동평균선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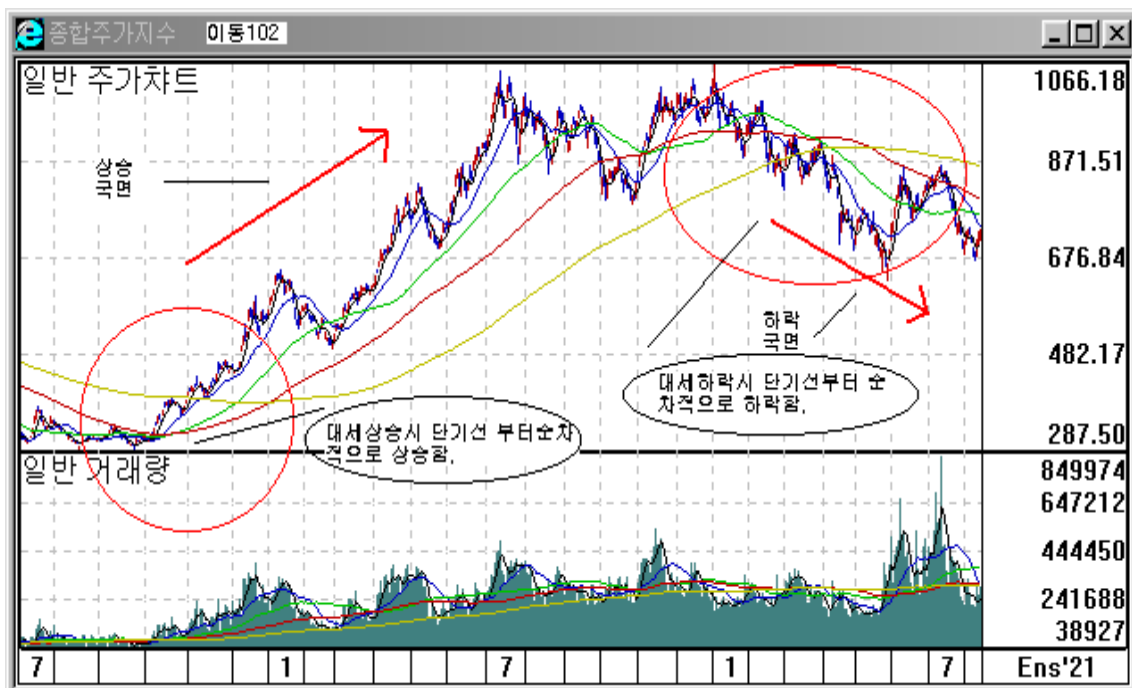
5. 이동평균선의 분석방법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주가예측방법 으로는 이동평균선 자체의 방향성분석을 비롯하여 배열도분석, 지지선분석, 저항선분석, 연관성분석, 크로스분석 등이 있다.

① 방향성분석

5일, 20일, 60, 12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상승중인지, 하락중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기선, 중기선, 장기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차례로 전환되기 때문에 쉽게 추세전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 전환할 때에는 먼저 단기선(5일선, 20일선)이 상승하고, 다음에 중기선(60일, 120일선)이 상승한후 장기선이 마지막에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반대로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 전환할 때도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순으로 하락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② 배열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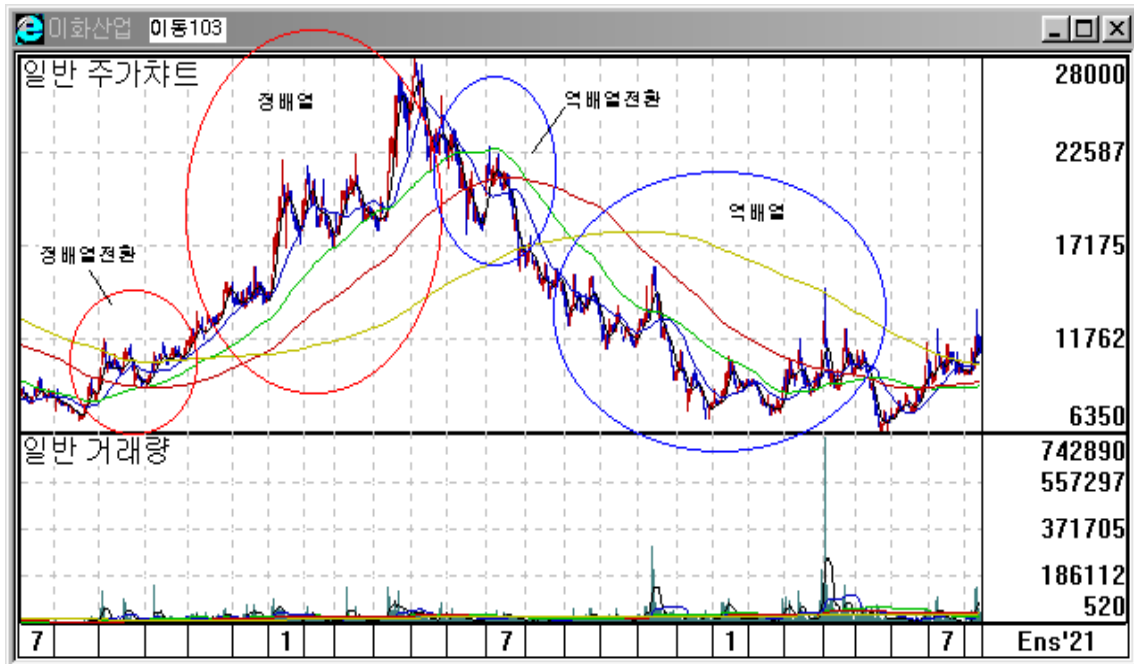
정배열과 역배열로 나눌수 있는데.

정배열이란: 현재주가 > 단기이동평균선(5일, 20일) > 중기이동평균선(60일, 120일) > 장기이동평균선(200일)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배열된 상태를 정배열이라 하며,

역배열이란: 장기선(20일선) > 중기선(60일, 120일) > 단기선(5일, 20일)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배열된 상태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정배열에서 시작하여 ▷ 역배열전환후 ▷ 역배열로

하락하다가 ▷ 정배열전환후 ▷ 다시 정배열의 순으로 순환운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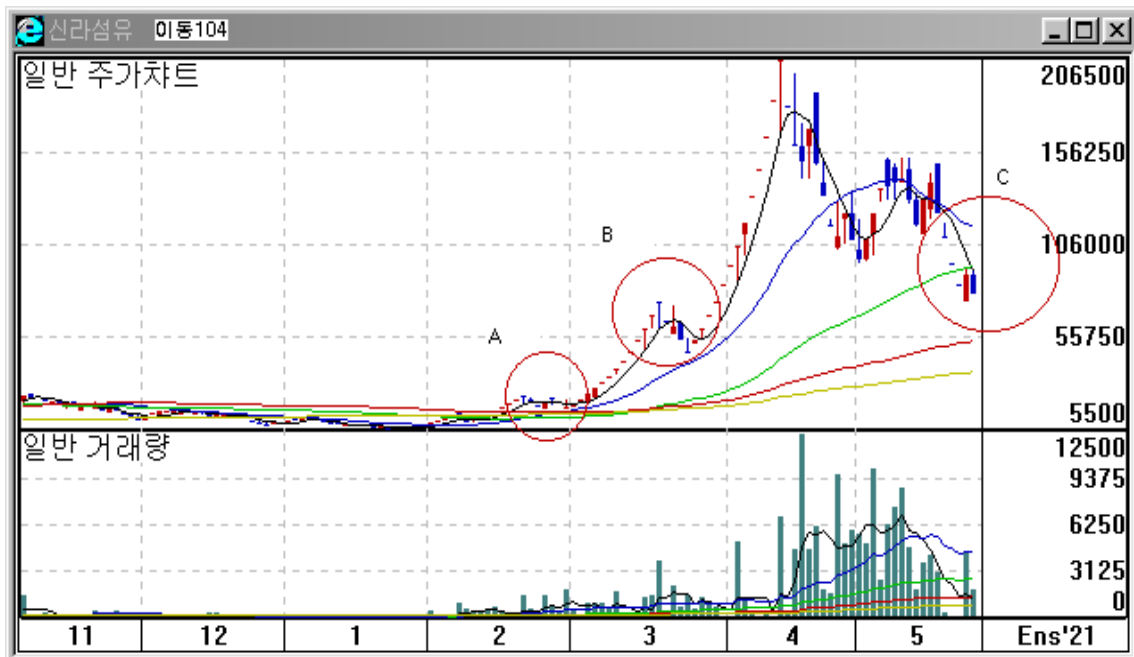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정배열전환 ▷ 정배열 ▷ 역배열전환 ▷ 역배열 ▷ 정배열전환의 과정을 거치며 순환하고 있다.

③ 지지선분석

이동평균선 자체가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주가가 상승중일 때 에는 단기, 중기, 장기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상승하게되나 하락반전할 때 에는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하향이탈하게 됩니다. 이를 지지선 분석이라 합니다.

지지선 분석을 할때에는 단기.중기.장기 이동평균선의 각 특성을 잘 파악하여 비정상거래로 일시적인 속임수를 예방하고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A,B은 단기선을 지지선으로 상승을 계속한 경우임.

④ 저항선분석

주가가 하락중일때는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차례로 저항선이 되어 주가가 하락하게 되나, 상승 반전될때에는 각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상향돌파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저항선분석이라고 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단,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거래량증가와 함께 각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상향돌파 하면서 새로운 상승추세로 진입하고 있다.

⑤ 연관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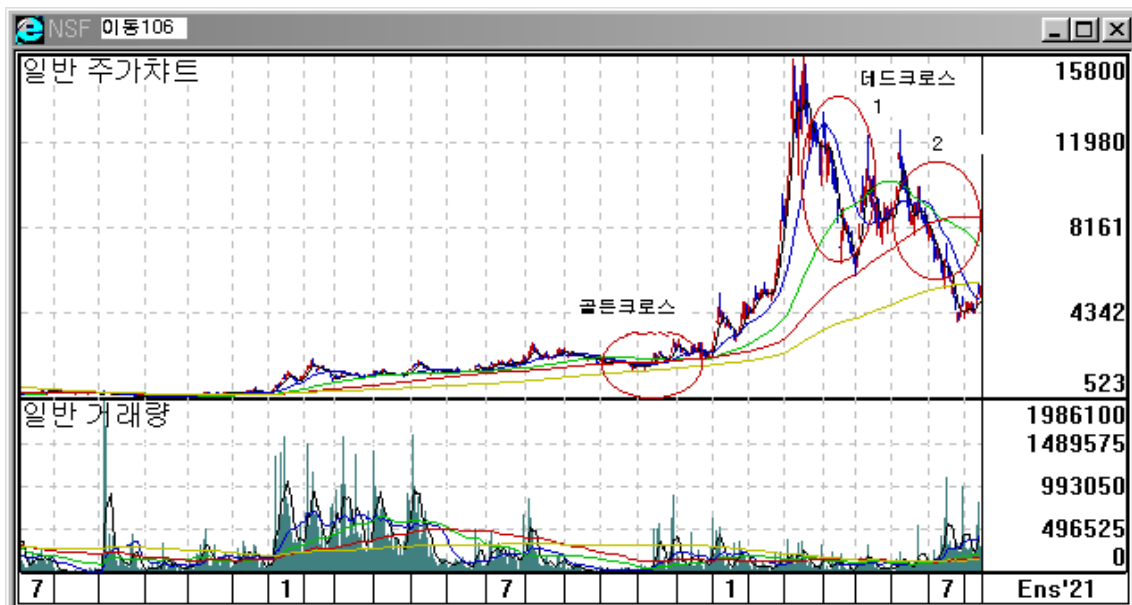
주가와 장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은 각기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하락말기와 상승초기에 이들 각 이동평균선들의 전환과정을 잘 살펴보면 상승초기에 이와같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⑥ 크로스분석

이동평균선분석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분석방법으로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돌파하는 경우를 Golden-Cross라 하고,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돌파하는 것을 Dead-Cross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Golden-Cross는 매수신호로, Dead-Cross는 매도신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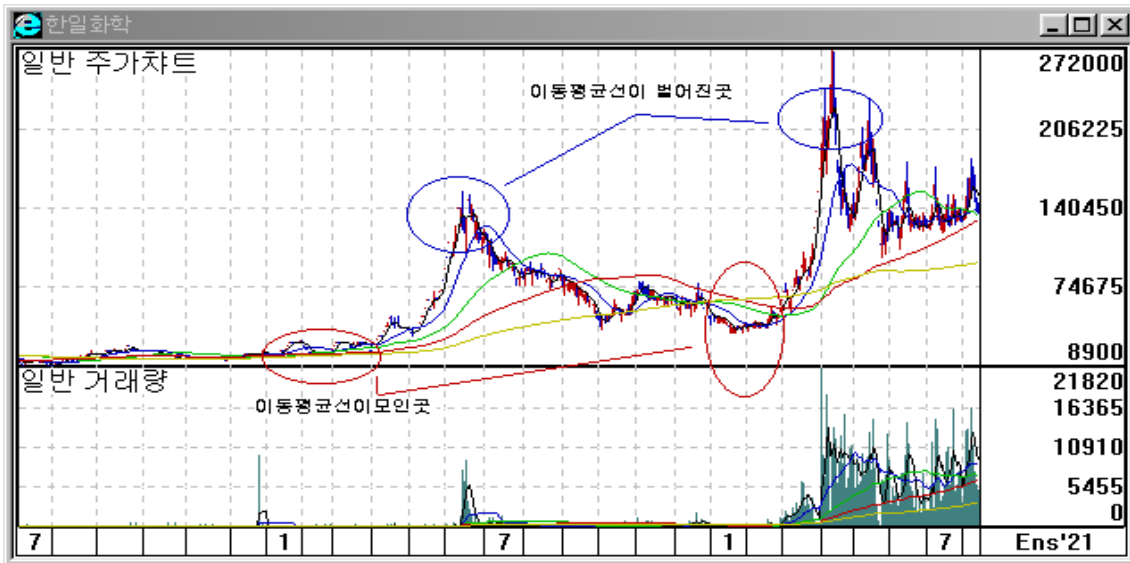
크로스분석에는 보통 20일 평균선과 60일 평균선을 매매시점 판단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밀집도분석

장기, 중기, 단기이동평균선 사이의 서로 분리된 거리와 밀집도 그리고, 모였다 떨어졌다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순환과정을 통하여 주가의 매매시점

을 판단하는 분석기법을 밀집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모였다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국면과 상승국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였다 헤어지는 순간과, 헤어졌다 모이는 순간을 매매시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6.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방법(1)

한가지 이동평균선만을 활용하는 방법

주가와 한 개의 이동평균선만을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매매로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면 매입신호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하면 매도신호로 판단하는 매매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가장 간단하여 이용하기가 편리한 반면,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 할 때마다 모두 매매시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주가의 일시적이고 비정상적 등락의 속임수를 모두 매매시점으로 판단 해야하는 실수를 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빈번한 매매와 속임수로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시점에 관한 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미리 점검하면서 매매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 ㉠ 하루중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상향 또는 하향 돌파하여야 매매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 ㉡ 종가와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더라도 미리 정해둔 특정비율을 넘어서는 돌파폭을 보여야만 매매시점으로 인정합니다.
- ㉢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교차로 매매시점이 결정 되더라도 하루에서 3일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속임수를 방지합니다.
- ㉣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교차로 매매시점이 확인되어도 다른보조지표를 이용하여

상호교차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거래조건을 바탕으로 강, 약세장에 따른 적절한 검증과정을 거쳐 자기만의 독특한 매매기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7.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방법(2)

두가지 이동평균선의 활용법

단기이동평균선은 매매시점포착에, 중, 장기 이동평균선은 추세파악에 주로 이용합니다.

단기간의 이동평균선 일수록 주가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세전환을 가장 빨리 나타내주는 장점도 있지만 주가의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속임수에 걸릴 경우가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 장기 이동평균선은 시세전환을 늦게 나타내주는 단점도 있지만 미세한 주가변동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주가 흐름을 확인하는 데는 신뢰 할 수가 있습니다.

2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매매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 ㉠ 장기와 단기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는 시점을 매매시점으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돌파할 때를 매수시점으로, 반대로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돌파할 때 매도시점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 ㉡ 주가와 두 이동평균선과의 위치에 따라 매매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두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경우를 매입시점으로, 주가가 두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경우를 매도시점으로, 그리고 주가가 두 이동평균선 사이에 있을 경우를 관망시점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8.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방법(3)

3가지 이동평균선의 활용법

3가지 이동평균선은 기간에따라 단기이동평균선, 중기이동평균선, 장기이동평균선으로 구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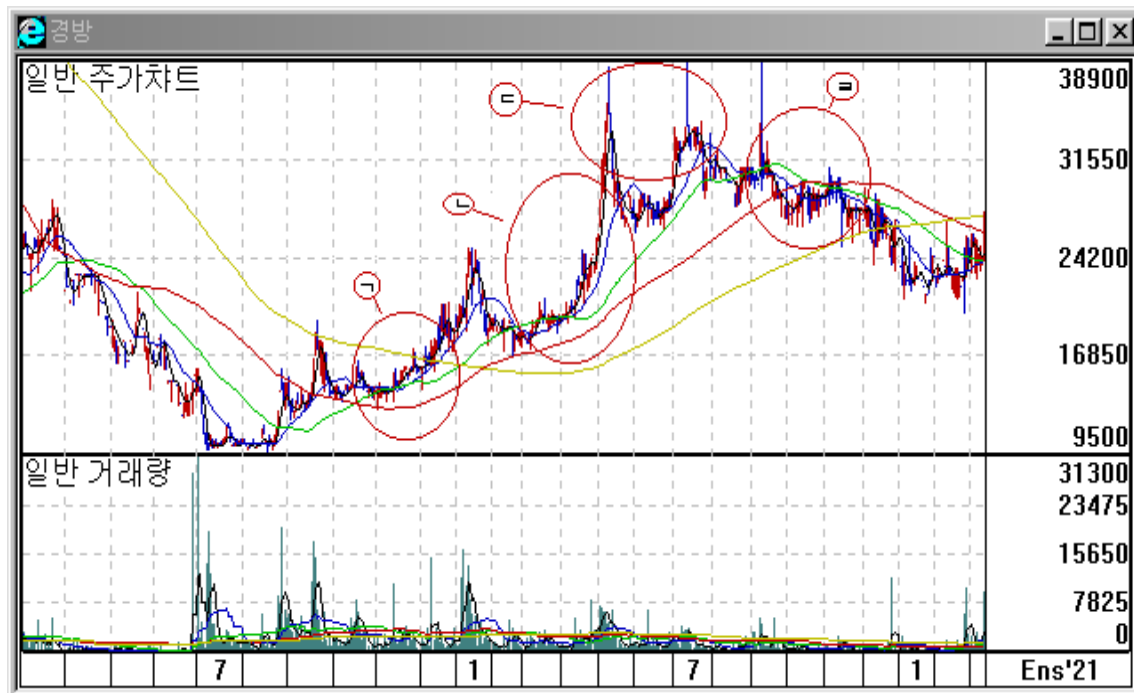
각 이동평균선의 특징으로는 기간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데 단기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이 중기이동평균선, 마지막으로 장기이동평균선이 가장 늦게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3가지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매매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은 상승추세와 하락추세에서의 두가지 투자전략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 상승추세에서의 투자전략

- ㉠ 단기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위로 중, 장기 이동평균선을 급속히 상향돌파할 경우에 매입신호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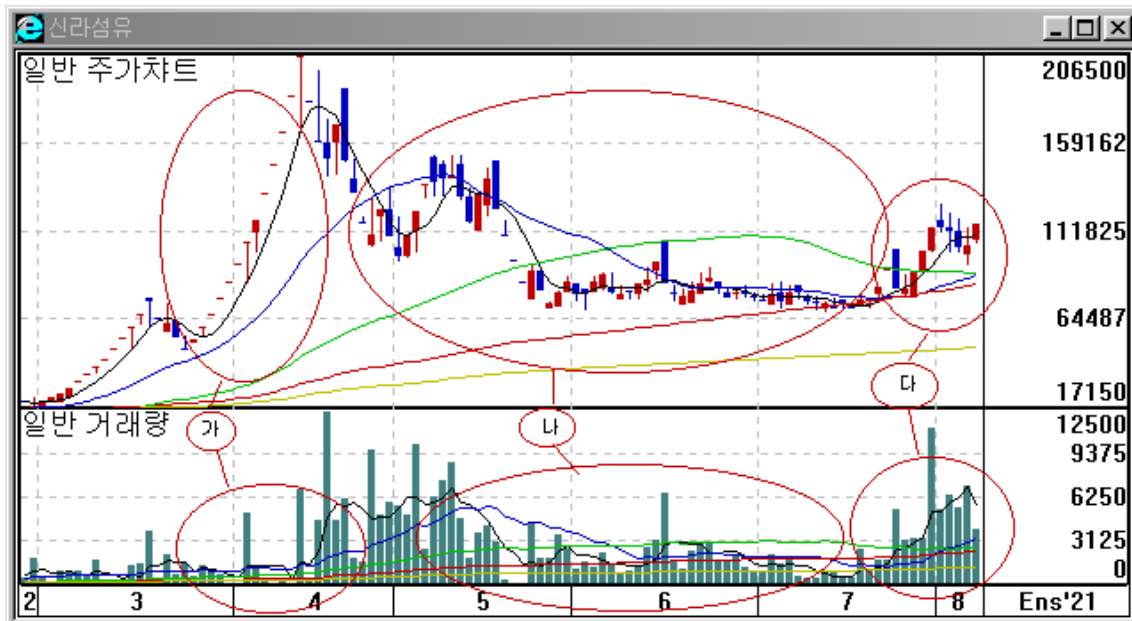
- ㉠ 위로부터 주가.단기선.중기선.장기선의 순으로 정배열되어 나란히 상승중일 경우에는 강세국면으로 봅니다.
- ㉡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이후 단기이동평균선이 더이상 오르지 못하고 약해지면 천정권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인식합니다.
- ㉢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서로 혼란하게 얹혀 있을 때는 장세의 방향이 불투명 함으로 매입을 보류하는것이 좋습니다.



★ 하락추세에서의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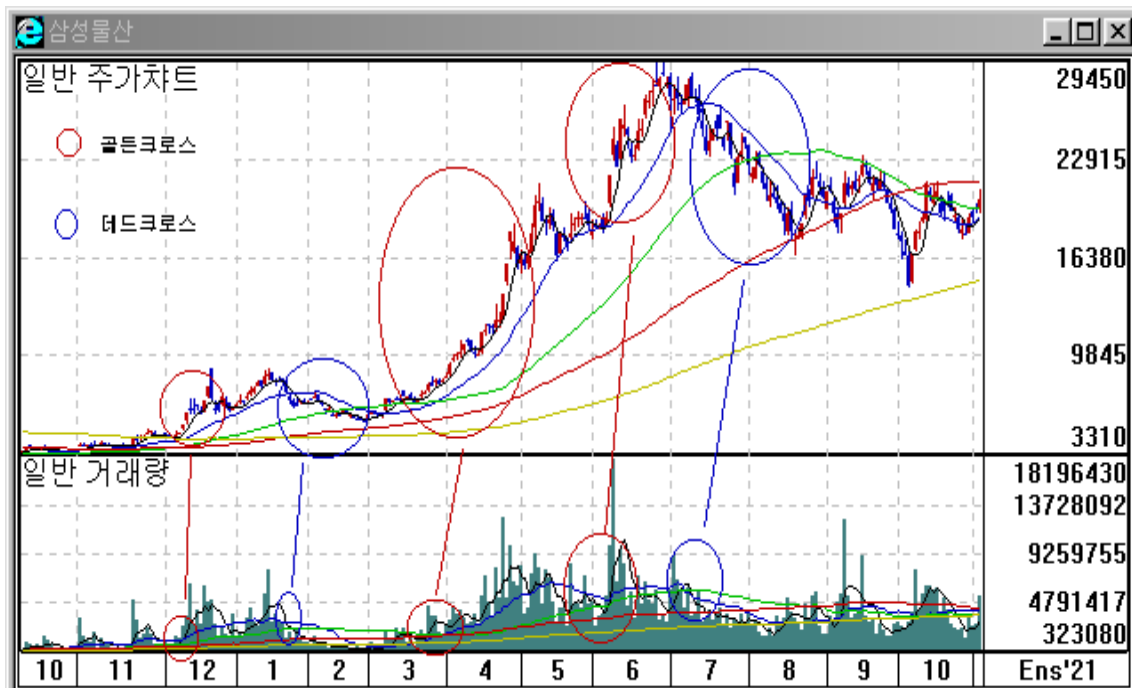
- ㉠ 단기이동평균선이 위에서 아래로 중. 장기 이동평균선을 급속히 하향돌파할 경우에 매도신호로 봅니다.
- ㉡ 위로부터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 주가의 순으로 역배열되어 나란히 하락중일 경우에는 약세시장으로 인식하는게 좋습니다.
- ㉢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이후 단기 이동평균선이 더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바닥권으로 인식하는게 좋습니다.

1.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방향성분석과 배열도 분석



위의 그림에서 가와 다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기, 단기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 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단기, 장기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상태를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2.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분석



위의 그림에서 적색원의 영역과 같이 거래량 장기, 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수시점으로, 청색원의 영역과 같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도시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7.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1)

- ①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신호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신호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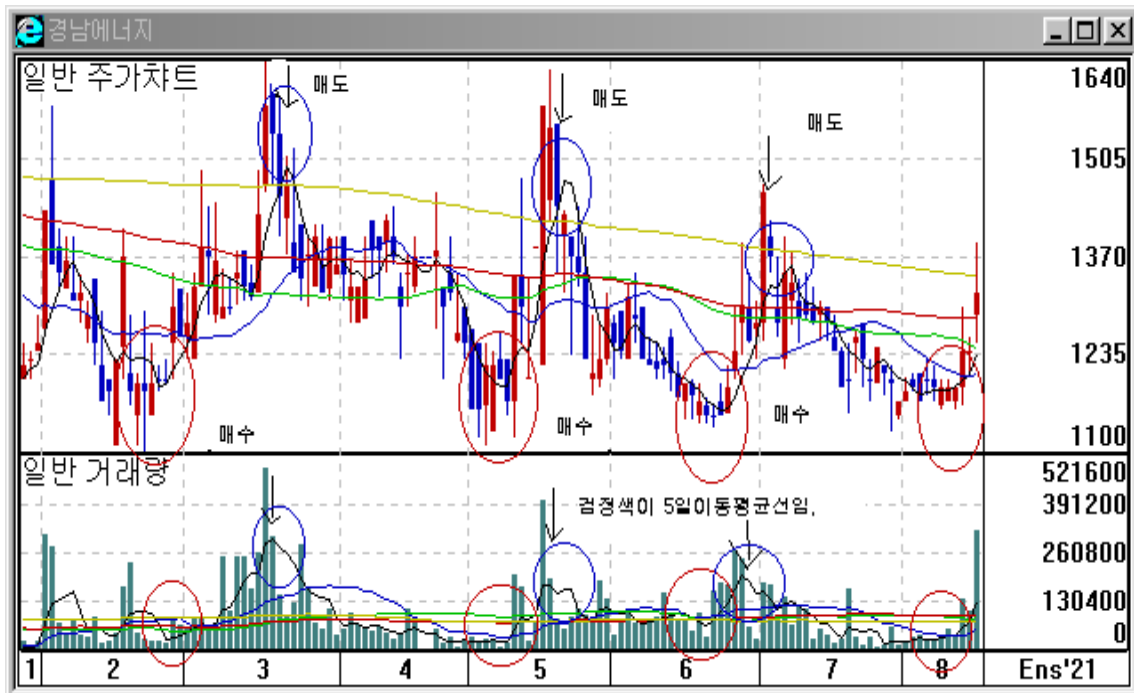


- ② 일일거래량이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하지 못할 경우 매도신호로 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일거래량이 거래량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 5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하지 못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시점을 매도시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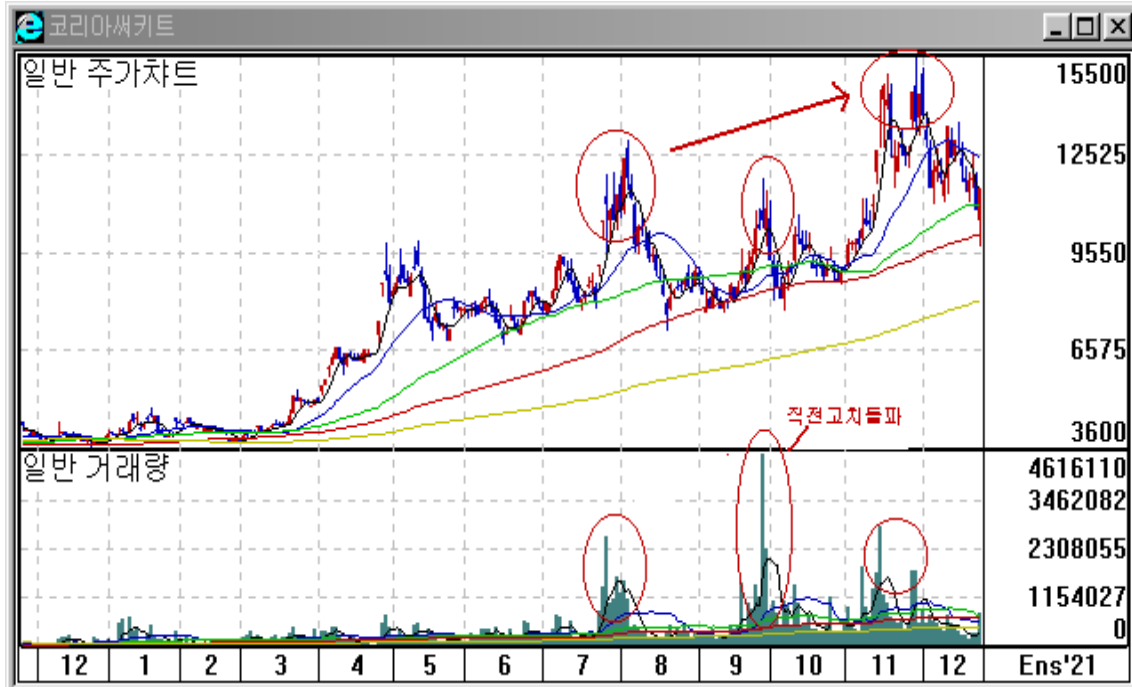
- ③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반전하면 매수신호로, 반대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량 5일 이동평균선이 하락반전하면 매도신호로 봅니다.



거래량5일 이동평균선의 상승.하락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2)

- ④ 직전고점의 거래량을 상회하지 못하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없지만, 반대로 직전고점의 거래량을 상회하면 주가는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할 수 있습니다.



- ⑤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주식은 조만간에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주식은 조만간에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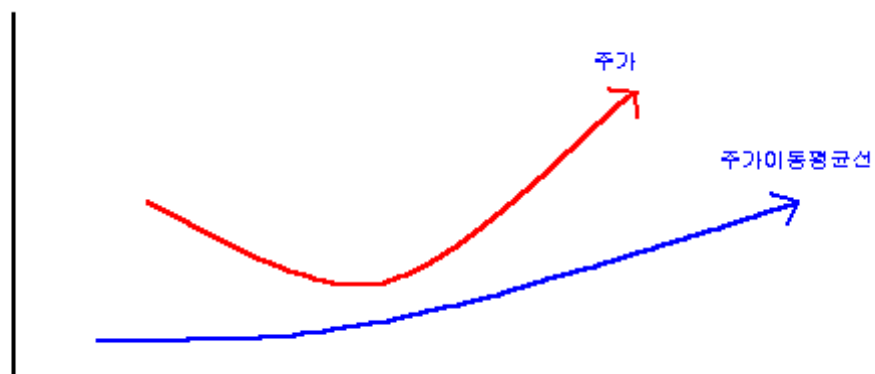
거래량 증가는 주가상승이 뒤따르고, 거래량 감소는 주가 하락이 곧이어 나타남.

- ⑥ 주가는 횡보하고 있으나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수신호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매도신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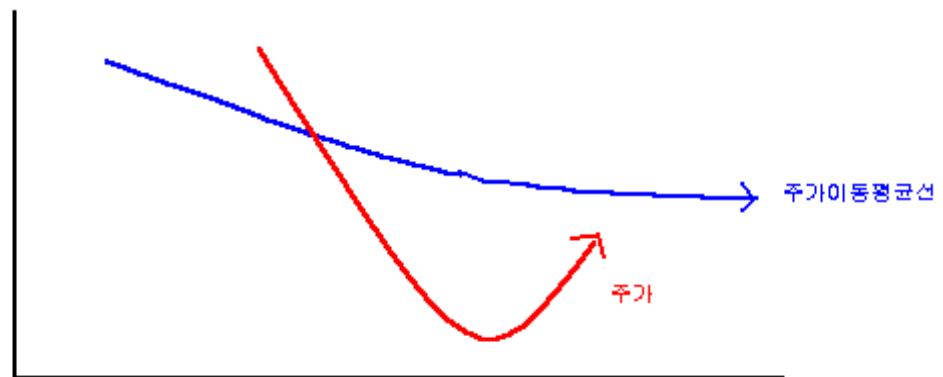


- ⑦ 주가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지만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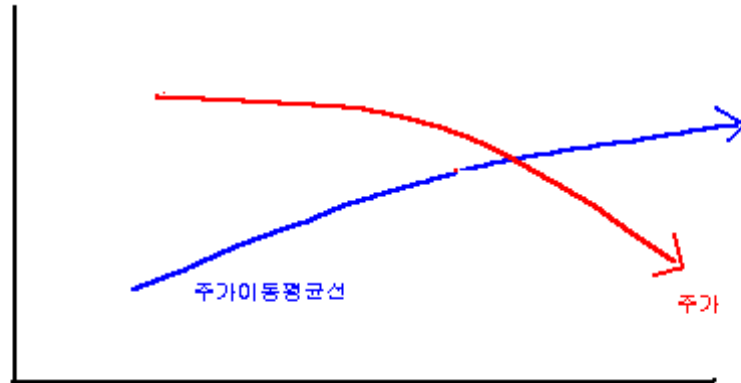
- 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한 후 급락시는 이동평균선까지 반등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차익을 위한 매입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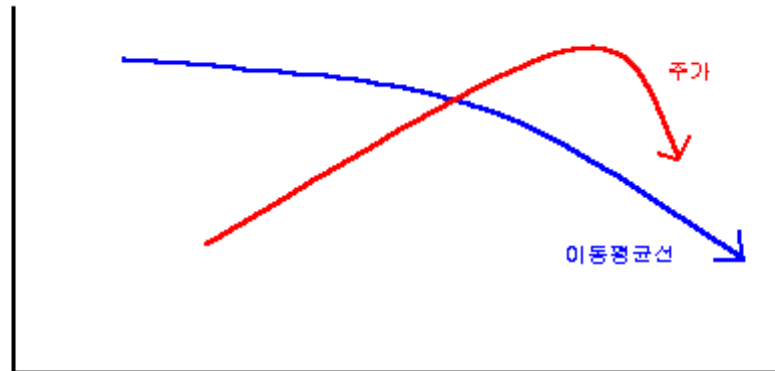
10. 그랜빌의 투자전략(매도신호)

② 매도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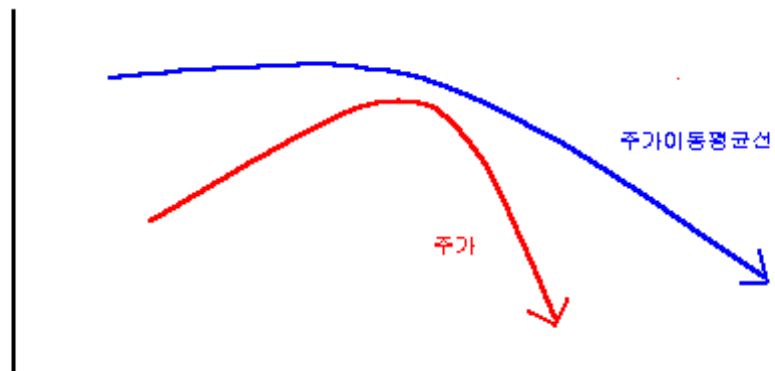
- ㉠ 이동평균선이 상승한후 평행 또는 하락국면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 시 매도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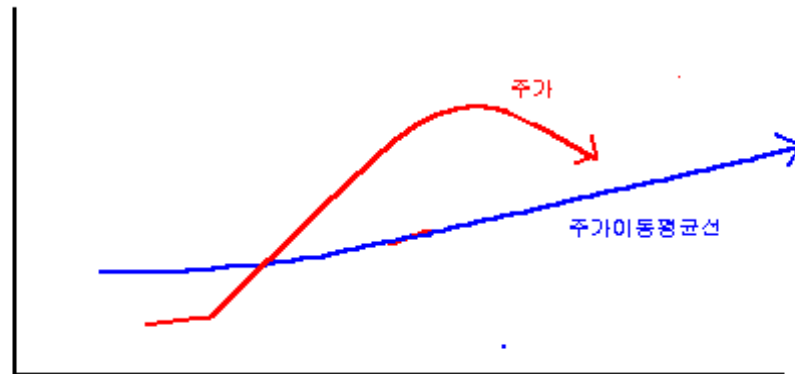
- ㉡ 이동평균선이 하락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하는 경우, 하락추세이므로 일시적인 주가상승으로 보아 매도신호.



- ㉢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상향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매도신호.



- 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후 다시 급등시, 이동평균선으로 자율반락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도신호.



11. 지지선과 저항선

저항선이란 주가의 상승을 저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도세력이 강하여 매입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주가수준을 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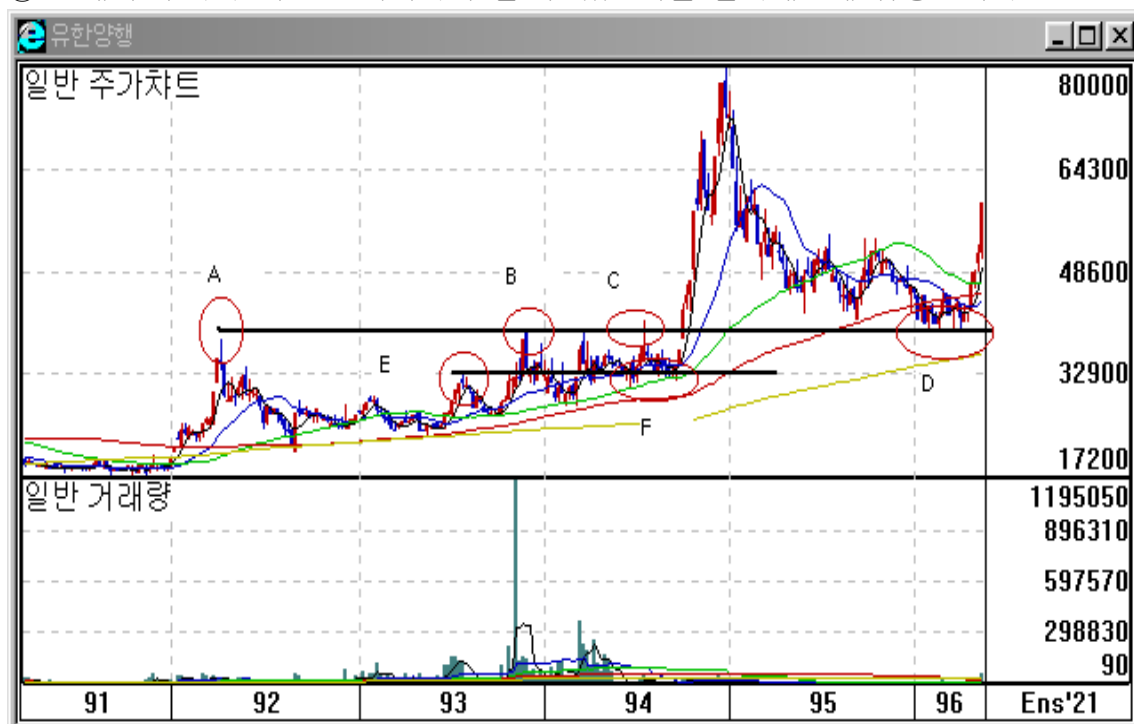
지지선이란 저항선의 반대개념으로, 주가의 하락을 떠받칠 수 있을 정도로 매입세력이 강력하여 매도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주가수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에 나타났던 최고점은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직전의 최저점은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징은 저항선이나 지지선들이 일단 돌파되기만 하면 이제까지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그 역할이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현재의 주가가 최소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유용합니다.



고점 A,B,C는 저항선으로 D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였고, 고점E가 F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하였습.

12. 추세선 분석

12-1 추세의 의미

1. 추세

추세란 "가격이 움직여 가는 방향"이라고 정의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일직선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고 이러한 움직임은 차트상에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세란 결국 이들 즉, 고점과 저점이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상승추세는 저점들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이고, 하락추세는 고점들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이며, 평형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평형을 이루는 추세를 말합니다.

2. 추세선의 종류

상승추세선:상승추세는 매입세력이 매도세력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매입세력은 주가의 저가수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저점들을 이은 선이 상승추세가 됩니다.

하락추세선:상승추세와 반대의 경우로 매도세력을 잘 나타내는 고점들을 이은선.

보합추세:시장가격의 움직이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수평으로 있는 경우를 말하며 추세선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3. 추세선 긋기

추세선이란 추세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고점과 저점이 필요한데, 추세선이 정확히 그려지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고점과 저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세선상 이러한 고점과 저점의 수가 많을수록 추세선의 신뢰성은 커집니다.

추세선은 나타나는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추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기추세는 매일의 주가움직임을 하나의 추세로 설정함으로써 단기적인 주가흐름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가가 일정한 추세선또는 추세대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추세는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일봉차트에 의한 단기추세보다 주봉이나 월봉차트에서 형성되는 중기 또는 장기추세선을 훨씬 신뢰할 수 가 있습니다.

장, 단기 추세선긋기 사례



U:매수. D:매도

12-2 추세대

4. 추세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추세선을 그릴 경우 간혹 고점과 저점이 평행한 추세선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변동이 차트상으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추세대를 형성했다고 말합니다. 즉 시장가격이 위,아래로 서로 평행한 2개의 추세선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경우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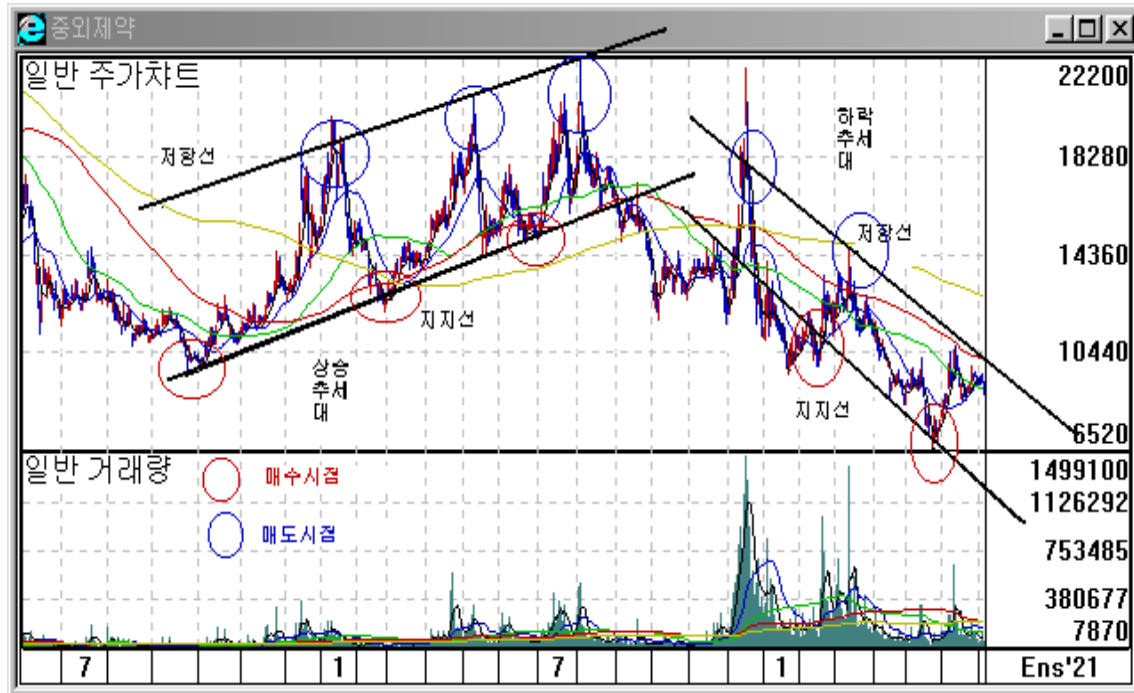
한편 추세선의 신뢰는 확인과정이 여러번 진행될수록, 추세선의 길이가 길수록,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높아집니다. 추세대가 확인되면 주가는 이 추세대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큼니다. 주추세선이 돌파되는 경우 추세반전의 신호로 대부분의 경우

주가의 추세는 지금까지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추세대 형성시 매매전략

주가가 하락하면 지지선의 바로 위쪽에서 매입을,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저항선의 바로 아래쪽에서 매도를 합니다.

추세대 형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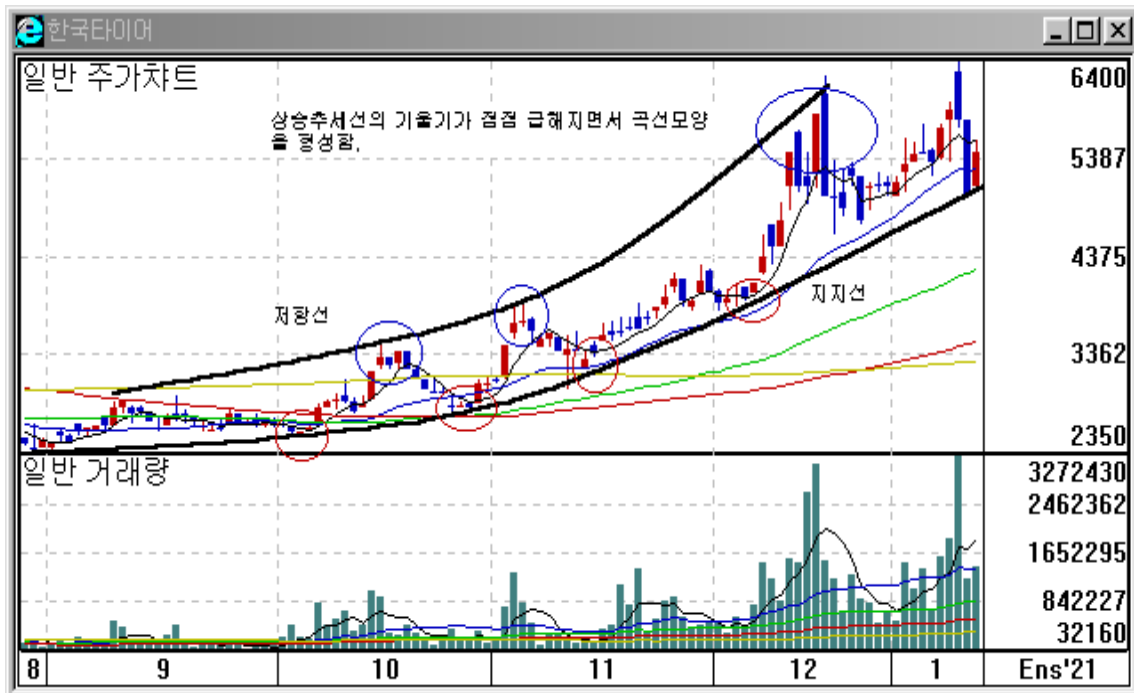
12-3 추세선의 변형

1. 추세곡선

추세선은 보통 직선에 가까운 모양이지만 여러가지 변형을 가꿈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점에서 상승 또는 하락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직선의 추세선과 방향을 같이 하면서 움직이는 곡선형태 입니다, 즉, 추세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완만한 곡선이 주가의 장기조정 과정후에 나타난 것이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가의 대세를 정상 또는 바닥의 최종단계로 몰고가는 절정의 움직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절정의 움직임이란 매매쌍방의 과열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주가의 변동폭은 극단적으로 커지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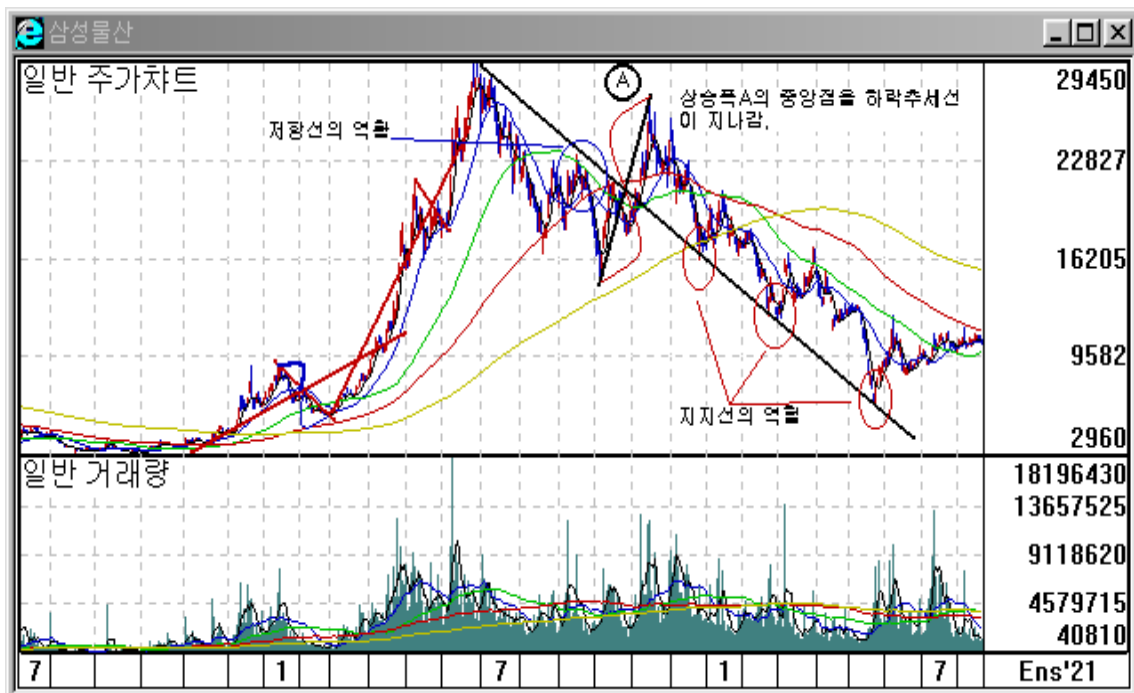
상승절정에서의 주가 과열 상태시 유의해야 할것은 전환국면이 일어나기 전에 절정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2. 중심추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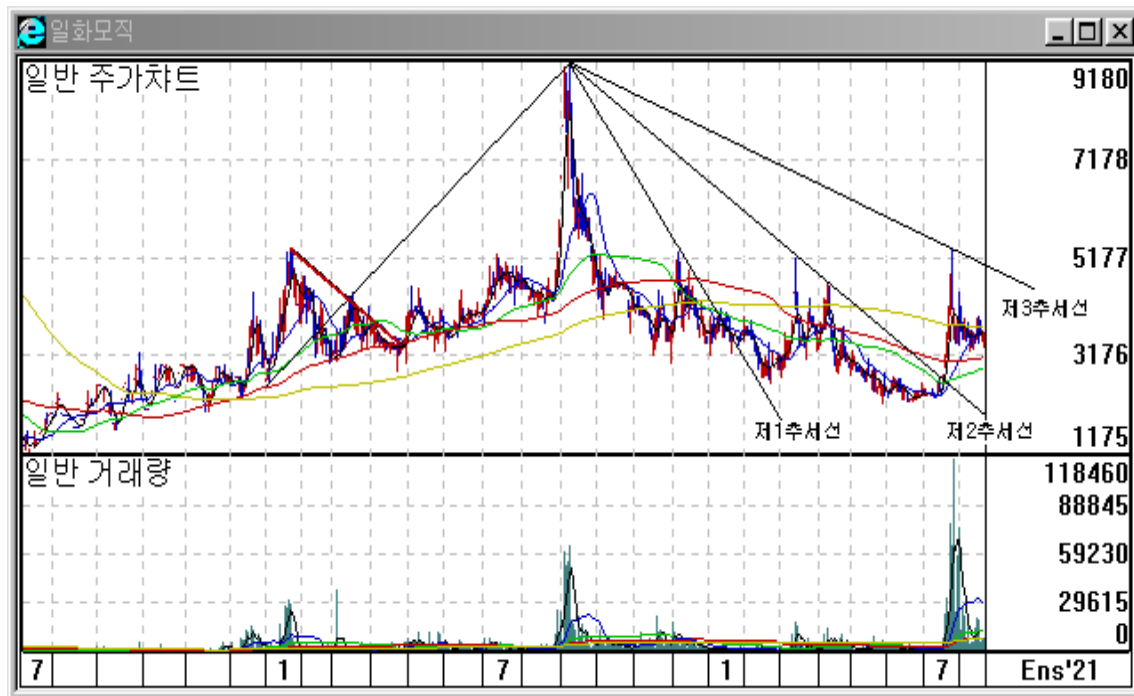
상승추세선을 하향돌파한후 추세선의 유인효과에 의해 다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저항선 역할을 했던 추세선은 지지선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추세선 긋기를 하면 앞의 저점과 돌파이후의 고점들을 연결한 모양이 되므로 중심추세선이라 합니다.



3. 부채형 추세선

상승(하락)추세에서 하락(상승)으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 하락(상승)하던 주가가 상승(하락)하려다 다시 하락하는 경우 최고점(최저점)으로부터 이 상승(하락)을 시도한 고점(저점)을 이은 선은 저항선(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제2, 제3, 등의 추세선이 생길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부채형 추세선이라 부릅니다.



12-4 추세의 전환

추세의 전환

추세는 한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기존추세를 이탈하여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추세선을 그릴 때에는 하루의 종가만 이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루 중의 주가움직임을 모두 포함하는 시장가격 즉 최저가와 최고가를 모두 포함시켜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추세선을 그릴 경우, 하루중의 주가가 잠깐씩 추세선을 벗어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경우, 기존의 추세선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최선의 방법은 기존의 추세선과 추세선이 돌파되었다고 생각했을때의 새로운 추세선을 같이 그려 두었다가 이후의 시장가격 움직임을 관찰하여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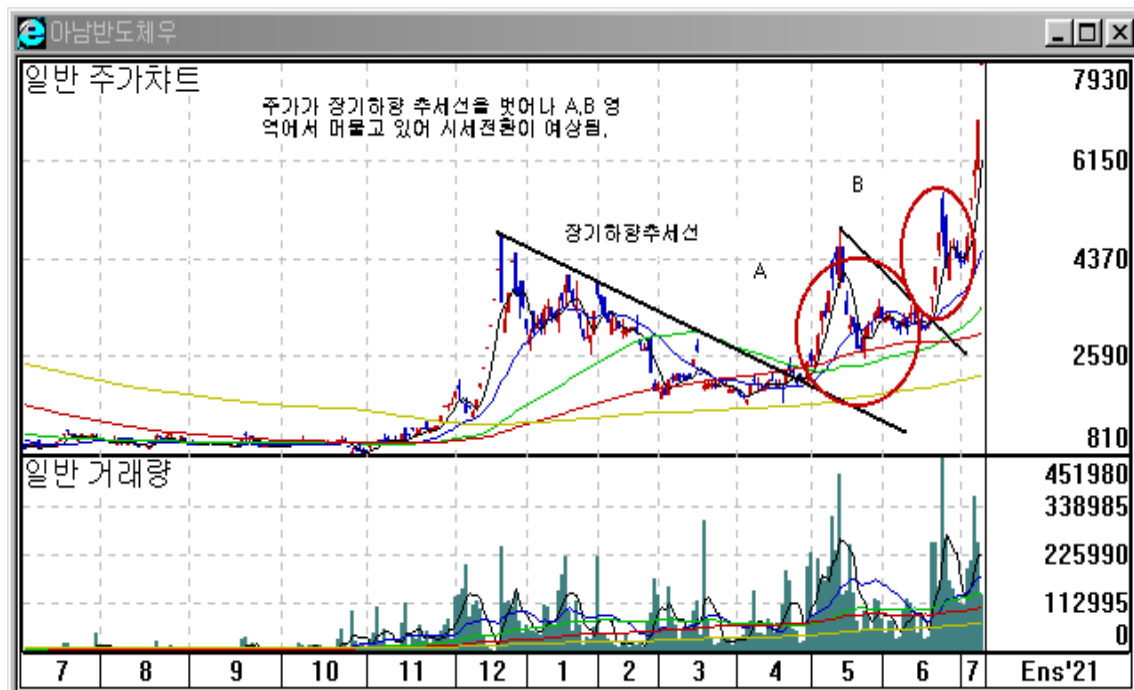
그런데 일단 추세선을 돌파하여 시장가격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추세가 바뀌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돌발사태에 의한 것으로 조만간 다시 기존의 움직임을 계속할 것인지는 당장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세전환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로 한데

1. 시장의 증가가 강한 음선 또는 양선을 그리며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로 형성되었다면, 추세전환의 가능성이 큼니다.



2. 주가가 일정비율이상 추세선을 벗어나서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추세전환의 신호로 봅니다.



3. 특정시간 이상으로 추세선이 돌파된 상태로 있으면, 이를 추세전환의 확정으로 봅니다.



4. 추세전환을 확인하는 시점은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으로 봅니다.



위에서 말한것은 추세전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각의 기술적 분석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12-5 추세선의 신뢰도

추세선의 신뢰도

실제 차트상에서 추세선을 설정해보면, 추세의 방향과 저점의수, 추세의 길이, 추세의 각도등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형태의 추세선이 특히 신뢰할수 있을 것인가를 알수가 있습니다.

1. 추세의 방향과 저점의수

상승추세선은 우선 최초의 저점과 이보다높은 2번째 저점을 잇는 두점을 연결함으로써 설정할 수 가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2번째 저정보다 높은 곳에서 3번째의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처음 설정한 상승 추세선은 진실된 추세선으로 확인되는 셈입니다. 그후 추세선상에 제4의 저점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처음 추세선이 기준으로써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2. 추세선의 길이

주가가 지금까지의 추세선을 깨뜨리고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추세선의 길이가 짧을때 즉, 주가가 지나치게 급격히 상승하던가 너무 작은 폭으로 움직인경우의 추세선은 틀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승추세선에 있어서 바닥과 바닥의 사이가 점점 높아져 있으면 상당한 기간의 주가상승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말하고 또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중요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3. 추세선의 각도

추세선의 각도 즉, 기울기 역시 추세선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추세선의 각도가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그 추세성은 쉽게 파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추세선의 경사도가 완만하면 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전환될때의 중요성 역시 큼니다. 그러나 추세선의 진정한 상승각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추세선의 각도는 개개 주식에 대한 시장 습성과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13. 추세선을 이용한 투자전략(매입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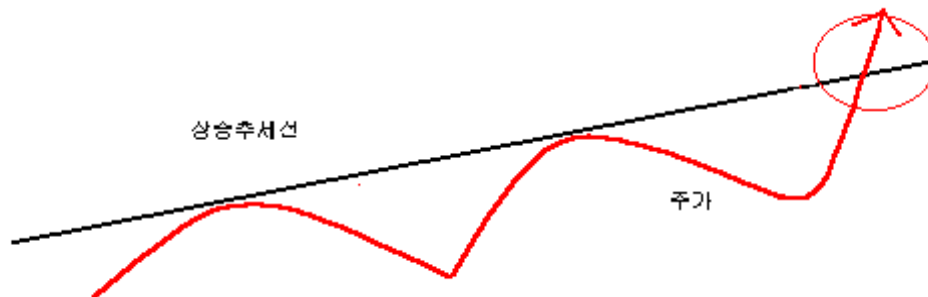
추세선이 깨지면 언제든지 주의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선이 돌파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① 매입신호

추세가 상승하거나 평행을 움직인 경우는 주가가 추세대의 저점, 즉 상승추세선에 접근 할 정도로 반락하는 시점은 언제나 매입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추세가 장기화 되면 될수록 추세선의 중요성 점차 커지나, 반전의 가능성 역시 커지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추세선을 이용한 매입신호

▷ 주가가 상승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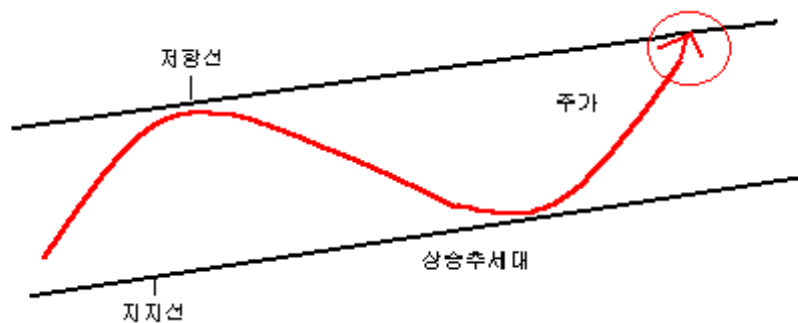
▷ 평형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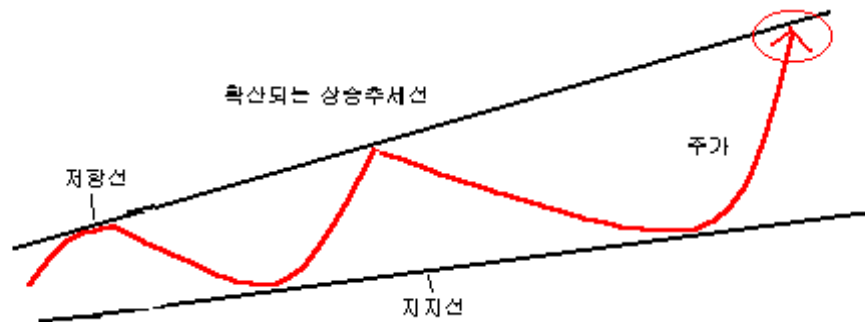
▷ 다른지표는 매입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가는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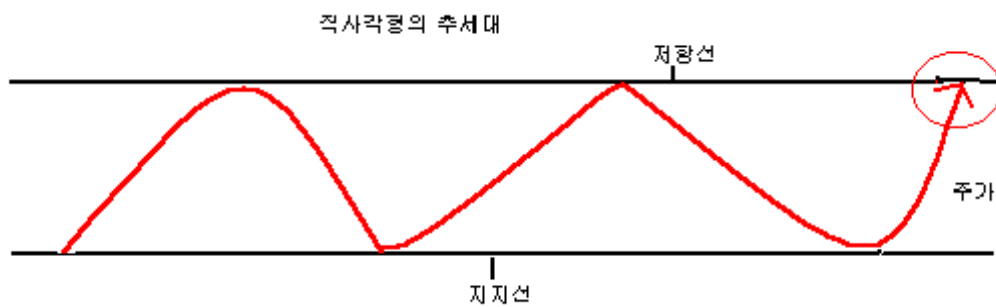
▷ 주가가 상승평형 추세대의 저항선에 접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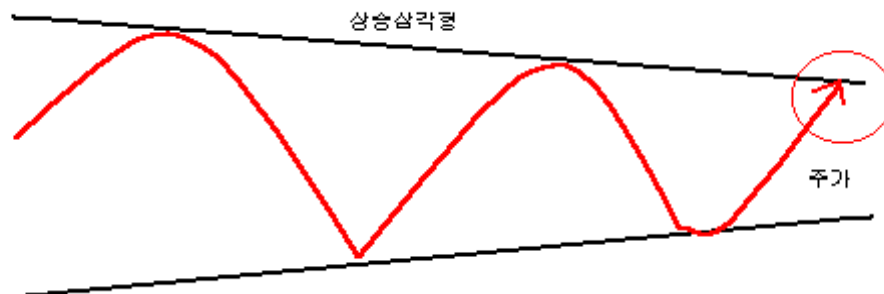
▷ 확산되는 상승추세선의 저항선에 접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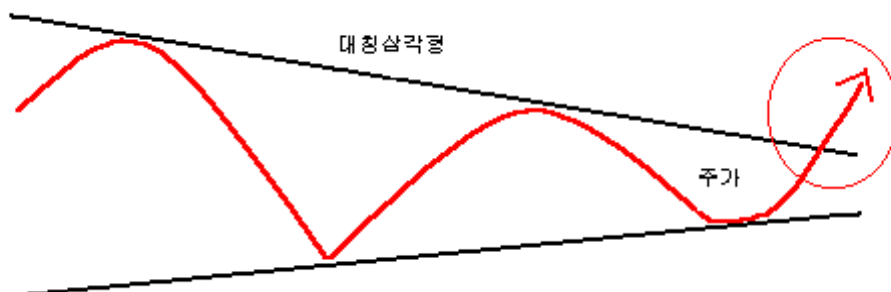
▷ 직사각형을 형성한 추세대내의 주가가 다섯번째의 반전에서 저항선에 접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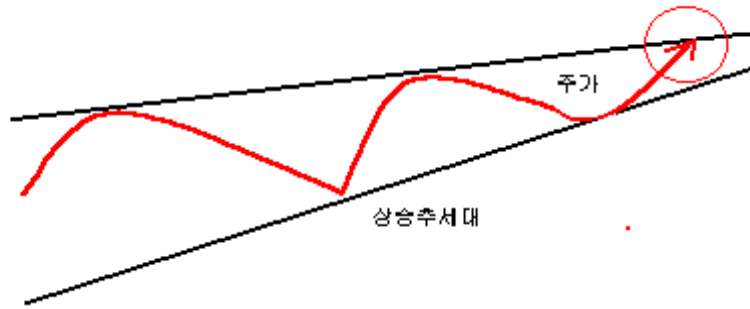
▷ 주가가 상승삼각형의 저항선에 접하는 경우.



▷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며 대칭삼각형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 수렴하는 상승추세선내의 주가가 저항선에 접하는 경우.(빼기형으로 반전될 경우 매입금지)



14. 추세선을 이용한 투자전략(매도신호)

② 매도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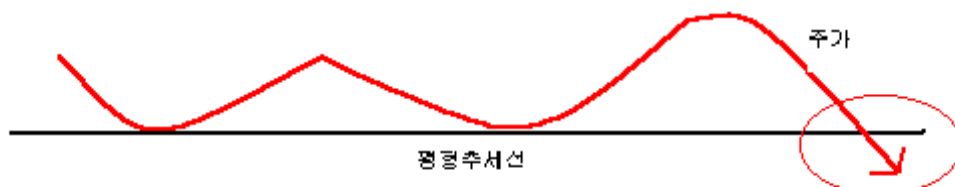
매입신호와 반대로 추세가 하락하거나 평형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지지선이 매도 신호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세의 상승전환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상승과정이 일정기간 지속된 이후 보통수준의 거래량으로 주가가 상승하며 상승보조 추세선의 돌파 전 또는 직전의 단기적인 천정을 넘어 신고가를 나타내기 전에 거래량이 급등하면 매도시점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보통 상승추세의 마지막 국면인 절정현상이 예상되는 시점으로서 단기간에 큰 주가변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 추세선을 이용한 매도신호

▷ 주가가 하향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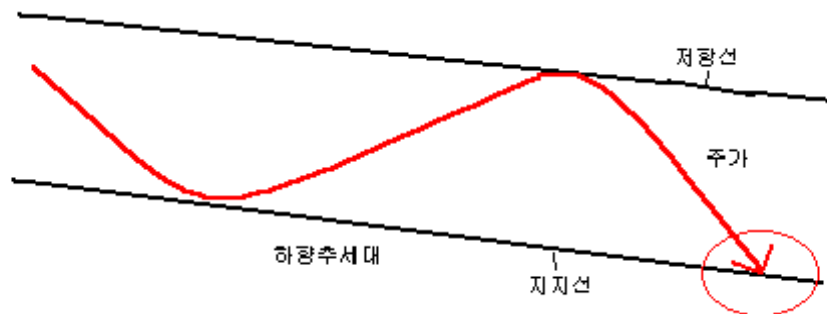
▷ 주가가 평형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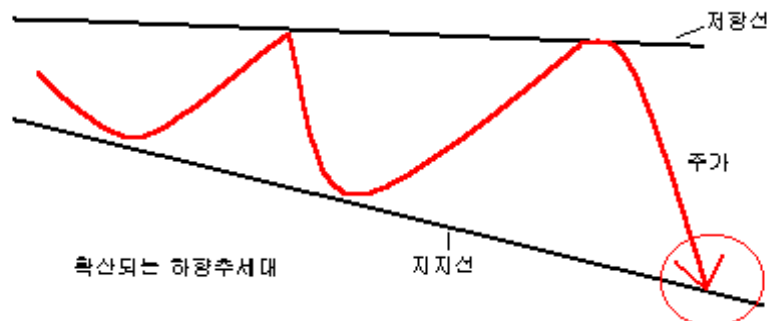
▷ 다른 지표는 매도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가는 상향추세를 보이다가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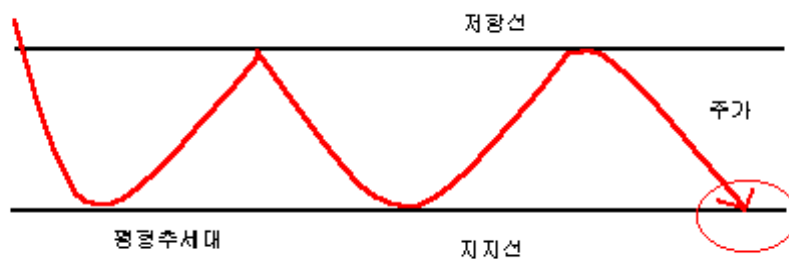
▷ 주가가 하향추세대의 지지선에 접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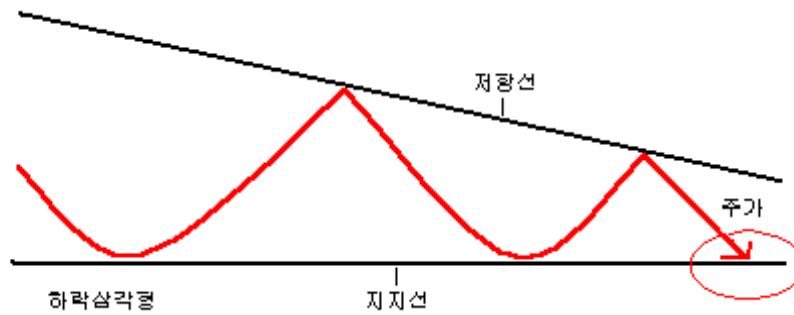
▷ 확산되는 하향추세대의 지지선에 접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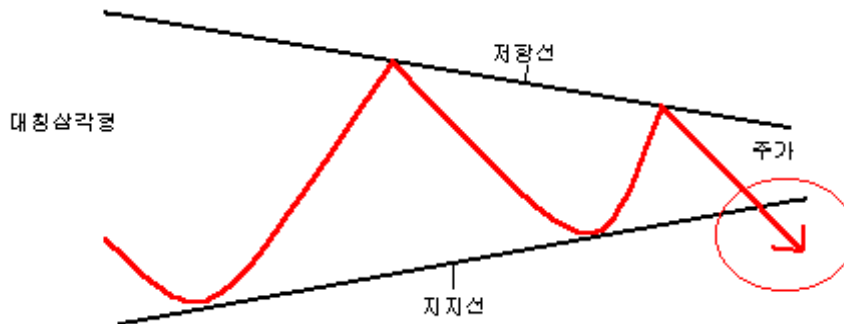
▷ 직사각형을 형성한 추세대내의 주가가 5번째 반전에서 지지선에 접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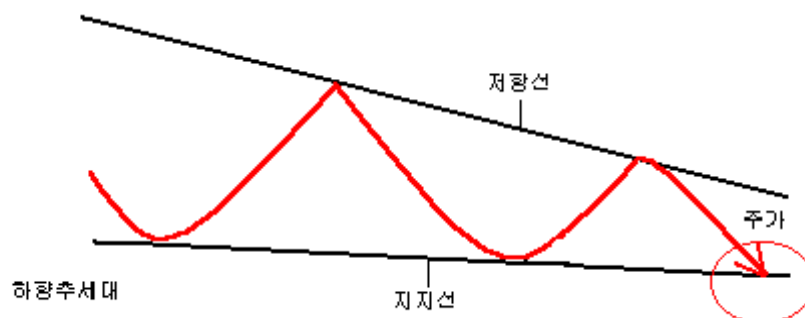
▷ 주가가 하락삼각형의 지지선에 접하는 경우.



▷ 주가가 대칭삼각형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 수렴하는 하향추세대내의 주가가 지지선으로 접하는 경우.(썰기형으로 반전될 경우 매도금지)



15. 차트의종류

주식차트는 주가흐름을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 선형차트와 봉형차트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① 선형차트

선형차트는 매일매일의 종가를 직선으로 이어서 나타낸 도표로서 세로축에 주가를 가로축에 시계열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 같은 것을 선형차트라고 합니다.

② 봉형차트

어느 기간 동안의 시가, 종가, 최고가, 최저가를 하나의 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③ 기타

P&F, 주가상관곡선 등과 같이 시계열을 무시하고 주가만 나타낸 차트를 점수차트라 합니다.

이중에서 주가차트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봉형차트는 그 구성요소에 따라서 미국식 봉형차트와 일본식 봉형차트로 구분됩니다.

미국식봉형차트

- ㉠ 최고가, 최저가, 종가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 최고가와 최저가는 차트의 몸을 형성하고 종가는 보통 몸의 오른쪽에 횡선으로 나타낸다.
- ㉢ 최고가와 최저가를 이루는 몸은 주가변동 범위를 나타낸다.
- ㉣ 시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상승과 하락폭을 나타낼 수 없다.

일본식봉형차트

- ㉠ 시가,종가,최고가,최저가의 네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 시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미국식 차트와 다르다.
- ㉢ 시가와 종가가 차트의 몸을 형성하고 최고가와 최저가는 몸의 위 또는 아래의 방향으로 고가선과 저가선을 나타낸다.
- ㉣ 일본식 차트에서 시가와 종가의 몸은 상승과 하락폭을, 고가선과 저가선의 간격이 주가변동폭을 의미한다.
- ㉤ 미국식 차트가 나타내는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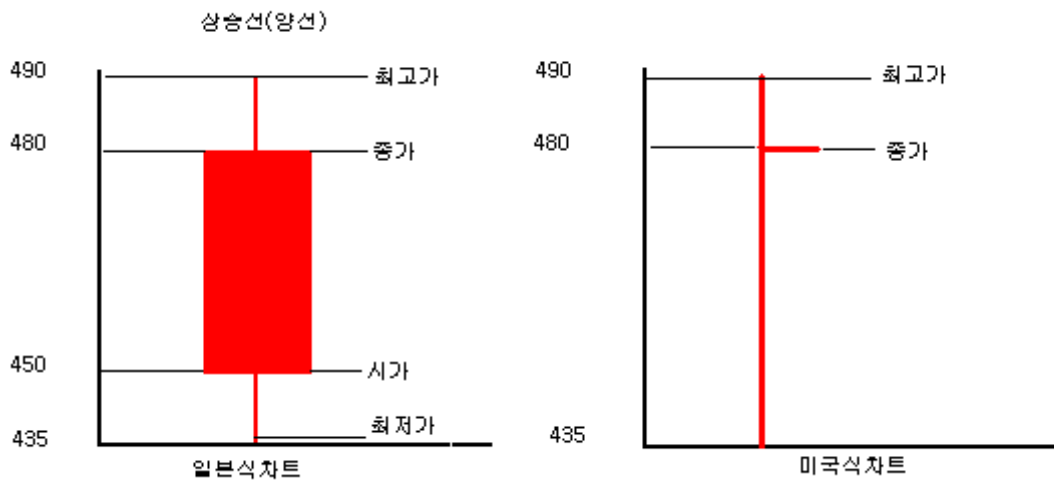
주가차트는 하나의 봉이 나타내는 기간에 따라서 일간차트, 주간차트, 월간차트, 연간차트 등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즉

일간차트는 하루동안의 시세변동을 나타내고, 주간차트는 1주일, 월간차트는 1개월, 연간차트는 1년간의 시세변동을 하나의 봉으로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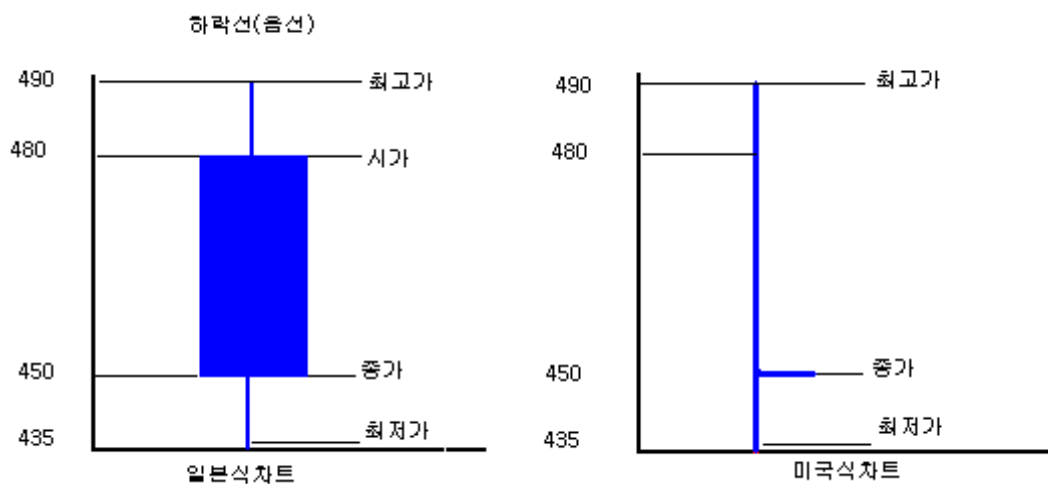
봉차트의 작성예

예를들어 8월25일.

- ① 어떤주식이 아침 시가가 450원에서 출발하여 480원의 종가로 끝나고 그날 장중 최고가가 490원, 최저가가 435원을 기록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봉형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 ② 시가가 480원에서 출발하여 종가가 450원이고 최고가와 최저가는 490원과 435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봉형차트를 그릴수 있습니다.



16. 차트의 기본패턴분석(1)

주가차트는 시가, 종가, 최고가, 최저가의 4가지 구성요소에 의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기본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패턴을 이해하면 주가흐름에 대한 현재의 시장상황을 잘 알 수 있고 이러한 시황의 파악은 주가의 단기에측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아주 단기적인 매매시점을 좀더 유리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매일 또는 매주 형성되는 차트의 기본패턴을 수시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차트의 기본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다음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주가차트의 몸통

일정기간 동안(1일,1주일,1개월) 형성되는 주가 움직임의 상승 및 하락과 그 폭을 나타내 준다.

② 고가선과 저가선

주가의 변동범위를 가르킨다. 따라서 고가와 저가 사이의 간격이 멀면 멀수록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③ 차트의 패턴형성

여러개의 개별차트가 모여서 주가 흐름의 어떤 특징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이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주가변동의 전환 시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차트모양의 분석에 의해서도 증권시장의 매입세력과 매도세력의 변동상황을 알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의 개별 차트라 하더라도 그때그때의 시장상황에 따라 그 뜻이 다르나, 통계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은 알수가 있습니다.

개별차트 모양의 일반적인 뜻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긴 상승선이 저가권에서 나타나면 방향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락세가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가권에서 긴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는 방향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매입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특히 저가권에서 나타나면 매입세력이 강력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모양은 통계적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때 자주 나타난다.



하락세이긴 하지만 저가권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크다.



상승기준이 있지만 고가에서 매도세력의 압력이 나타남을 뜻하고 고가권에서 나타날때는 반락의 우려가 있다.



역시 하락세가 강력하다는것을 뜻하며, 고가권에서 나타나면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 이모양은 주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때 자주 나타난다.



시세의 전환점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저가권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많고, 고가권에서는 반락의 가능성이 많다. 이모양은 매입과 매도의 세력관계가 서로 균형을 맞서있는 상태이다.



강력한 평정국면을 가르키며 보통 거래량이 적고 침체국면에서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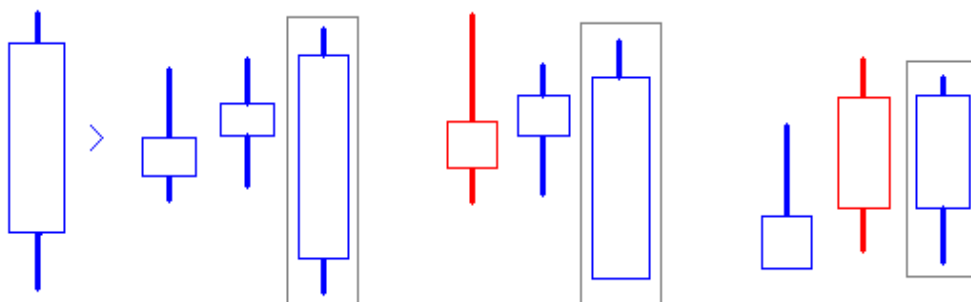
17. 차트의 기본패턴분석(2)

17-1 캔들차트 보는요령(1개의 봉으로)

1. 긴 음봉(Long Body Black)

긴 음봉은 장중시가와 종가의 등락폭이 즉, 몸통이 이전 날들의 봉의 크기보다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락장세에서 음봉은 하락지속형으로 작용되지만 마르보쥬(Marubozu) 패턴 만큼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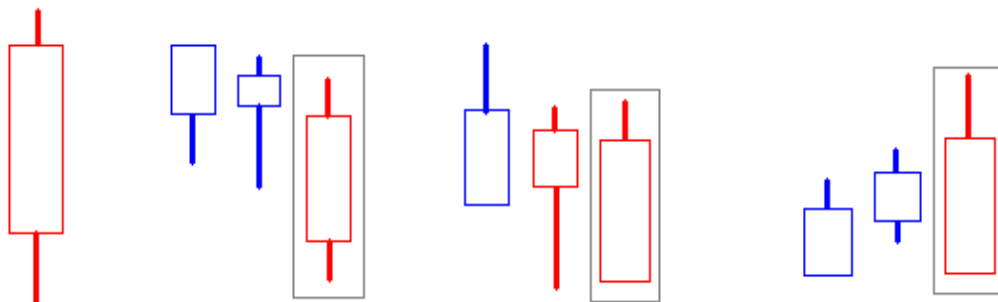
이패턴의 형태만 가지고 매매에 임하기 보다는 향후 주가를 관찰해 가며 매매에 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 긴 양봉(Long Body White)

긴 양봉은 장중시가와 종가의 등락폭이 즉, 몸통이 이전 날들의 봉의 크기보다 매우 길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승장세에서 양봉은 상승지속형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마르보쥬(Marubozu) 패턴 만큼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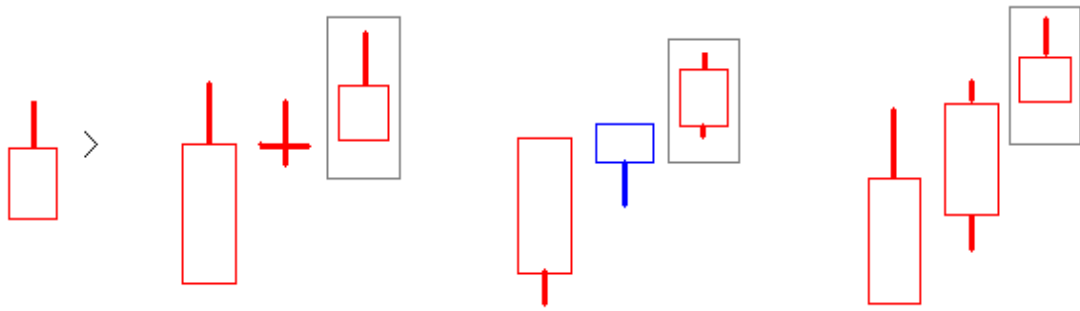
이 패턴의 형태만으로 매매를 하기 보다는, 향후 주가를 관찰해 가며 매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작은 양봉(Short Body White)

작은 양봉은 장중시가와 종가의 등락폭이 즉, 몸통이 이전날들의 봉의 몸통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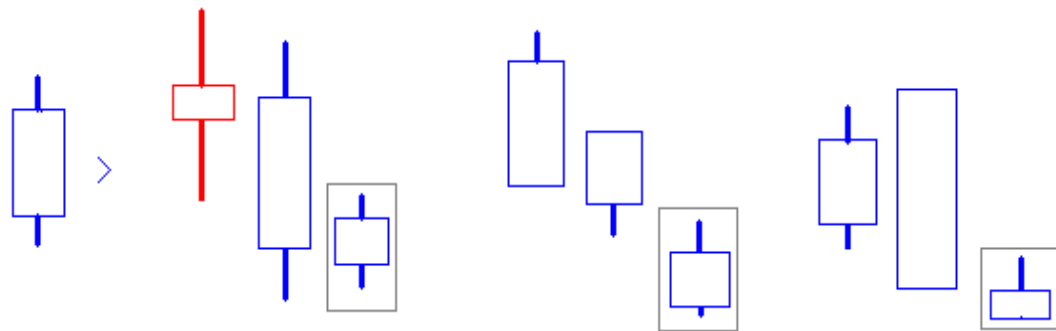
이형태만으로는 매매를 판단하기 힘들며 다만 전날 긴 양봉이 발생한 다음 상승 갭을 하며 작은디 양봉이 생겼다면 장세전환이 임박했다는 신호 정도로만 인식할수 있으며, 추후 장세전환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매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작은 음봉(Short Body Black)

작은 음봉이란 장중시가와 종가의 등락폭이 작, 몸통이 이전 날들의 봉의 몸통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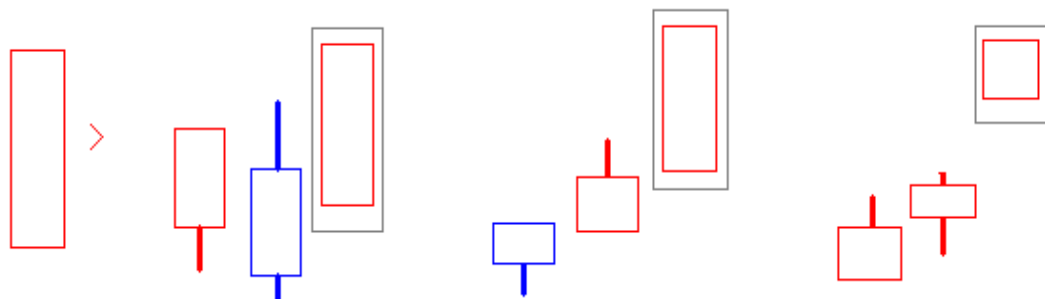
이 형태만으로는 매매를 판단하기 힘들며 다만 전날의 긴 음봉 발생한 다음 하락 갭을 하며 이 봉이 생겼다면 장세전환이 임박 했다는 신호 정도로만 인식할수 있으며, 추후 장세전환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매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완전 양봉(Marubozu White)

종가와 고가가 같고 또한 저가와 시가가 일치하는 경우로 매우 강한 상승장세를 반영하는 봉으로 상승지속형 패턴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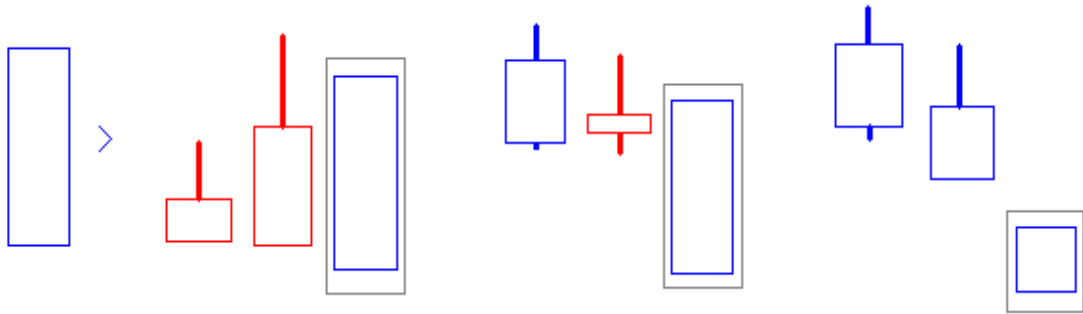
반면, 가끔 상승국면의 마지막에 출현하여 하락반전의 신호로 작용하기도 한다.



6. 완전 음봉(Marubozu Black)

시가와 고가가 같고 저가와 종가가 일치하는 경우로 매우 취약한 하락장세를 반영하는 패턴의 형태로 종종 하락지속형 패턴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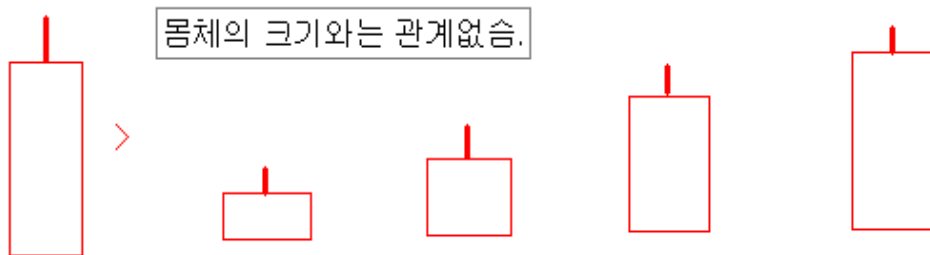
반면에 가끔 하락 막바지 국면에 투매를 나타내며 강세전환 패턴의 첫날에 나타나기도 한다.



7. 윗꼬리 양봉(Opening White Marubozu)

밑꼬리 양봉 형태와 반대로 시가와 저가가 일치하며 아래쪽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종가와 고가는 다른 경우로 위쪽 그림자는 몸통보다 매우작은 형태의 패턴으로 강한 상승장세를 반영하는 봉으로서 상승지속형 패턴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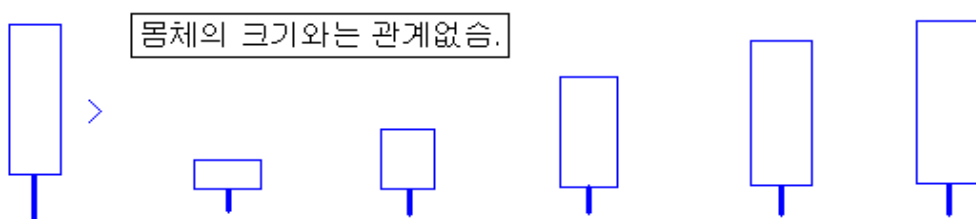
그러나, 완전한 양봉 만큼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8. 윗꼬리 음봉(Opening Black Maruboz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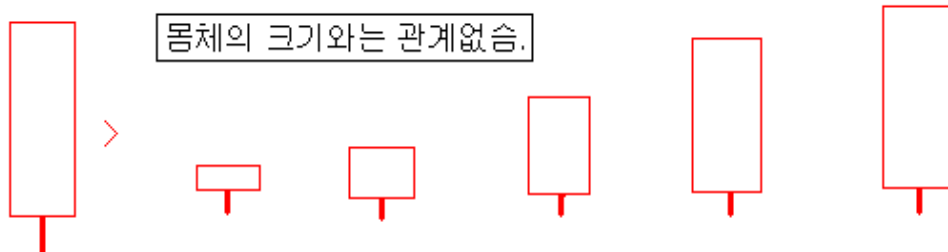
밑꼬리 음봉 형태와 반대로 시가와 고가가 일치하며 위쪽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종가와 저가는 다른 경우로서 아래쪽의 그림자는 몸통보다 매우 작은 형태의 패턴으로 취약한 하락장세를 반영하는 하락지속형 패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음봉보다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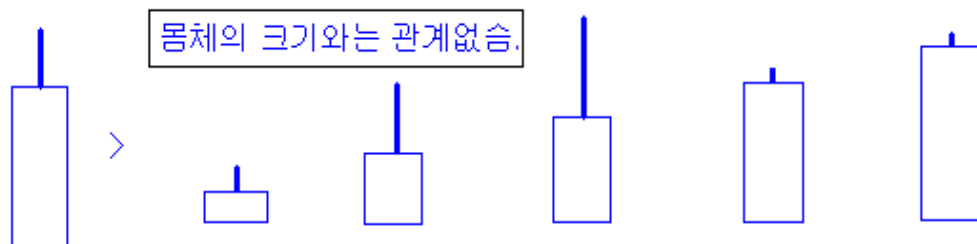
9. 밑꼬리 양봉(Closing White Marubozu)

윗꼬리 양봉의 형태와 반대로 증가와 고가가 일치하고 위쪽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가와 저가는 다른 경우로서, 아래쪽의 그림자는 몸통보다 매우 작은 형태로 강한 상승장세를 반영하는 상승지속형 패턴으로 작용한다.



10. 밑꼬리 음봉(Closing White Maruboz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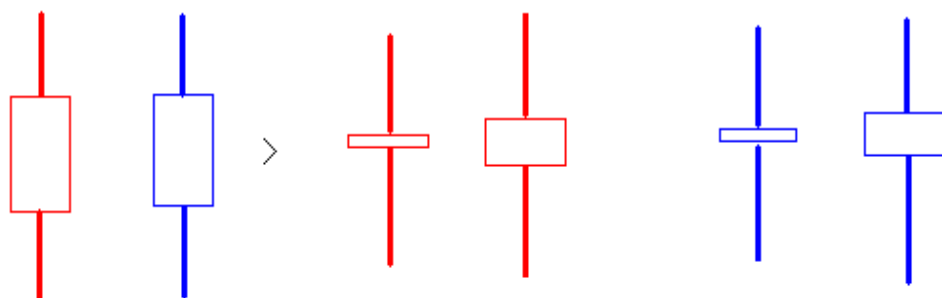
윗꼬리 음봉의 형태와 반대로 증가와 저가가 일치하며 아래쪽 그림자는 가지고 있지않고, 시가와 고가는 다른 경우로서, 위쪽 그림자는 몸통보다 작은 형태의 패턴으로 취약한 하락장세를 반영하는 봉의 형태로 하락지속형 패턴으로 작용한다.



11. 큰떨림 일봉(High Wave Cand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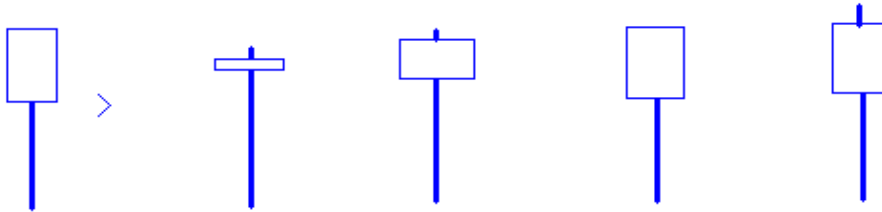
몸통에 비해 위, 아래 그림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며 몸통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장중 거래범위 중간에 위치하는 형태를 가진 패턴으로,

이패턴은 상승과 하락이 불확실할 경우 즉,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이 팽팽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패턴이다.



12. 망치형(Ha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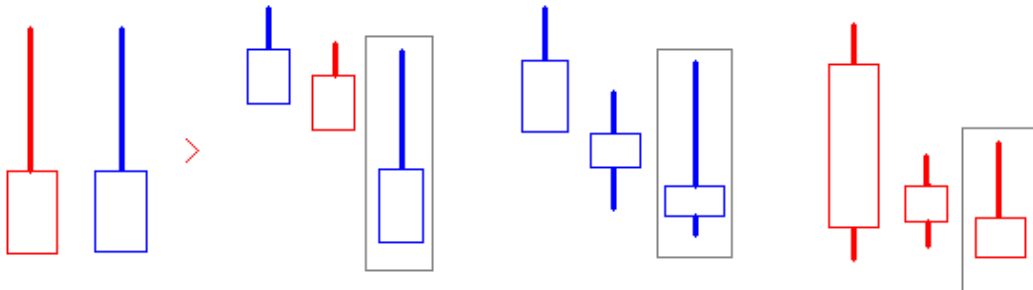
몸통의 윗그림자가 거의 없고, 몸통아래 그림자가 몸통에 비해 매우 긴 형태를 가진 패턴으로 하락장에서 발생한 이 패턴은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이 거의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향후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있고 하락장에서 바닥권에 이 패턴이 발생하였다면 매수해야 하며 모양이 같은 교수형(Hanging Man) 패턴과는 추세에 따라 반대로 작용한다.



13. 역전된 망치형(Inverted Ha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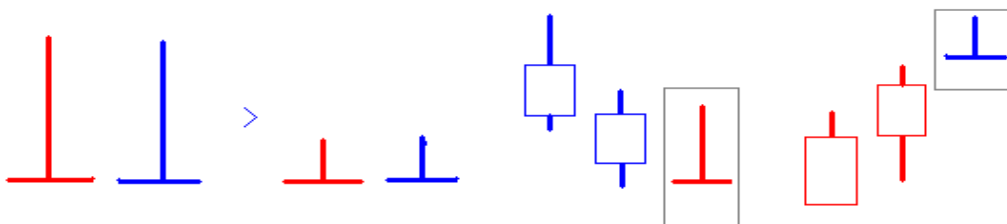
몸통의 아래쪽 그림자가 거의없고, 몸통의 위쪽 그림자가 몸통에 비해 매우 긴 형태를 가진 패턴으로 일봉의 색깔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하락장세 도중에 이 패턴의 출현은 상승반전 신호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형태와 같은 유성형(Shooting Star)과 구분되어 지는 점은 하락추세에서 이 형태는 상승반전 작용을, 상승추세에서 이 형태는 하락반전 신호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14. 비석 십자형(Complete Gravestone Doji)

종가와 시가,저가가 모두 일치하고 윗그림자가 긴 형태를 가진 패턴으로 시가이후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종가가 장중저가인 시가와 일치하거나 또는 근접해서 마감할 경우 생기는 패턴으로, 상승추세의 고점에서 발생했을 경우 하락전환 가능성이 높으며 윗그림자가 길수록 신뢰성이 높으며 횡보국면이나 하락추세이후 발생했다면 상승반전 신호로 작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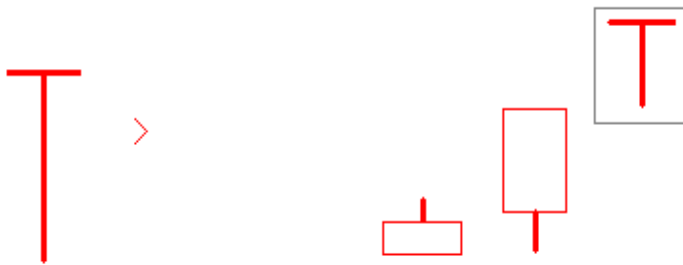
15. 점 십자형(Four Price Doji)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가격이 모두 일치할때 발생하는 십자형(Doji) 형태의 패턴으로 유동성이 매우 적은 경우로서 종가이외에는 어떤시세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상한가, 하한가로 거래가 형성된 경우나 거래가 일체 형성되지 않은 경우로 향후 주가 방향을 전혀 예측할수 없게 작용하는 패턴이다.



16. T 자형(Complete Dragonfly Do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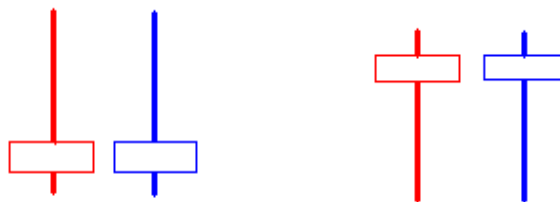
십자형(Doji)형태중의 하나로,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가 일치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패턴으로, 일반적으로 주가전환시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형태이며 하락추세의 막바지에 발생하면 상승 반전형 패턴으로 작용하며, 상승중에 있을경우 계속 상승 작용을 하게 된다.



17. 샷별형(Star)

몸통의 길이가 매우 작고 또한 위, 아래 그림자 중의 하나가 몸통의 길이와 비슷한 경우의 패턴으로 종종 전날의 긴 몸통을 가진 봉과 함께 전환경고 신호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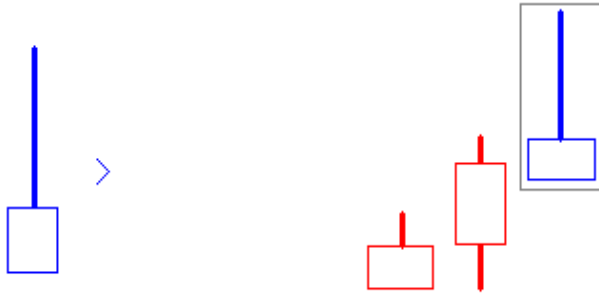
단일봉 만으로는 특별한 작용을 한다고 볼수없는 형태이지만 상승 또는 하락 반전 패턴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패턴으로 작용한다.



18. 유성형(Shooting Star)

몸통의 아래쪽 그림자가 없고 몸통의 위쪽그림자가 몸통에 비해 매우 긴 형태를 가진 패턴으로 봉의 색깔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상승장세 도중 이 패턴의 출현은 하락반전 신호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형태와 같은 역전된 망치형(Inverted Hammer)과 구분되어 지는점은 상승추세에서 이 형태는 하락반전 작용을 하락추세에서 이형태는 상승반전 신호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19. 교수형(Hanging Man)

몸통의 윗그림자가 거의 없고 몸통아래 그림자가 몸통에 비해 매우 긴 형태를 가진 패턴으로 상승장에서 발생한 패턴은 과매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이 거의 정상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향후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 상승장에서 정상권에 이패턴이 발생하면 매도해야 하며, 모양이 같은 망치형(Hammer) 패턴과는 추세에 따라 반대작용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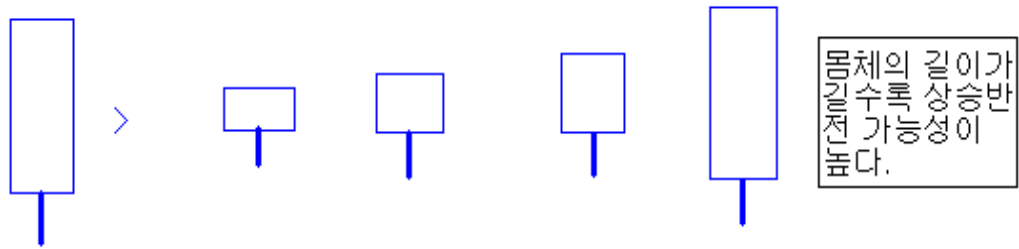


20. 강세 전환형(Bullish Belt Hold)

시가와 고가가 일치하며 장중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윗꼭지 음봉(Opening Black Marubozu)형태를 가지는 패턴으로

하락추세에서 나타난 이패턴은 상승 반전작용을 하게 되며, 몸통의 길이가 길수록 상승반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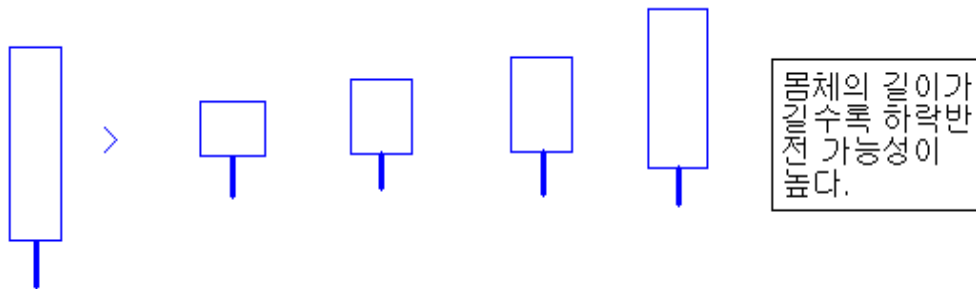
긴 하락추세 도중 바닥권에서 이 패턴이 발생했다면 매수를 고려해야 하며 반면, 다음날 종가가 양봉아래에서 형성된다면 새로운 매도세력의 출현으로 하락추세가 다시 지속된다고 볼수있다.



21. 약세 전환형(Bearish Belt Hold)

시가와 고가가 일치하며 장중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윗꼬리 음봉(Opening Black Marubozu)형태를 가지는 패턴으로 상승추세에서 나타난 이패턴은 하락 반전 작용을 하게 되며 몸통의 길이가 길수록 하락반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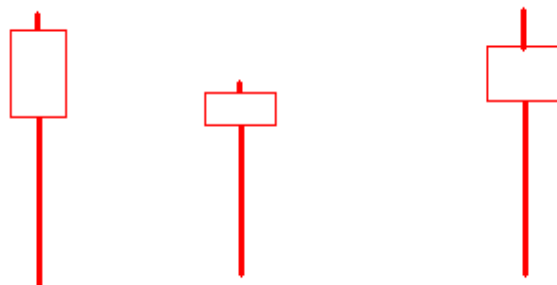
긴 상승추세 도중 정상권에서 이패턴이 발생 했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하며 반면 다음날 종가가 음봉위에서 형성된다면 상승추세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수 있다.



22. 우산형(Paper Umbrella)

몸통의 윗그림자가 거의 없고 몸통에 비해 매우 긴 형태를 가진 패턴으로 망치형(Hammer)과 교수형(Hanging Man)패턴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교수형(Hanging Man)은 상승추세 형성되어 향후 주가의 하락반전을 암시하며 망치형(Hammer)은 하락추세 도중에 형성되어 향후 주가의 상승반전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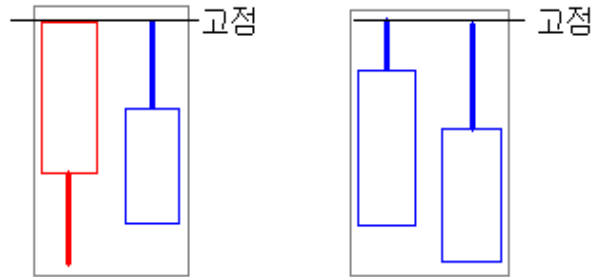
이러한 망치형과 교수형 패턴으로서 볼수 있으려면 명확한 추세의 형성아래 이와같이 패턴이 형성되었다면, 향후 추세반전을 예상할수 있겠다.



17-2 캔들차트 보는요령(2개의 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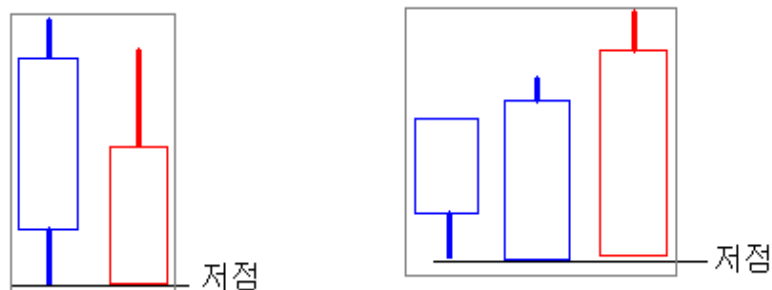
1. 하락 집게형(Tweezers Top)

이 패턴은 두개 이상의 봉이 고가를 더이상 갱신하지 못하고 고점을 일치하는 형태를 띠는 패턴으로 일치하는 고점이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하며, 상승추세에서 이 패턴은 향후 추가하락을 예고해 주며 이에 대한 기타 보조지표들이 하락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상승 집게형(Tweezers Bot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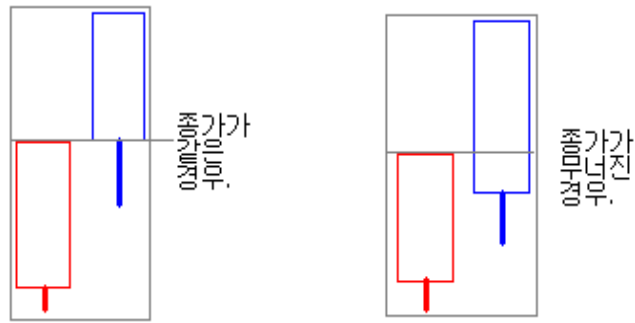
이 패턴은 두개 이상의 봉들이 저가를 더이상 갱신하지 못하고 저점을 일치하는 형태를 띠는 패턴으로 일치하는 저점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며 하락추세에서 이 패턴은 향후 추가상승을 예고해 주며 이에 대한 확인은 기타 보조지표들이 상승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3. 하락 반전형(Bearish Counterattack Line)

하락 반전형 패턴으로 서로 상반된 색깔을 갖는 봉의 종가가 같은 경우로서 첫번째 봉은 음봉이고 두번째 봉은 양봉이며 각각의 봉은 긴 몸통을 가지는 형태의 패턴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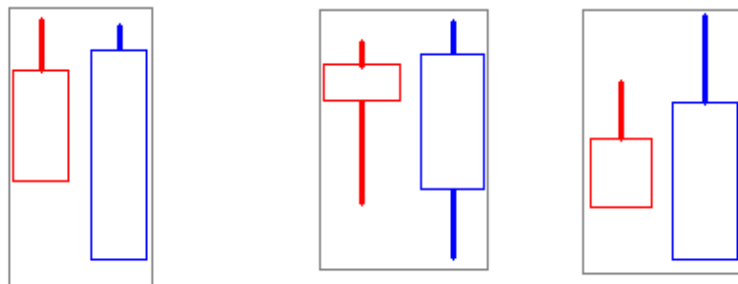
상승추세에서 발생한 이 패턴은 향후 하락반전 작용을 하게되며, 다음날 추가 하락으로 직전종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새로운 종가가 형성되면 하락반전 가능성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며 이패턴과 같이 하락반전 작용을 암시하는 먹구름형(Dark-cloud Cover)패턴 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4. 하락 장악형(Bearish Engulf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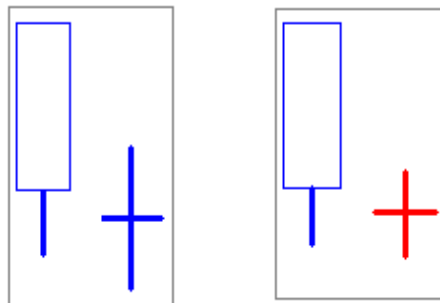
하락장악형 패턴으로 최종일봉의 몸통이 전날 몸통을 감싸는 형태를 취하며 형성된 패턴으로 서로 상반된 색깔을 갖는 봉으로 구성된다.

상승추세중 발생한 이 패턴은 향후 하락전환 작용을 예상할 수 있으며, 상승추세의 정상권에서 이 패턴이 발생 했다면 매도에 임해야 하며, 다만 명확한 추세확인 과 보조지표의 하락확인이 전제 되어야만 바람직하다.



5. 상승 십자별형(Bullish Doji Star)

전날의 강한 음봉 이후 하락갭을 발생하며 십자형(Doji)이 형성된 패턴으로 향후 상승 전환 패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임을 암시하고 있고 이 패턴 만으로 상승전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다음날 강한 양봉이 발생하며 샷별 형(Moring Star)패턴이 완성된 다음 상승전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게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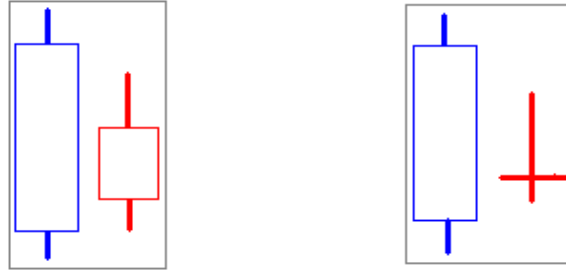


6. 하락 잉태형(Harami Cross in Downtrend)

잉태형으로서 전날봉이 최근일 봉을 감싸는 형태의 패턴으로

이 패턴은 하락추세에 따라 상승 반전작용을 할수 있다는 점을 내포 하고 있으며

하락추세라면 전날의 봉이 음봉이어야 향후 추세전환을 예상해 볼수 있으며 최근일 봉의 몸통과 그림자가 작을수록 반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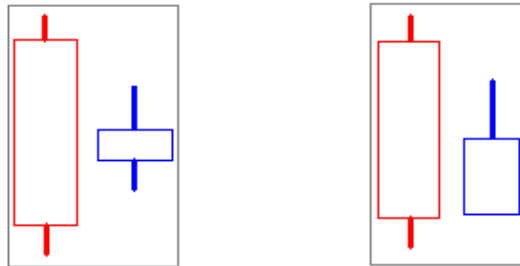


7. 상승 잉태형(Harami Cross Up Trend)

잉태형으로서 전날봉이 최근일 봉을 감싸는 형태의 패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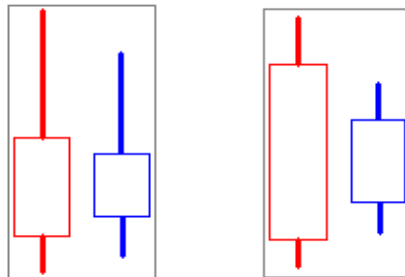
이 패턴은 상승추세에 따라 하락 반전작용을 할수 있다는 점을 내포 하고 있으며

상승추세라면 전날의 봉이 양봉이어야 향후 추세전환을 예상해 볼수있으며 최근일 봉의 몸통과 그림자가 작을수록 반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8. 잉태형 상승추세(Harami in Up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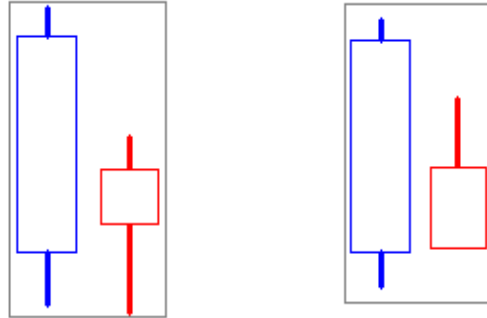
잉태형은 전날봉의 몸통이 최근일 봉의 몸통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상승추세에서의 이 패턴의 발생은 더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세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락반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최종일 봉의 고가와 저가가 전날봉의 몸통 안에서 완전히 포함 된다면 주가 하락반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최근일 봉의 몸통과 그림자가 작을수록 하락반전 가능성의 신뢰도는 더욱 높다.



9. 잉태형 하락추세(Harami in Downtrend)

전날봉의 몸통이 최근일 봉의 몸통을 감싸고 있는 상태로, 하락추세에서 이 패턴의 발생은 더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세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승반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일 봉의 고가와 저가가 전날 봉의 몸통 안에서 완전히 포함된다면 주가의 상승반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최근일 봉의 몸통과 그림자가 작을수록 상승반전 가능성의 신뢰성은 더욱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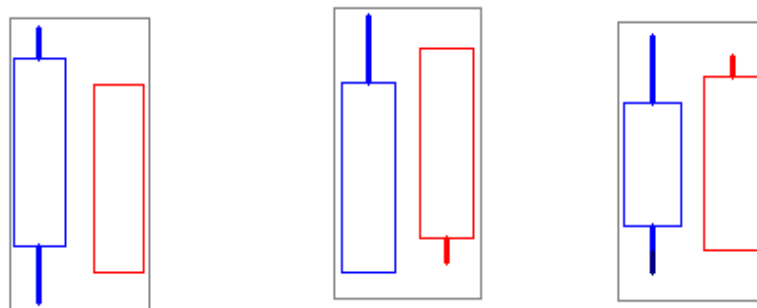


10. 관통형(Piercing Line)

하락추세에서 나타난 관통형 패턴으로 최근 일봉은 긴양봉이며, 전날봉의 긴음봉 형태를 띠며

최근일 봉의 시가가 전날봉의 저가 위에서 형성되고 종가는 전날고가를 상향하지 않고 근접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형태를 띤 패턴으로 중요한 상승반전 신호로 작용하며 최종일 봉의 종가가 전날봉의 고가에 많이 접근할수록 상승반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매수에 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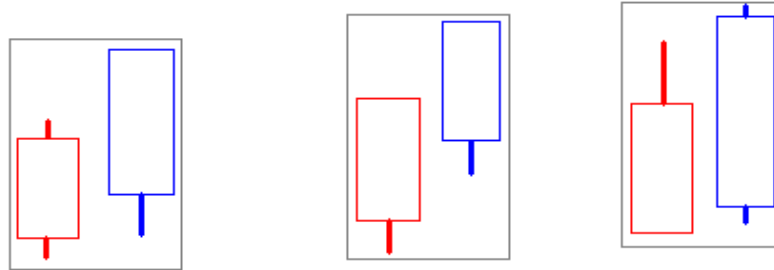
다만 종가가 전날캔들 몸통의 50%이상을 상향하지 못하고 이패턴이 완성되었다면 매수를 유보하는것이 바람직하다.



11. 먹구름형(Dark-Cloud Cover)

먹구름형 패턴으로 최종일의 봉은 긴몸통을 가진 음봉이며, 전날봉은 긴몸통의 양봉으로서 최종일 일봉의 시가는 전날 일봉의 고가 위에서 형성되며 종가는 전날 일봉의 저가 근처에서 형성되는 패턴이며 이때 저가에 접근하면 할수록 하락반전 가능성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며

상승추세 정상권에서 이패턴의 발생은 중요한 하락반전 신호로 매도에 임해야 하며 이때 최종일의 종가가 전날 일봉몸통의 50% 이상을 하향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불완전 관통형(Uncomplete Piercing Line)

관통형 패턴으로 최종일 일봉은 긴 양봉이고 전일의 일봉은 긴 음봉으로 전날음봉의 저가 아래에서 최종일봉의 시가가 형성되고 종가는 전날의 고가를 상향하지 않고 근접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형태를 띤 패턴으로

이때 최종일 일봉의 종가가 전날 일봉의 고가에 많이 근접하면 할수록 상승반전 가능성은 높아지며 하락추세의 바닥권에서 이 패턴이 발생했다면 중요한 상승 반전의 신호로 매수를 고려해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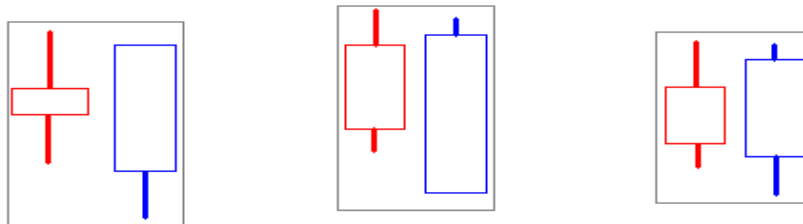
최종일 종가가 전날 일봉의 몸통을 50%이상 상향하지 못하였다면 매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불완전 장악형(Uncomplete Engulfing)

서로 상반된 색깔로 같은 2개의 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일 일봉의 몸통이 전날 일봉을 감싸는 형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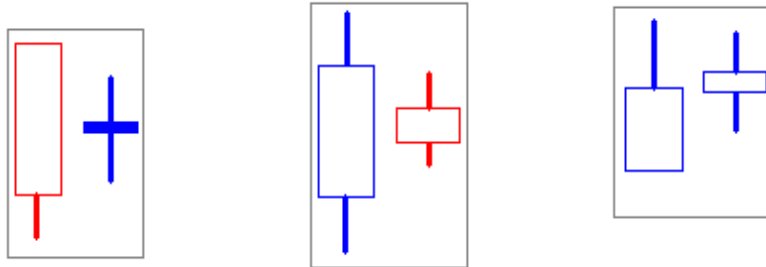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패턴으로 향후 장세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 패턴의 해석은 비록 추세가 단기간에 형성 되었다 하더라도 상승추세와 하락추세가 명확하게 설정된다는 점과 상승추세라면 양봉과 음봉 순이고 하락추세라면 음봉과 양봉순으로 패턴이 형성되어야 추세반전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4. 불완전 잉태형(Uncomplete Harami)

잉태형 패턴의 일종으로 최종일의 일봉이 십자형(Doji) 형태를 취하고 있고 다음날 일봉은 최종일 일봉을 감싸는 형태로 추세판단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이패턴의 하락 또는 상승 추세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반전 작용을 할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패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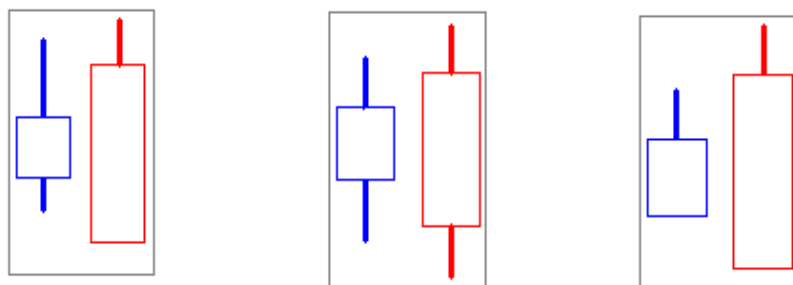
상승추세에서 발생했다면 양봉후 십자형(Doji)이 하락추세에서 발생했다면 음봉후 도지가 형성되어야 반전패턴으로 볼수 있으며 잉태형(Harami)보다는 신뢰성이 높은 패턴이다.



15. 상승 장악형(Bullish Engulfing)

상승장악형 패턴으로 서로 다른 색깔을 갖는 일봉으로 최종일의 일봉은 양봉이고 전날의 일봉은 음봉으로 최종일의 일봉 몸통이 전날일봉의 몸통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하락추세 지속 이후 이 패턴의 출현은 향후 상승전환을 예상해 볼수 있으며 보조지표의 하락과 더불어 이 패턴이 발생 했다면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수 있으며, 이 패턴은 상승전환 작용을 하게되며 명확한 하락추세 이후 발생했다면 매수에 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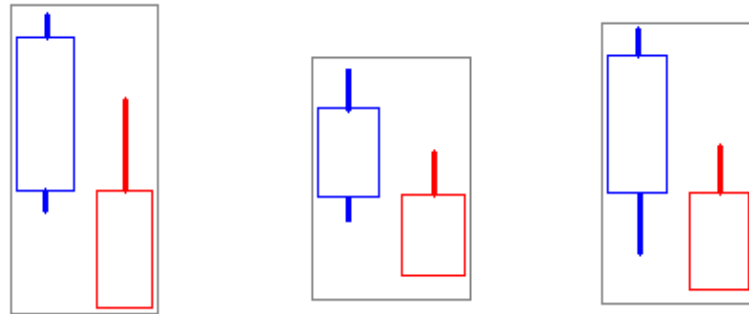


16. 상승 반전형(Bullish Counterattack Line)

상승 반전형 패턴으로 서로 상반된 색깔을 갖는 일봉의 종가가 같은 경우로서 최종일 일봉은 양봉이고 전날 일봉은 음봉이며 각각의 일봉은 긴 몸통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패턴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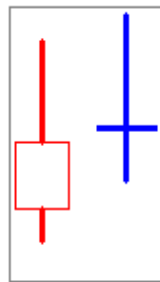
하락추세에서 발생한 이 패턴은 향후 상승반전 작용을 하게되며 다음날 주가 상승으로 직전종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종가가 형성되면, 상승반전 가능성의 신

외도는 더욱 높아지며 이패턴과 같이 상승반전 작용을 암시하는 관통형(Piering Line) 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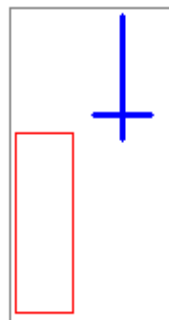
17. 불완전 십자별형(Uncomplete Doji Star)

몸통을 가진 전날의 일봉과 상승또는 하락 갭을 가지면서 다음날 십자형(Doji)이 형성된 패턴으로 추세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 패턴은 향후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 정도로 해석 할수 있으며, 추세 반전에 대한 확신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추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더불어 다음날 셋별형, 또는 석별형 패턴(3개의 봉으로 해석쪽 참조)으로 완성된 다음에야 추세전환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인식할수 있다.



18. 하락 십자별형

전날의 강한 양봉 이후 상승갭을 발생하며 십자형이 형성된 패턴으로 향후 하락전환 패턴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임을 암시하고 있고, 이 패턴만으로 하락전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다음날 약한 음봉이 발생하며 석별형(3개의 봉으로 해석쪽 참고) 패턴이 완성된 다음 하락전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게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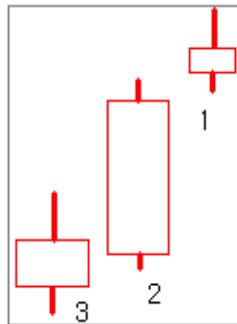


17-3 캔들차트 보는요령(3개의 봉으로)

1. 스톨드 패턴(Stalled Pattern)

적삼병 패턴의 변형으로서 세번째와 두번째 고가가 신고가를 만들며, 첫번째 양봉의 몸통이 전날들의 몸통에 비해 작으며 때론 스타(Star)형을 만들면서 형성되는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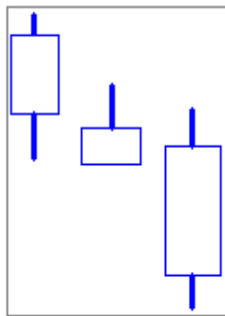
지금까지 상승추세가 지속된다는 모양을 나타내는 패턴으로 첫번째 일봉이 상승갭을 발생시키면서 형성 되었다면 이제까지 상승추세가 계속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은 판단은 향후 이브닝스타 패턴이 완성되고, 하락추세가 이어지고서야 확인할 수가 있다.



2. 흑삼병(Three Black Crows)

흑삼병 패턴으로 3개의 음봉이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형성된 패턴으로 각 일봉의 시가는 직전음봉 몸통내에서 형성되며 각 음봉은 저가에 근접하여 종가를 형성하는 형태의 패턴으로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시장상황을 보여주는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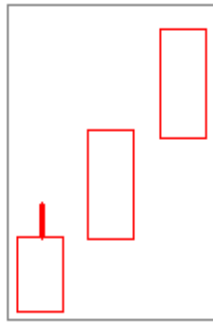
각 음봉의 그림자가 거의 없을수록 시장이 강하게 하락세로 반전 되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 패턴은 하락 지속형으로 작용하는 패턴이다.



3. 적삼병(Three White Soldiers)

적삼병 패턴으로 3개의 양봉의 종가가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형성되는 이 패턴은 하락추세 이후 저가권에서 발생하였다면 향후 추세상승을 예고해 주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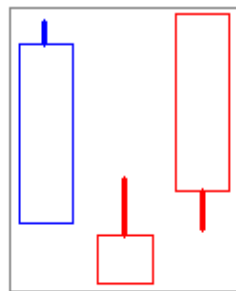
그림자가 거의 없을수록 시장이 강하게 상승세로 반전 되었음을 보여주는 패턴으로서 지속형 패턴으로 작용하게 된다.



4. 셋별형(Moring 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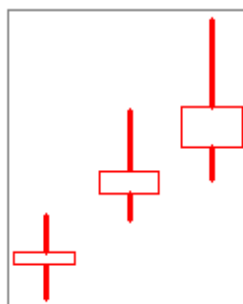
셋별형 패턴으로 하락추세중 전전날의 일봉은 긴 몸통을 가진 음봉 형성후 전날 작은 몸통을 가진 스타(Star)가 출현함으로써 매도세력이 더 이상 낮은가격으로 매도를 원치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로, 이후 긴 몸통을 가진 양봉이 출현함으로써 완성된 이 패턴은 시장 상승세로 전환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긴 하락추세 이후 바닥권에서 이 패턴이 발생하였다면 적극 매수에 가담해야 하며 신뢰성이 매우 높고 아주 중요한 상승 반전 작용을 하는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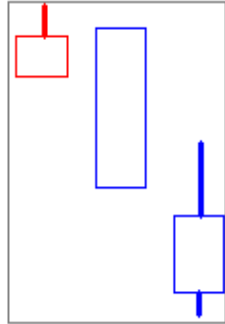
5. 트라이얼 스타(Trial Star)

3개의 십자형(Doji)으로 구성되어 나타나는 이 패턴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로 3개의 일봉이 반드시 십자형(Doji)의 형태가 아닐수도 있고, 때론 스타(Star)형 일봉으로 구성되어 이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승추세나 하락추세의 막바지에 고점이나 저점을 나타내면서, 이 패턴이 발생하였다면 중요한 반전신호를 갖는 패턴으로 작용한다.



6. 쓰리아웃사이드 다운(Three Outside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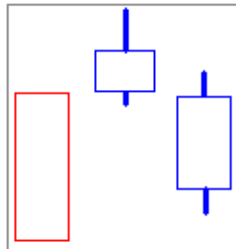
장악형(Engulfing)패턴과 최종일에 발생한 일봉의 증가가 전날의 증가와 전전날의 시가보다 낮게 마감하여 형성된 이 패턴은 향후 추세의 하락반전을 예상할 수 있으며, 긴 상승추세 이후 정상권에서 이 패턴이 발생했다면 하락반전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수있다. 이 패턴은 악세 장악형 패턴을 확인하는 작용을 한다.



7. 석별형(Evening 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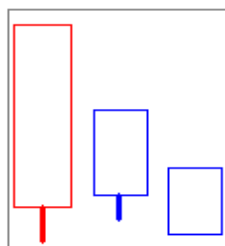
저녁별 패턴으로 상승 추세중 전전날의 일봉은 긴 몸통을 가진 양봉 출현후 전날 작은 몸통을 가진 스타(Star)가 출현함으로써 매수 세력이 더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 경우로, 이후 긴 몸통을 가진 음봉이 출현함으로써 완성된 이 패턴은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긴 상승 추세 이후 정상권에서 이 패턴이 발생하였다면 적극 매도에 가담해야 하며, 신뢰성이 매우 높고 아주 중요한 하락반전 작용을 하는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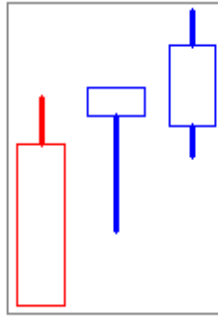
8. 쓰리인사이드 다운(Three Inside Down)

잉태형 패턴을 확인시켜 주는 형태로 전날에 완성된 잉태형 패턴과 최종일 일봉의 증가가 전날의 증가보다 낮게 마감하면서 형성된 이 패턴은, 향후 추세의 하락반전 작용을 예상해 볼수 있으며 상승추세 이후 이 패턴의 발생은 향후 하락 전환 작용을 하게되며 잉태형 패턴보다 하락반전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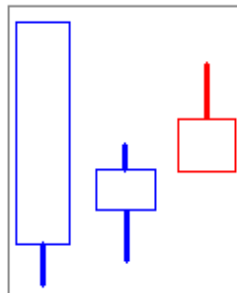
9. 까마귀형(Upside Gup Two Crows in Uptrend)

까마귀형 패턴으로 상승추세가 지속되는 도중 강한 양봉 발생과 이후 일정한 갭을 발생하며 두개의 음봉을 형성하면서 완성되어지는 이 패턴은 최종일 일봉의 몸통이 전날의 몸통을 감싸는 형태로 향후 추가하락을 예고해 주는 하락반전형 패턴에 속하지만, 이 패턴의 전후 주가의 움직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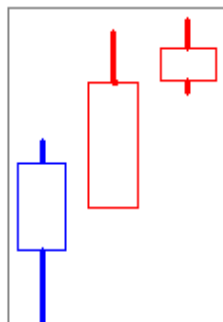
10. 까마귀형(하락추세)

까마귀형 패턴으로 하락추세가 계속되다가 2개의 음봉이 발생한 다음 이후 일정한 상승갭을 발생하며 강한 양봉을 형성하면서 완성되어 지는 이 패턴은, 전전날의 몸통이 전날의 몸통을 감싸는 형태로 향후 추가 상승을 예고해 주는 상승반전형 패턴에 속하지만, 이 패턴 전후 주가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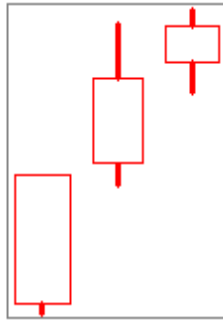
11. 쓰리 아웃사이드 업(Three Out Side Up)

최종일의 종가가 전날의 종가와 전전날 시가보다 높게 마감하면서 형성된 이 패턴은 향후 추세의 상승 반전을 예상할 수 있으며 긴 하락추세 이후 바닥권에서 이 패턴이 발생했다면 상승 전환에 대한 패턴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수 있다.



12. 어드밴스 블록(Advance Block)

적삼병 패턴의 변형으로 상승추세에서 형성되며 이 패턴은 각각의 일봉의 몸통이 점점 작아지면서 상승세력이 약해짐을 보여주는 패턴으로 상승장세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충분히 있거나 매우 초조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패턴으로, 특히 시장이 과열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데 점점 매수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익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17-4 캔들스틱의 활용법

★ 캔들스틱의 활용법 (Candlesticks Method) ★

1. 개요

캔들스틱은 16세기부터 일본에서 사용하던 분석방법으로 그 모양이 양초와 비슷하다 하여 캔들스틱이라 부른다.

이 캔들스틱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구성되며 시가와 종가를 비교하여 봉의 색깔을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캔들스틱 차트는 수요와 공급의 명확한 크기를 보여주며 대개의 경우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 상승과 하락예측에 있어 다른 차트보다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해석

캔들차트는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강세패턴과 약세패턴, 중립패턴으로 나눈다.

★★★ 강세패턴 ★★★

1) 장대봉 (Long Body White Marubozu)

이것은 강세패턴으로 시가가 저가에서 시작하여 종가는 고가에서 끝나는 형태로 강세신호이다.

2) 망치형 (Hammer)

주가가 상당기간 하락후 바닥국면에서 나타나면 강세전환 신호로 인식한다. 통상 몸통은 그림자에 비해 아주 작고 그림자가 몸통의 2배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3) 강세 장악형 (Bullish Engulfing)

이 패턴은 하락장세에서 나타나 상승으로 전환을 암시하며, 둘째날의 긴양선이 첫째날의 작은 음선을 감싼 형태이다.

4) 관통형 (Piercing Line)

이 패턴은 하락장세에서 나타나 상승으로 전환되는 패턴으로 첫째날 긴음선 형성후 둘째날 시가가 첫째날의 종가보다 낮게 시작하여 종가는 첫째날 음선의 50% 이상 올라서 마감하는 형태이다.

5) 잉태형 (Harami / 하락추세)

장악형(Engulfing) 패턴과 반대 모양으로 첫째날의 긴음선에 둘째날의 양선을 감싸 안기는 형태로 하락추세후 이 형태가 출현하면 매도세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6) 잉태형 (Harami Cross /하락추세)

위의 잉태형과 비슷한 형태인데 둘째날의 십자형(Doji)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잉태형 보다 추세반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본다.

7) 역전된 망치형 (Inverted Hammer)

망치가 거꾸로 된 모양을 말하는데 하락장세에서 나타나면 반전신호로 해석한다. 이때 그림자의 길이는 몸통 길이의 2배이상이 보통이다.

8) 십자별형 (Doji Star)

전날의 긴 음선이후 다음날 힘의 균형이 팽팽한 십자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추세가 조만간에 변화 될 것이라는 신호로 주가는 조만간에 상승 전환할 것으로 분석한다.

9) 새벽별형 (Morning Star)

하락추세의 마지막에 나타나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를 나타내는데 첫째날의 강한 매도세력이 둘째날 점차 줄어들고 셋째날 강한 매수세력이 등장하여 상승추세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10) 상승 집게형 (Tweezers Bottom)

두개 이상의 일봉차트가 더 이상의 저가를 만들지 못하고 저점을 일치시킬때를 나타내는 형태로, 여러 일봉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나 저점을 일치시키는 일봉들이 많을수록 반전 확률은 더욱 더 높다.

11) 잠자리 십자형 (Dragonfly Doji)

시가와 고가, 종가가 일치하는 형태의 차트로 주로 주가 전환시점에서 나타난다. 주로 하락국면의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나 급속한 상승 전환 패턴으로 작용한다.

★★★ 약세패턴 ★★★

1) 장대봉 (Long Body Black Marubozu)

이것은 약세패턴으로 시가가 고가 부근에서 시작되어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나는 형태로 약세 전환신호로 인식한다.

2) 교수형 (Hanging Man)

주가가 상당기간 상승한 후 과매수 상태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주가가 상투권에 있음을 암시하며 조만간에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그림자는 보통 몸통의 2-3배 정도 길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약세 장악형 (Bearish engulfing)

이 형태는 상승추세의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나는데 첫째날의 강한 상승추세를 둘째날 긴음선으로 감싸므로 인해 추세를 하락 반전 시키는 형태이다.

4) 먹구름형 (Dark Cloud Cover)

상승추세에서 형성되는 패턴으로 매수 세력이 전날에 비해 상당히 약화 되었음을 의미하며 첫날의 긴 양선 이후 둘째날 시가는 첫째날 고점 위에서 시작하여 종가가 첫째날 몸통의 50% 아래에서 마감되는 형태로 하락전환 신호이다.

5) 잉태형 (Harami / 상승추세)

상승추세 잉태형은 강한 매도세력에 의해서 매수세력이 약화됨을 의미하며 첫째날 긴 양선에 둘째날 몸통에 안기는 형태로 상승추세 이후 이 형태가 출현하면 하락 반전될 확률이 높다.

6) 잉태형 (Harami Cross / 상승추세)

상승추세 잉태형과 비슷한 형태로 둘째날 스타가 십자형으로 변하여 잉태형 상승추세 보다 강력한 반전신호로 일정기간 상승후 이 패턴의 출현은 하락전환 신호로 본다.

7) 유성형 (Shooting Star)

이 패턴은 상승추세의 마지막 패턴으로 시가가 갭을 형성하며 시작한 후 긴 그림자와 함께 고점 형성후 강하게 되밀려 시가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경우로 상승추세 말기에 나타나 강력한 하락 전환 역할을 한다.

8) 십자별형 (Doji Star)

전날의 긴 양선 이후 다음날 십자형이 형성되며 조만간 추세전환을 예고하게 되는데 하락전환 신호로 인식한다.

9) 석별형 (Evening Star)

상승추세의 마지막국면에 나타나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를 나타내는데 첫째날의 긴 양선 후 둘째날 스타가 형성되어 매수세의 감소를 나타내며 셋째날 긴음선을 보이며 강한 매도세력의 등장을 암시한다. 강력한 매도신호이다.

10) 하락 집게형 (Tweezer Top)

두개 이상의 일봉이 더 이상 고가를 만들지 못하고 고점을 일치시킬때 나타나는 형태로 이 경우도 상승 집게형 형태와 마찬가지로 여러 일봉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고점을 일치 시킬수록 더욱 반전의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11) 비석 십자형 (Gravestone Doji)

이 형태는 시초가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종가가 저가인 시가와 일치하거나 또는 근접할 경우에 생기는 형태로 하락 전환 신호인데 윗그림자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약세이다.

18. 차트의 기본패턴분석(3) (사깨다 전법)

사깨다 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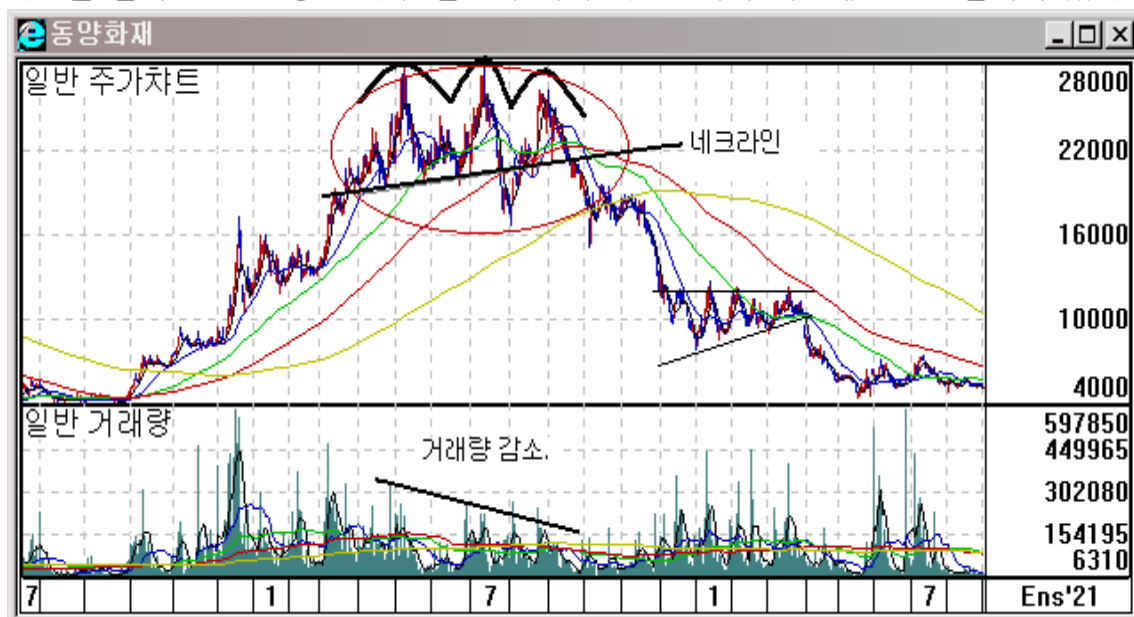
사깨다 전법은 3산, 3천, 3공, 3병, 3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3산형

3산형은 대표적인 반전 패턴으로서 지속적인 주가상승 이후 사고자 하는 매수세력은 계속 유입되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3산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1-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기간이 오래 될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차트를 살펴보면 3산형은 자주 발견이 되며 차트분석의 기본패턴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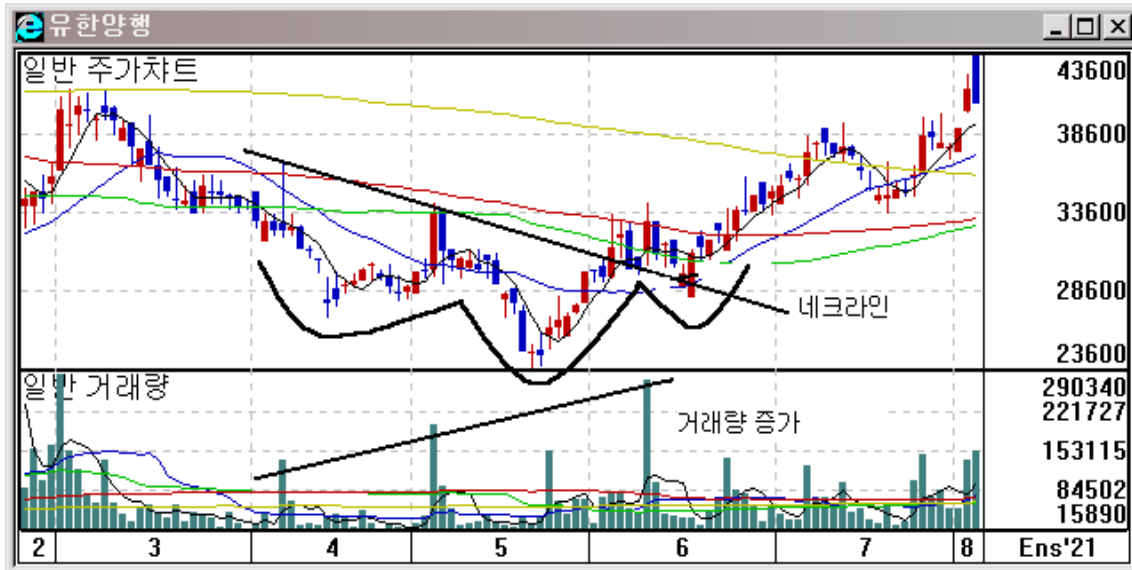
2. 3천형

3천형은 3산형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하향추세에서 상승추세로 전환할때 종종 발생한다.

3천형은 세개의 바닥을 형성하는데 역 헤드 앤 쇼울더형과 같이 바닥이 가장 낮은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거래량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모양이 일반적이다.

3천형은 주가가 수개월 이상 하락한후 나타나는 패턴으로 이 패턴에서는 저항선인 네크라인을 상향 돌파할때 매수시점이 된다.



3. 3공형

3공은 미국식 차트에서 말하는 갭(Gap)을 의미한다.

3공은 주가가 하루 사이에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함 으로서 오늘의 주가와 전날의 주가 사이에 빈공간이 나타나는데 이 빈공간이 3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를 3공이라 말한다.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한 후 천정권에서 발생한 3공이나 또는 일시적인 상승에서 발생한 3공의 경우에도 일단 3공이 발생하면, 주가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 또는 조정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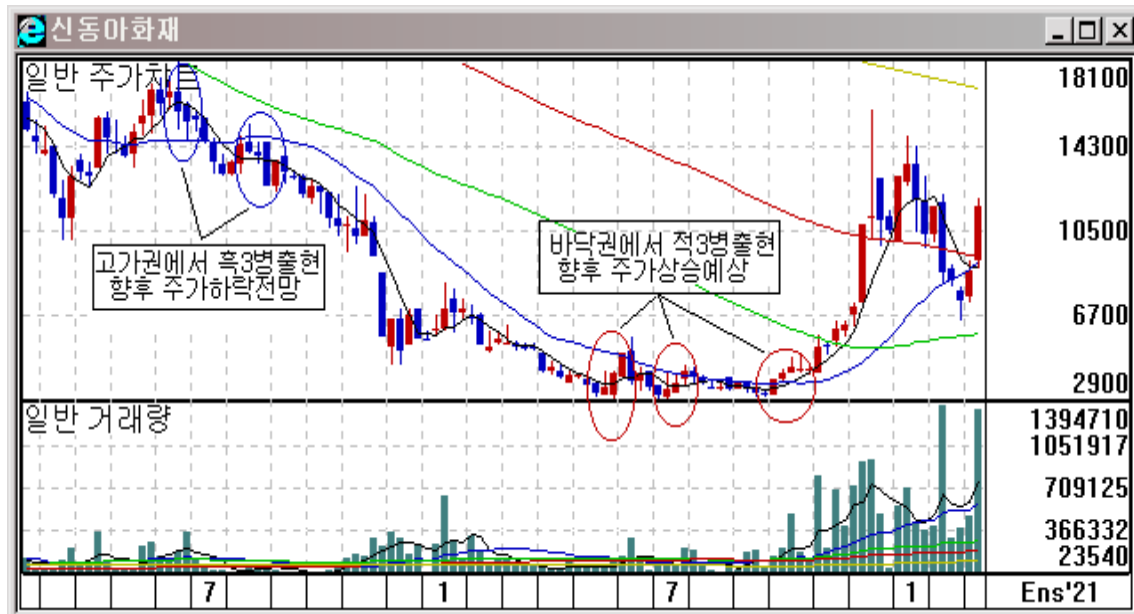


4. 3병형

3병형은 주가 흐름의 대세 반전을 암시해주는 패턴으로, 적3병과 흑3병으로 구분된다.

적3병은 주가흐름이 상승 반전되어 앞으로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고해 주며, 반대로 흑3병은 주가 흐름이 하락 반전되어 앞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고해 준다.

따라서 3병형의 출현으로 대세반전의 전환을 예상해 볼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주가 추이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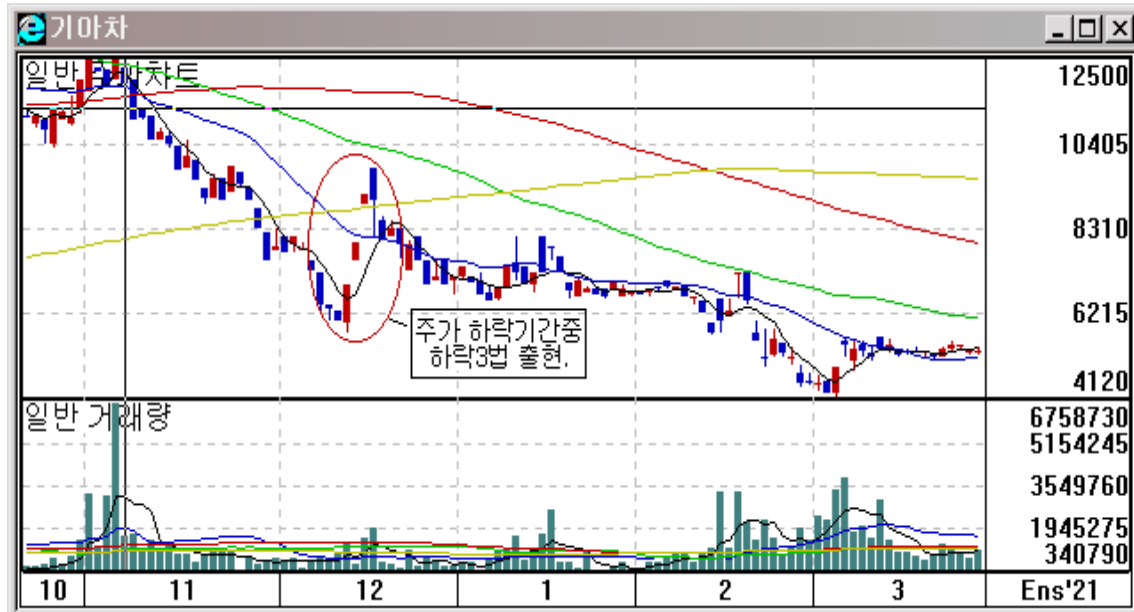


5. 3법형

상승3법형: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때 긴 양선에 이어 음선 3개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상승3법 이라고 하며 이때를 휴식시기라 한다.



하락3법형: 주가가 하락중일때 긴 음선에 이어 세개의 양선이 나란히 나타나는 것을 하락3법 이라고 하며 이때를 휴식기간 이라 한다.



19. 차트의 기본패턴분석(4) (반전형 패턴분석)

19-1 헤드 앤 쇼울더 (Head and Shoulder)패턴

헤드 앤 쇼울더 (Head and Shoulder)패턴

1. 개념

반전형 패턴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를 포함한 세개의 봉우리가 나타난다고 해서 3산형 패턴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패턴은 상승과 하락이 세번씩 반복해서 일어나며 가운데 봉우리를 머리, 왼쪽을 왼쪽어깨, 오른쪽을 오른쪽 어깨라 한다.

(1) 왼쪽어깨

일정기간 주추세선을 따라 주가의 큰폭 상승이 지속되며 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거래량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상승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장세를 낙관한 세력이 적극적인 매매를 한다. 거래량은 주가의 상승과정에서 매우 활발하고 하락과정에서 감소하는데 헤드 앤 쇼울더 전체로 볼 때에는 왼쪽어깨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편이다.

(2) 머리

두번째 상승으로 머리의 정상은 왼쪽어깨의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하락 할 때에는 왼쪽 어깨의 바닥수준까지 하락한다. 거래량은 왼쪽 어깨와 마찬가지로 상승과정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전체의 거래량은 왼쪽 어깨보다 많지않다.

(3) 오른쪽어깨

세번째 상승으로 머리의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폭의 1/2 에서 2/3 수준까지만 회복하고 다시 하향 전환 된다.

이 과정에서는 왼쪽어깨와 머리부분과 달리 상승과정에서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만일 이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더이상 헤드앤 쇼울더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넥 라인(Neck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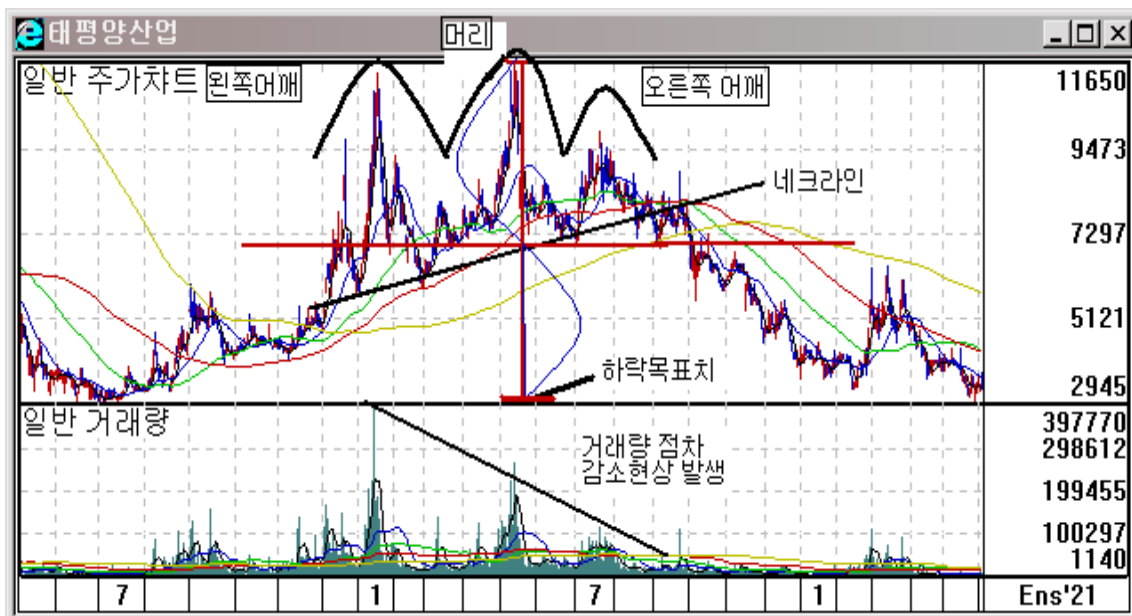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은 주가의 움직임이 넥라인을 완전히 하향 돌파한 순간부터 완성된다. 따라서 넥라인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되고 오른쪽 어깨에서 하락하기 시작한 넥라인을 하향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상승한다면, 이 패턴은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추세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하향목표치 계산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이 완성된 후에 과거의 경험법칙으로 주가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 것인가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데 이를 목표치 계산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헤드 앤 쇼울더 에서 적용되는 하락 예상 목표치는 머리와 넥라인의 하락폭 만큼의 폭으로 넥라인에서 더 하락한다고 예상해 볼수 있는데 이 목표치는 최소한의 목표치일 뿐이다.

때로는 그 이상 하락 할수가 있으며 그 이상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19-2 역 헤드 앤 쇼울더

1. 역 헤드 앤 쇼울더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 역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이다. 즉,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은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 반전할때 나타나는 패턴인 반면, 역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은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 반전할 경우에 나타나는 패턴이다.

역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은 헤드 앤 쇼울더 패턴과 그 방향만 반대 일뿐이지 모든점이 유사하다.

다만 거래량 동향에 차이가 있어 왼쪽어깨,머리,오른쪽어깨로 갈수록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또한 되돌림 현상이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의 경우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차이가 있다.

(1) 왼쪽어깨(Left Shoulder)

장기간 하락장세가 지속된후 주가의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바닥에서 반등 전환되는 경우로 거래량은 하락과정에서 현저하게 증가 하지만 반등으로 돌아서면 크게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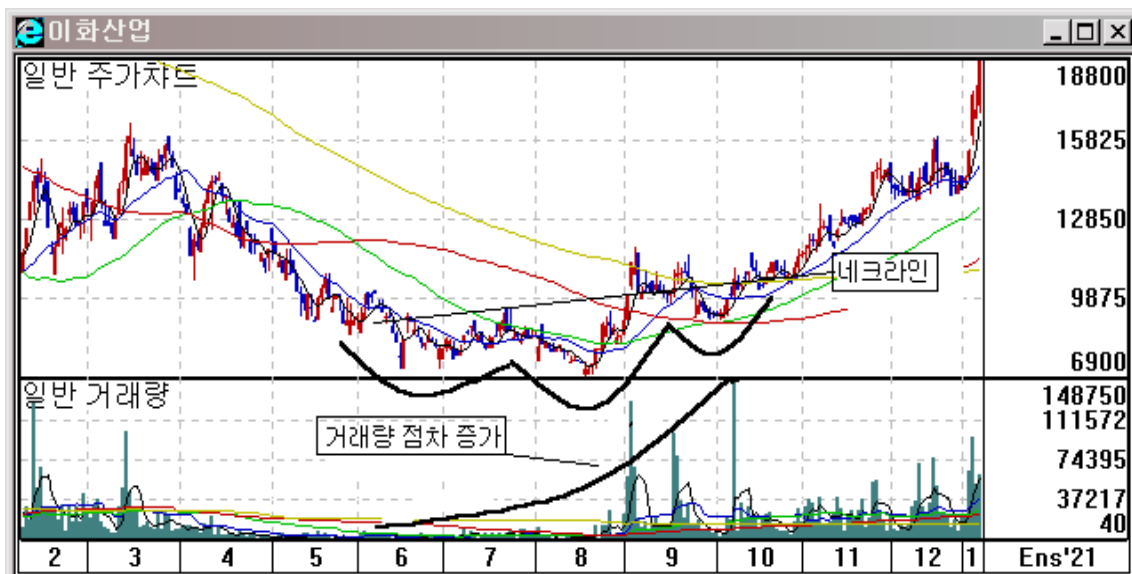
(2) 머리(Head)

두번째 하락으로 주가는 왼쪽어깨의 저정보다 더 하락하게 되지만 반등시에는 직전 고점부근까지 돌아온다. 머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왼쪽 어깨가 형성될때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3) 오른쪽 어깨(Right Shoulder)

세번째 하락으로 머리의 저점까지 하락하기 전, 도중에 상승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량은 왼쪽 어깨와 머리 과정에 비해 훨씬 더 많고 주가가 네크라인을 돌파해서 상승하고 있을때는 더욱 증가한다.

역 헤드 앤 쇼울더 에서는 헤드 앤 쇼울더 패턴에 비하여 되돌림 현상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19-3 복합 헤드 앤 쇼울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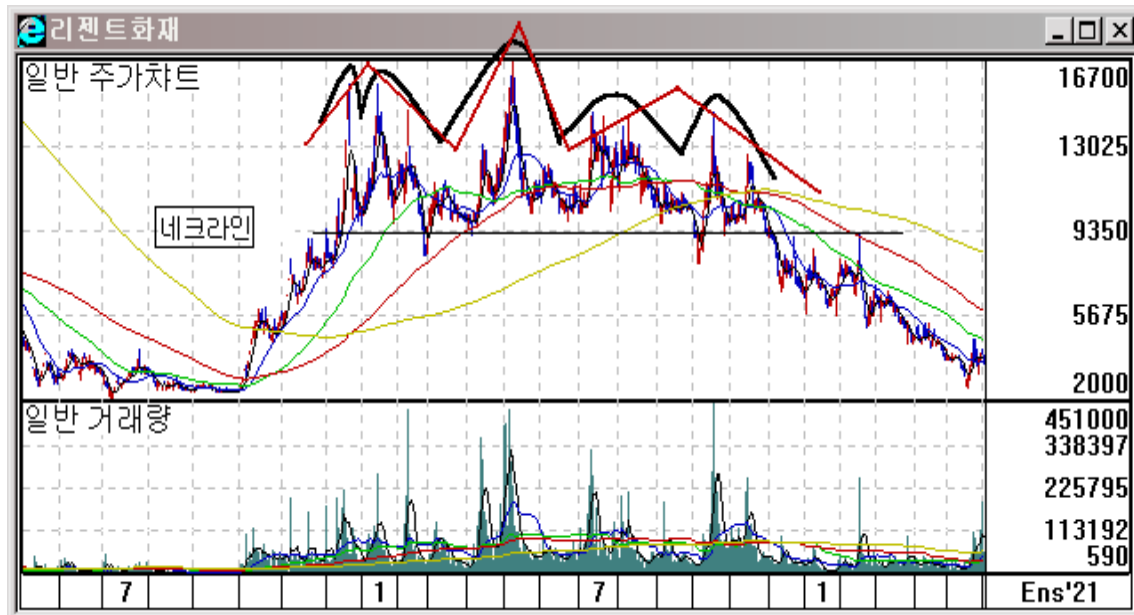
1. 복합 헤드 앤 쇼울더

실제로는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이 이론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고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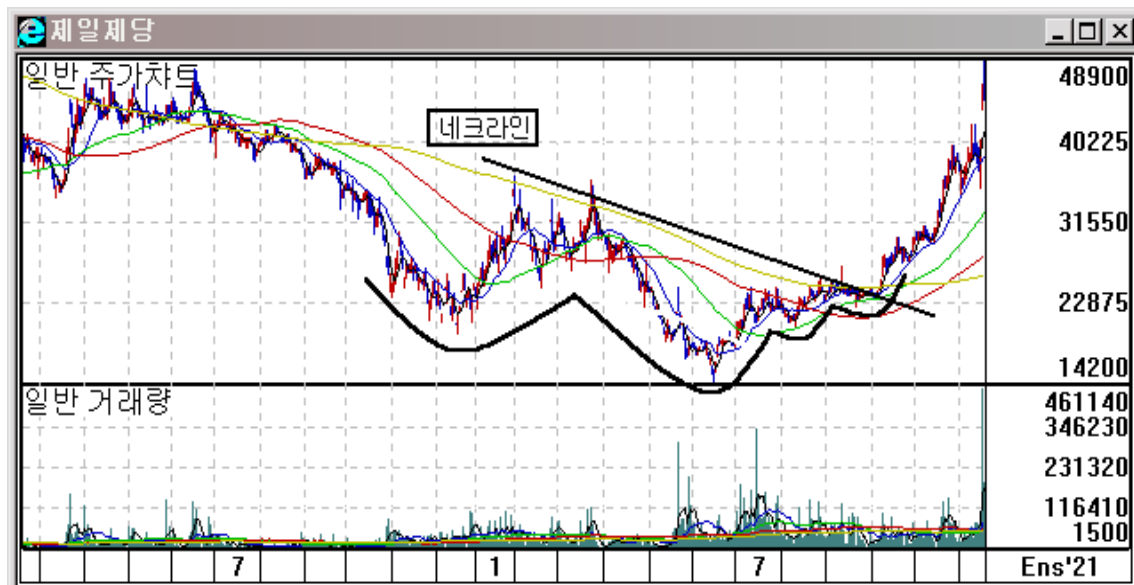
때로는 머리가 두개라든지 아니면 한쪽의 어깨가 두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변형된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이라도 그 분석은 헤드 앤 쇼울더 패턴과 동일하다.

복합 헤드 앤 쇼울더



복합 역 헤드 앤 쇼울더



19-4 이중천정형(Double Top)

이중 천정형(Double Top)

1.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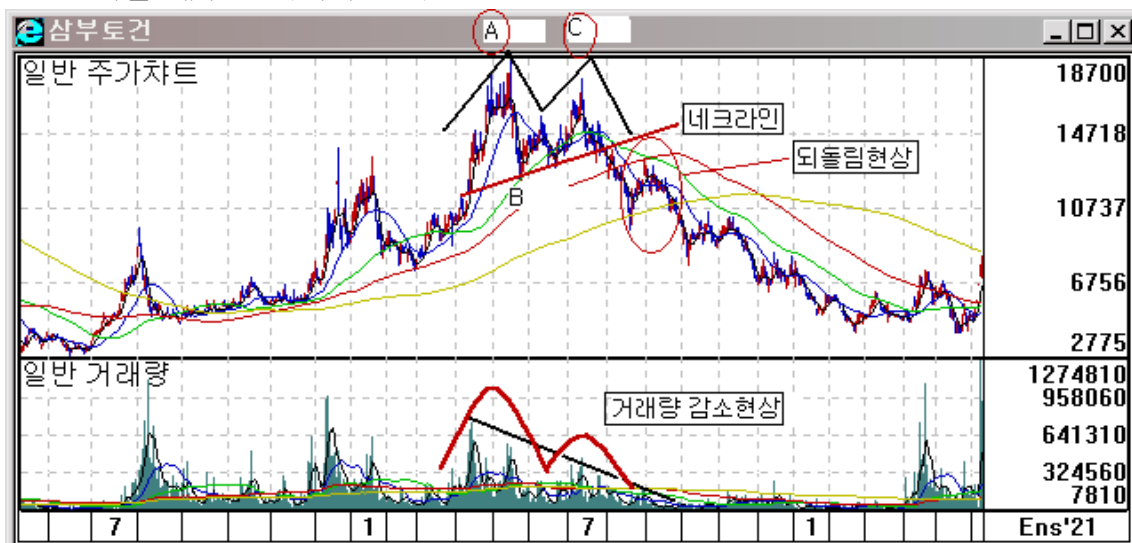
이중 천정형은 차트상에 자주 나타나고 가장 속기 쉬운 패턴 중의 하나이고 이 패턴은 주가 추세가 전환 될때 주로 나타난다.

이중 천정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봉우리를 형성하는데 걸린 기간과 또한 그 기간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 봉우리를 형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장기간(1개월이상)일수록, 또한 주가 움직임의 진폭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 해석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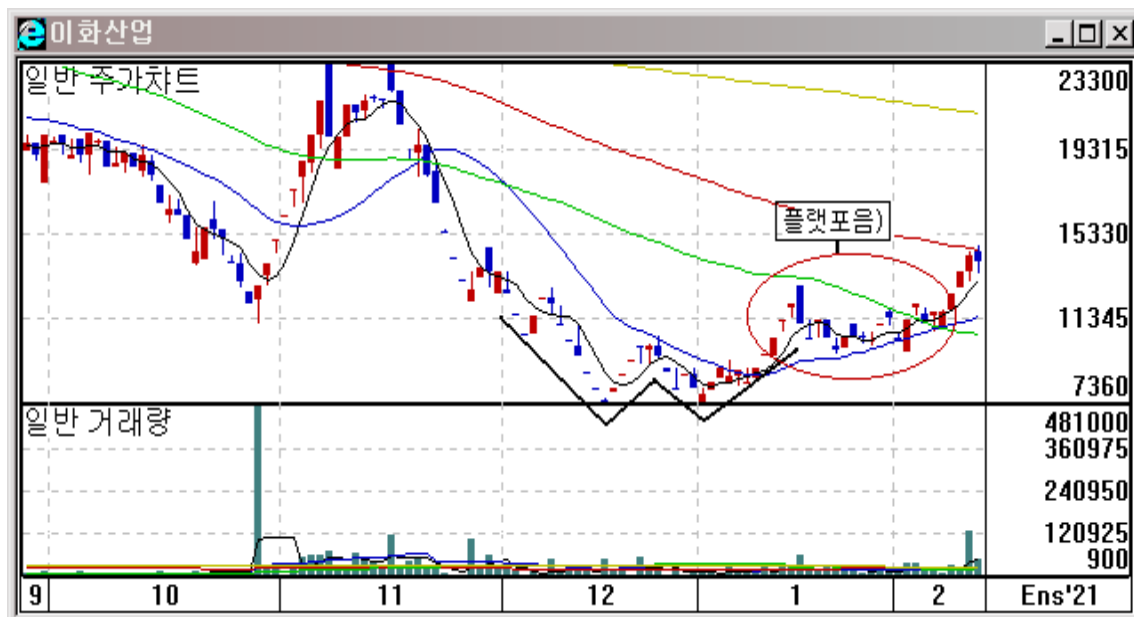
- ㄱ. 거래량 증가와 함께 A점까지 상승한 주가가 거래량이 감소하며 B점까지 하락한다. 이때 하락폭은 통계적으로 1/3, 2/3, 2/1수준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동평균선(20일)이나 지지선 또는 상승시에 발생하였던 주가 갭을 채우는 수준으로 보아야 하겠다.
- ㄴ. B점에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주가가 직전 고점인 A 점 수준까지 반등한후 거래량이 A점에서보다 더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할때는 주가도 더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때 직전고점인 A점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러 보조지표들도 A수준을 상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 ㄷ.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가 직전 저점인 B점을 하향돌파하면 이때부터 이중 천정형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주가가 B점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재반등을 시도 한다면, 이중 천정형이 아닌 새로운 패턴 (예, 삼중천정형)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 ㄹ. 주가가 B점 이하로 충분히 하락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중 천정형으로 인식하고 알맞는 매매를 수행해야 하겠다. 이때 B점 이하로 충분히 하락했던 주가가 종종 재상승을 시도하곤 하는데 이와 같은 되돌림 현상은 결코 B점 수준을 넘지 못한다.
- ㅁ. 그러나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가 재상승하여 B점을 상향 돌파하였다면 지금까지 보았던 패턴은 더 이상 이중 천정형이 아닌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매매 전략을 재수립 하여야 한다.



이중 바닥형(Double Bottom)

이중 바닥형은 이중 천정형을 그대로 뒤집어 얹어 놓은 형태이나 이중 바닥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 1) 이중 천정형은 첫번째 봉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번째 봉우리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종종 두번째가 더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중 바닥형은 두번째로 나타나는 바닥이 첫번째바닥보다 더 낮은 경우는 거의 없다.
- 2) 일반적으로 이중 천정형 에서는 두번째로 나타나는 봉우리가 첫번째 봉우리에 비해 뾰족하게 나타나고 이중 바닥형 에서는 두번째 나타나는 바닥의 경사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바닥의 경사보다 완만할 때가 많다.



19-5 선형(Line)과 원형 바닥형(Rounding Bot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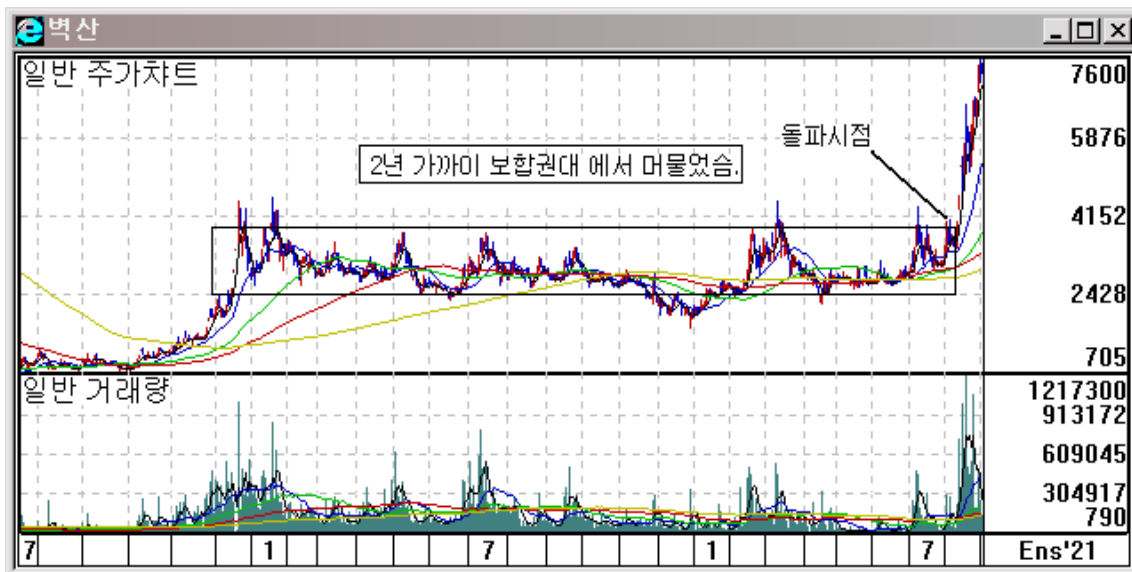
1. 의의

선형과 원형 바닥형은 차트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대표적인 패턴이다. 이 패턴은 판독하기가 매우 쉽고 성공할 확률도 높은 동시에, 앞으로 주가 이동 방향과 추세 전환 시점을 서서히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켜 준다.

따라서 투자결정 및 매매전략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기가 높고 매매가 활발한 주식에 있어서는 거의 만나보기 힘든 패턴이다.

2. 선형(LINE)

선형은 차트상에서 주가가 미세한 등락폭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험권을 유지하며 횡보한 후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지금까지의 등락폭보다 상당히 큰폭으로 저항선을 상향 돌파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다.



3. 원형 바닥형(Rounding Bot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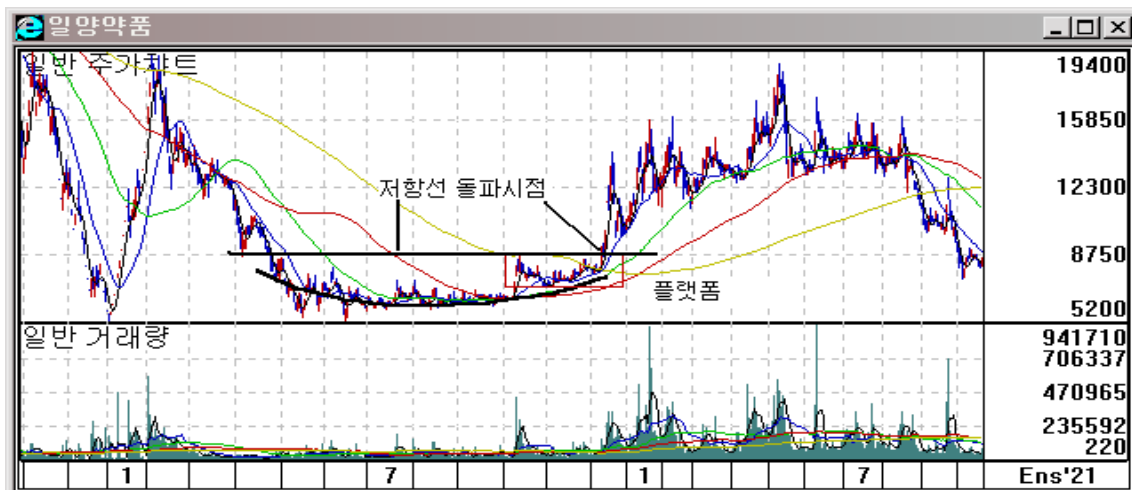
원형 바닥형은 주가의 하락추세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서서히 상승추세로 전환되는 패턴이며, 특징중의 하나가 상승추세로 진입 하면서 플랫폼(Platform)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는 도중 거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지만 돌파시점에서는 큰폭의 거래량을 수반하며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이 길수록 완성된 후 큰폭의 주가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패턴은 매매가 적고 일반투자자 들에게 소외되었던 주식 중에서 종종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 큰폭의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위험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원형 바닥형의 매매시점은

- ㄱ.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기간이 길고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
- ㄴ. 상승곡선의 형성이 끝나는 시기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
- ㄷ. 플랫폼을 형성하던 주가가 갑자기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신속하게 매수 하는 것이 좋다.



19-6 확대형(Broadening Formation)

1. 의의

확대형은 좁은 등락폭으로 움직이던 주가가 점차 그 등락폭이 확대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주가의 고점들은 점점 높아가는 반면, 반대로 주가의 저점들은 점점 낮아지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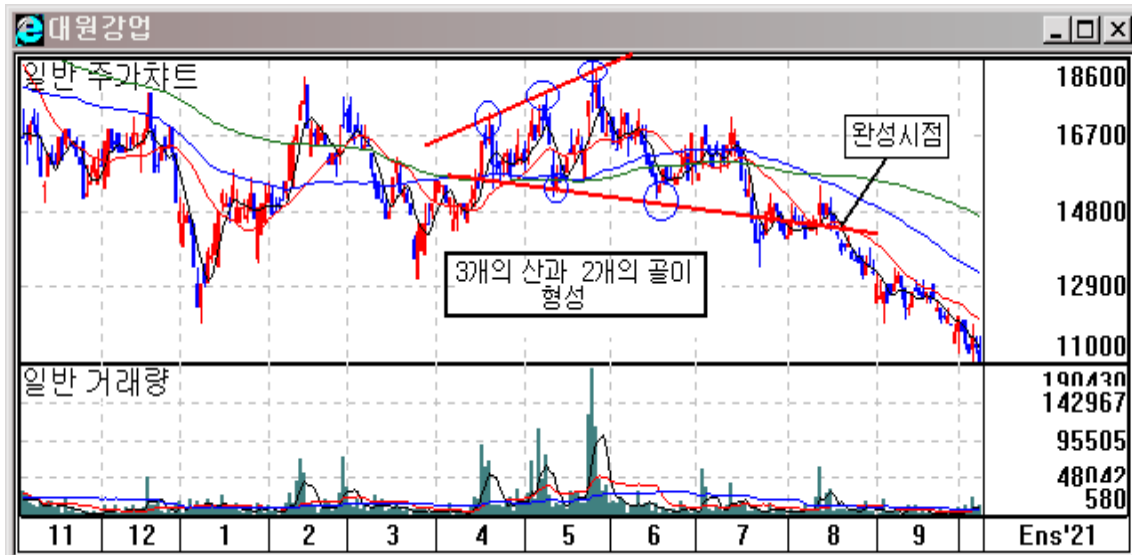
확대형이 진행되고 있으면 주가의 등락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시황이 매우 혼란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또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극히 민감하고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한다. 확대형은 거래량이 활발하면서 주로 시장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을때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

2. 읽는 요령

확대형은 일반적으로 세개의 산과 두개의 골로 이루어 진다. 이 패턴은 주가의 움직임이 한방향으로 수렴하기 보다는 오히려 각 방향으로 분산되는 결과로써 각 산들의 고점들은 점점 그 높이가 높아지는데 비하여, 각 골들의 저점들은 그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모양이다.

확대형은 일정한 매수세력이나 매도세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불확실한, 일부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패턴이 나타난 이후에는 대부분 주가의 큰폭 하락이 있었다.

확대형은 최소한 세개의 산과 두개의 골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가가 하락하면서 두개의 골을 잇는 추세선을 완전히 하향돌파 한 이후에 확대형이 완성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9-7 V형(V Patten)

1. 의의

V형은 매도자가 지배하는 하락국면에 이어 매수자 일변도의 상승국면으로 급속하게 변하면서, 전반적인 시장분위기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급하게 뒤바뀌어 버리는 반전패턴을 말한다.

이 패턴은 조정국면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세장과 약세장에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빠르게 형성된 후, 급한 속도로 추세전환이 나타나므로 V형의 완성은 얼마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하다.

2. 해석 요령

ㄱ. 하향추세선

V자형의 왼쪽 부분에 해당하며 주가 하락이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래량의 감소현상이 나타나지만 추세 마지막 부근에서 소폭 증가한다.

ㄴ. 축(PIVOT)

V자형의 바닥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형성되며 거래량은 하향 추세선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지만, 가끔 전환이 되는 시기에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ㄷ. 상승추세선

V자형의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며 주가가 하향추세선을 상향 돌파하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상승추세선이라 부른다. 상승반전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점점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V자형 전환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호재 및 악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 심리의 극적인 전환으로, 이것은 주가 움직임의 대역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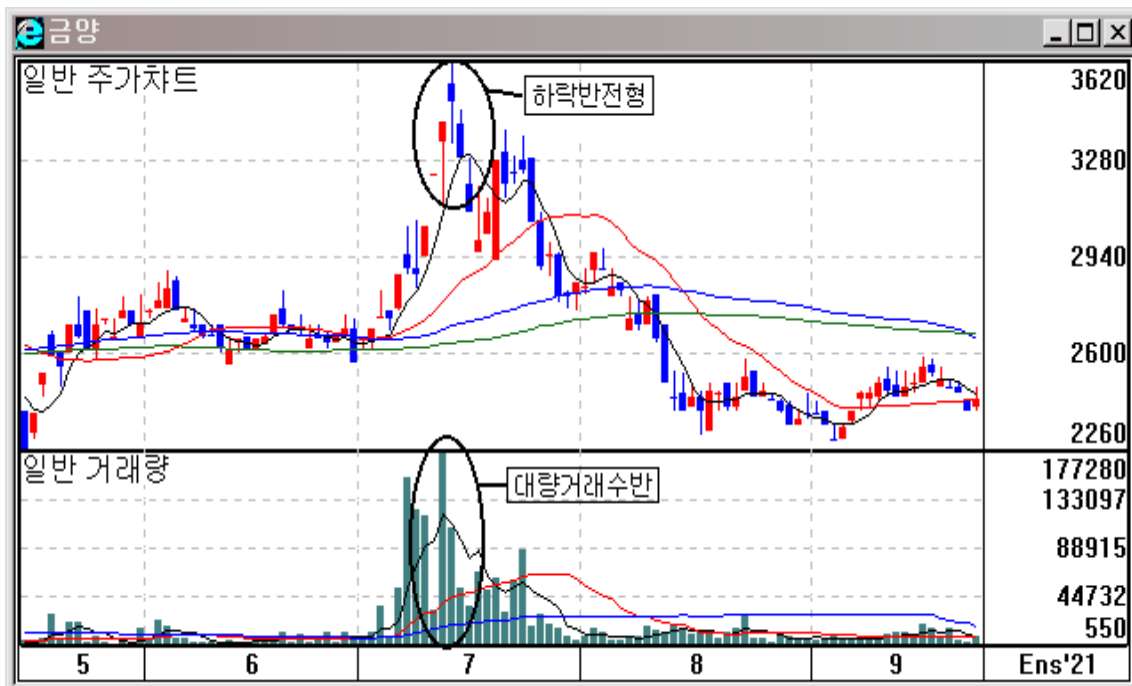
19-8 반전일 과 되돌림

1. 반전일(Key reversal day)

어느날 대량거래를 수반한 주가가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날이후 주가 흐름이 반전되는데 바로 그날이 반전일 이라한다. 반전일은 하락반전일과 상승반전일로 구분된다.

때로는 추세의 하루가 아닌 이틀에 걸쳐 이루어 지는때도 있는데 이때는 마치 반전일이 둘로 분리된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반전일이 이틀에 걸쳐 이루어 지려면 첫째날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종가도 최고치 근처에서 형성되지만 둘째날은 주가가 더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눈에 띄게 약화 되면서 2일 전의 종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

1일전반전이나 2일전 반전은 기본적인 전환 패턴으로서 일반적으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고 있으며 상승추세의 천정에서 뿐만 아니라 하락추세의 바닥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또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추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비교적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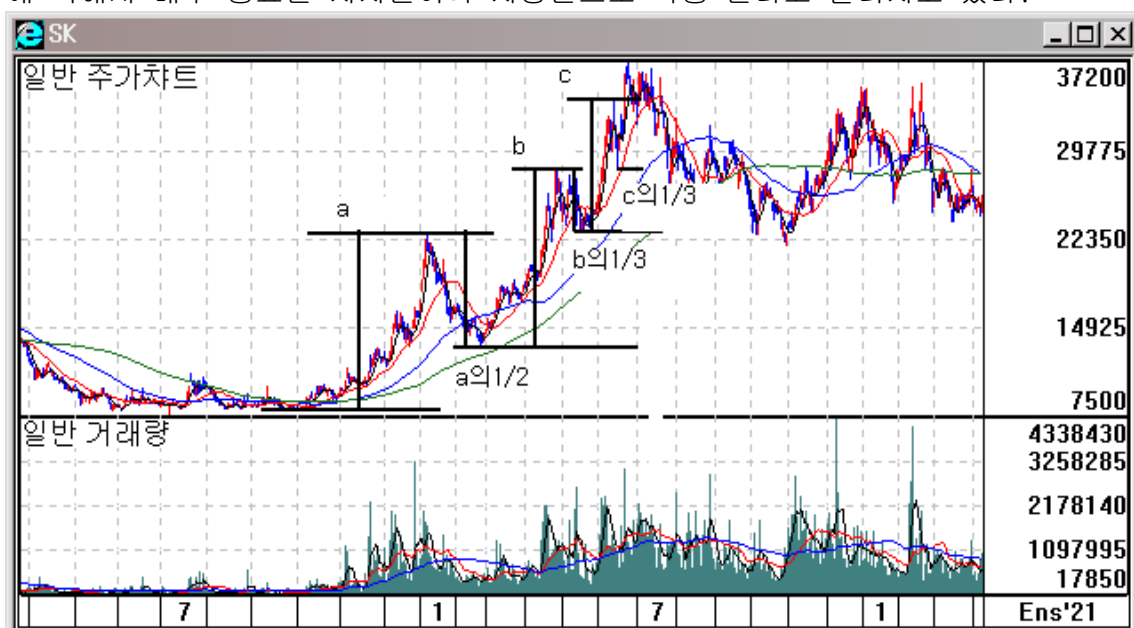


2. 되돌림(retracement)

주가 움직이는 일방적으로 상승이나 하락만을 지속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 하면서 진행한다. 즉 이익 실현과 손실 방지를 거래를 통하여 행사함으로써 주가의 등락은 지속 될수 밖에 없다. 주가 추이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상승에 반발하여 자율반락하는 현상을 되돌림 이라한다.

따라서 주가 움직임에서 일단 되돌림 현상이 확인되면 그동안 상승폭(하락폭)의 어느 특정비율 부근에 강력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형성될것을 미리 예측해 볼수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되돌림 비율은 $1/4$, $1/3$, $1/2$, $3/4$ 이며 이러한 비율은 분석가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20. 차트의 기본패턴분석(5) (지속형 패턴분석)

20-1 삼각형(Triangle Pattern)

1. 의의

삼각형 패턴은 차트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속형 패턴중의 하나이다. 삼각형 패턴은 반복적인 등락을 하는 동안 점점 그 등락 폭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

즉, 삼각형 패턴에서 고점들을 이은 추세선은 저항선으로, 각 저점들을 이은 추세선은 지지선으로 작용함으로, 점점 그 폭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두 추세선은 수렴하게 된다.

삼각형 패턴은 최소한 4번 이상 주가의 등락이 있어야 하며 또한 밀변과 꼭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각형 패턴을 형성한 주가는 보통 밀변과 꼭지점간 거리의 2/3 지점을 통과한 이후에 추세선을 돌파하게 된다.

2. 이등변 삼각형 패턴

이등변 삼각형 패턴은 반등시의 고점들을 연결한 저항선과 반락시의 저점들을 연결한 지지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래, 위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형성된 삼각형 꼴을 말한다.

이 패턴은 지금까지의 진행 방향에서 그 방향의 반대세력이 나타나 일시적으로 매수,매도 사이의 세력균형이 유지 되면서 횡보국면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차트상에서 이등변 삼각형 패턴이 약세장에서 나타나면 큰폭의 하락을, 강세장에서 나타나면 큰폭의 상승을 가져온다.



3. 상승 삼각형 패턴

상승 삼각형 패턴은 주가의 고점들을 이은 저항선이 이상적으로 수평을 이루는 반면, 저점들을 이은 지지선은 점점 상향하여 각각을 이은 선이 서로 만나게 되는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이 패턴은 주가가 상승하는 도중에 자주 나타나므로 앞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 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상승 삼각형 패턴의 형성은 상승 중이던 주가가 일정한 수준의 가격대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올라갔던 주가가 반락하다가 재상승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으로 점점 매도물량이 감소되고, 따라서 주가가 일정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 즉 수평을 이루고 있는 위의 강력한 저항선이 상향 돌파 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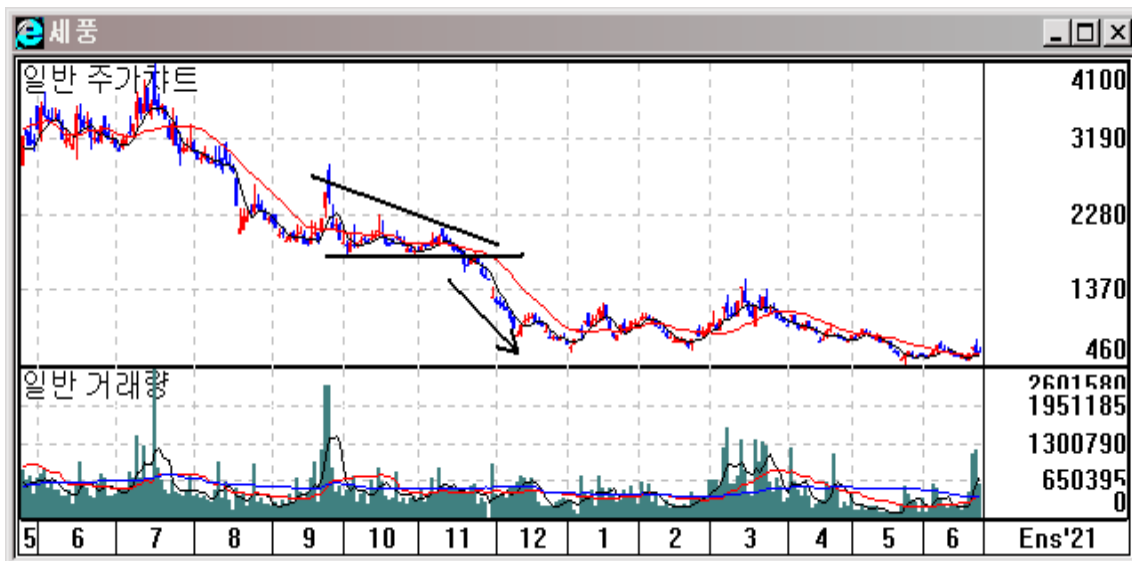


4. 하락 삼각형 패턴

하락 삼각형 패턴은 상승 삼각형 패턴의 반대 모양으로 주가의 저점들을 이은 지지선이 이상적으로 거의 수평을 이루는 반면, 고점들을 이은 저항선은 점점 하향하여 각각을 이은 선이 서로 만나게 되는 패턴이다.

주로 이 패턴은 주가가 하락하는 도중에 자주 나타나므로 앞으로 주가가 하락 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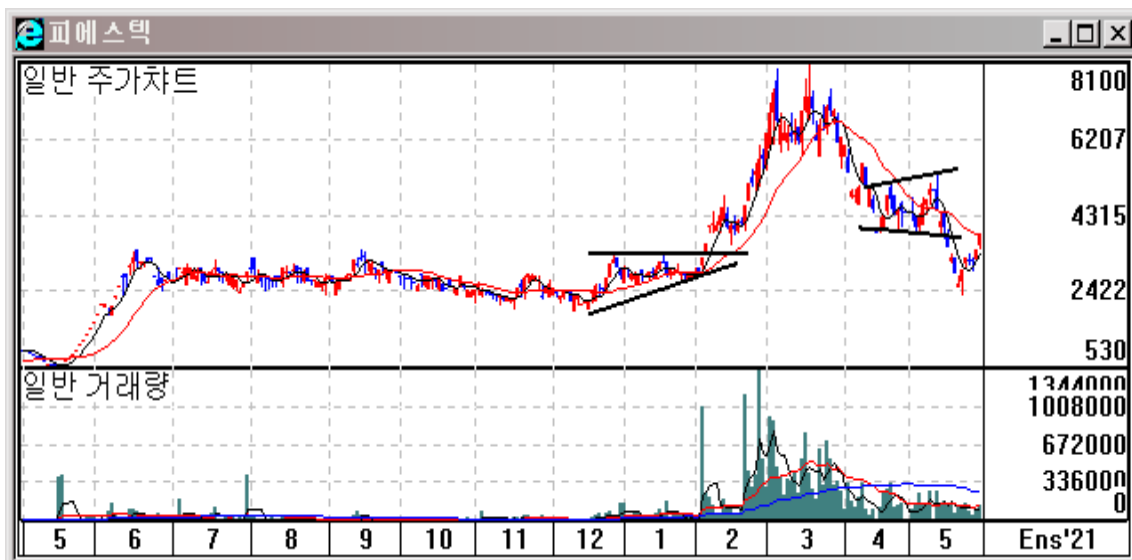
또한 하락 삼각형 패턴은 저항선이 점점 우하향 하고 있어 매수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평을 이루고 있는 아래의 강력한 지지선이 하향돌파 됨으로써 이 패턴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5. 역삼각형 패턴

역삼각형 패턴은 이등변 삼각형을 거꾸로 한 모양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등락 폭이 커져가는 특징이 있어 전혀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패턴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매우 불안정하고 극히 민감한 경우에 종종 나타나며, 이 패턴이 형성되는 도중에 일반투자자의 뇌동매매로 인한 주가 등락폭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0-2 깃발형(Flag Pattern)과 패넛트형1. 의의

깃발형과 패넛트형은 주가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빠른속도로 상승한 이후 기존의 주가 움직임에 일시적으로 반발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여 잠시 횡보국면을 보이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때 주가의 수직적인 움직임은 마치 깃대(Hlag Pole)와 같은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 ㄱ. 깃발형과 패넛트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주가 움직임이 거의 수직에 가까워야 한다.
- ㄴ. 일반적으로 이 패턴들은 1-3주사이의 단기간에 형성되어야 한다.
- ㄷ. 깃발형과 패넛트형은 예외없이 반전형으로는 작용할 수 없으며 주가는 기존의 깃대형성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 ㄹ. 깃발형과 패넛트형은 상승형과 하락형 2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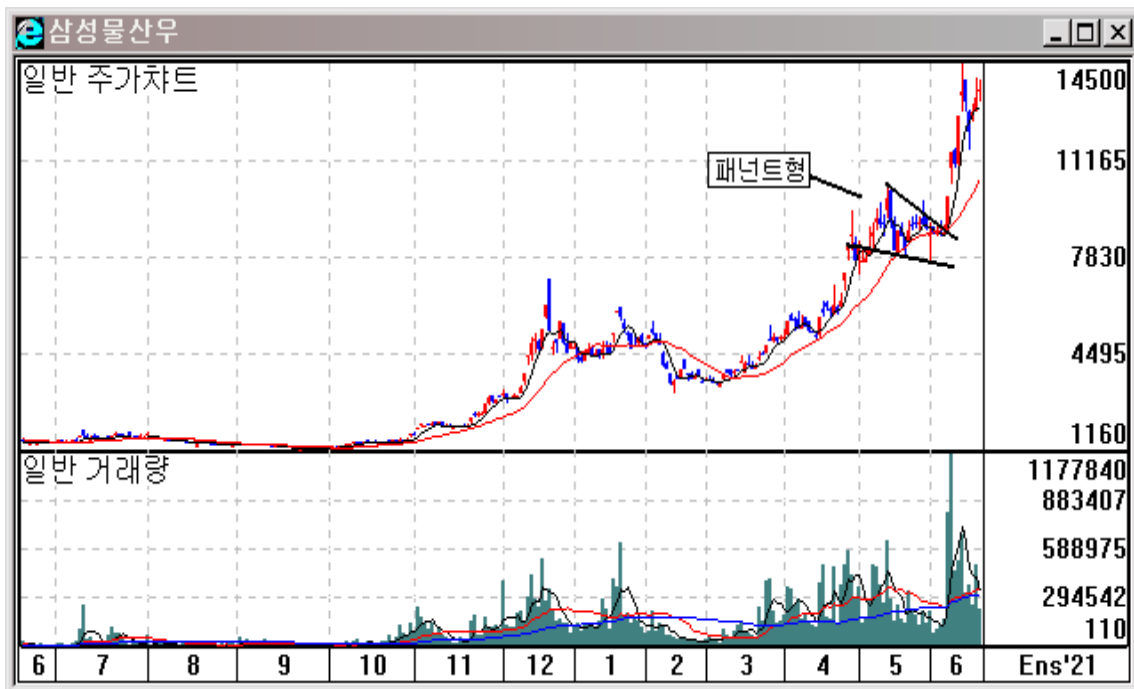
2. 해석 요령

깃발형과 패넛트형은 수직에 가까운 깃대가 세워지고 그 중간에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으로 앞으로 주가의 예상 목표치는 그 이전의 깃대 길이만큼 더 움직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추세선이 돌파된 지점에서 깃대의 길이만큼 더하거나 빼 위치까지 최소한 더 움직일 것으로 예상해 보는 것이다.

상승 깃발형의 경우 주가가 수직에 가까운 급격한 상승을 보인 이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모양을 하는데, 당시 거래량은 주가 급등시 함께 증가 하였다가 깃발형 모양을 형성 하면서 점점 줄어들지만 주가가 추세선을 벗어나 급상승할때 다시 증가세가 나타난다.

하락 깃발형의 경우 이 모양은 상승 깃발형에 비해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나도 상승 깃발형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한 상승 깃발형의 형성 기간이 1-3주일 인데 반해 하락 깃발형은 2주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20-3 쐐기형(Wedge Pattern)

1 의의

쐐기형은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이 서로 평행 되지 않고 두 선이 점점 좁아져 한곳으로 모이는 모양이다.

빼기형은 상승 빼기형과 하향 빼기형으로 구분되며

상승 빼기형은 아래 지지선과 위 저항선이 모두 상향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 지지선의 기울기가 위 저항선의 기울기보다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하향 빼기형은 그 반대의 경우로 상승시에 나타나며 위 저항선의 기울기가 아래 지지선의 기울기 보다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2. 해석 요령

빼기형은 지속형 패턴중의 하나로써 하락 빼기형은 급상승에 대한 경계심리, 이익 실현, 저가매수 등으로 저항선의 기울기가 지지선의 기울기보다 더 급하게 하락하며 이 패턴을 완성한 이후에는 계속 상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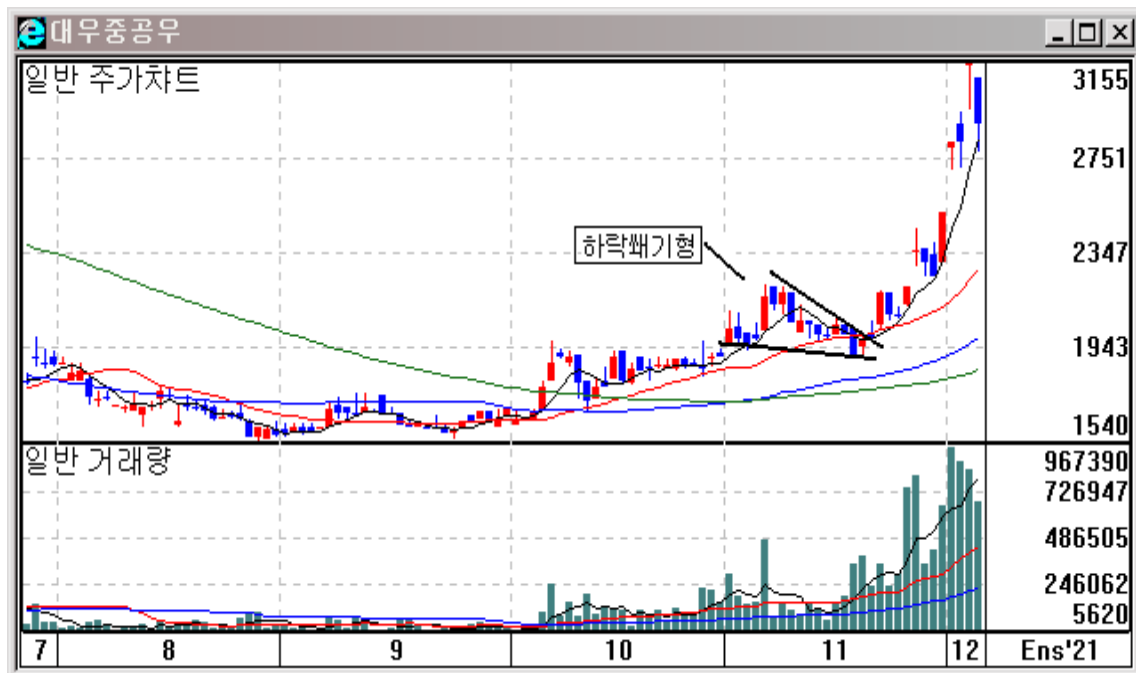
빼기형의 방향은 깃발형이나 패넛트형 처럼 기존의 추세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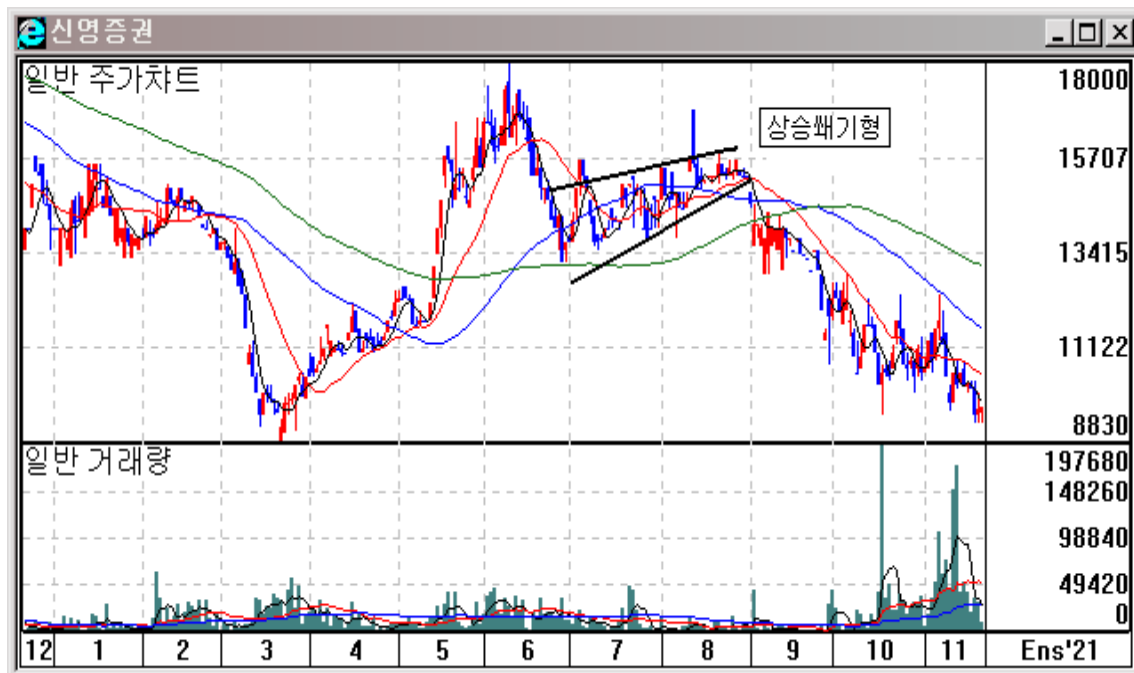
즉, 주가가 상승추세를 보이며 움직여 왔다면 하향 빼기형이 형성되고, 주가가 하락추세를 보이며 움직여 왔다면 상승 빼기형이 형성된다.

따라서 상승 빼기형은 주가 하락을, 하락 빼기형은 주가상승을 예고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빼기형 방향이 기존의 추세방향과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익실현과 저가매수로 인해 거래가 주도 되기 때문이다.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빼기형의 진행 도중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패턴형성이 완성되고, 추세선을 돌파할 시점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0-4 직사각형(Rectangle pattern)

1. 의의

직사각형 패턴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주가가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매수, 매도 양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횡보하는 모양으로 위, 아래 두 저항선과 지지선이 수평으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주가의 위 수평선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아래 수평선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소폭의 등락만을 거듭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사각형은 지속형 패턴중의 하나로 거의 모든 경우에 기존의 추세에 그대로 유지되며 이등변 삼각형 패턴이 변형되어 나타난것으로 보인다.

2. 해석 요령

직사각형 패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위 저항선을 그을수 있는 최소한 두개의 산과 아래 지지선을 그을수 있는 최소한 두개의 골이 형성되어서 네번 이상 주가등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가의 위 저항선 부근에 접근하면 매도 시점으로 주가의 아래 지지선 부근에 접근하면 매수 시점으로 잡아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직사각형 패턴의 형성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폭이나 하락폭

이 더욱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패턴에서 주가의 예상 목표치는 이등변 삼각형 패턴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한다.

즉,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의 주가 등락 폭을 재서 추세선이 상향 돌파한 시점부터 주가 등락폭 만큼 더하거나 빼서 주가의 최소 목표치를 구한다.



20-5 다이아몬드형(Diamond pattern)

1. 의의

다이아몬드형은 역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이 합쳐진 모양으로 주가의 큰 변동이 있는 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다.

다이아몬드형이 형성되는 기간동안 주식시장은 침체 되기도 하고 과열되기도 하는 장세를 반복하는데 불안정한 투자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 패턴은 직사각형 패턴이 변형된 형태라고 볼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시 거래량은 증가하고 주가 하락시 거래량은 감소한다.

다이아몬드형은 때때로 상승추세가 가속화 되는 막바지에 나타나 반전패턴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락추세가 가속화 되는 마지막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2. 해석 요령

다이아몬드 형성 초기에는 주가의 상하 등락폭이 점점 커지면서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지만, 이후 투자심리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의 변동폭도 점점 작아지고 동시에 거래량도 눈에 띄게 감소한다.

다이아몬드형의 진행과정을 차트상에서 볼때 역V자형의 변형인 3봉형이나 플랫폼을 동반한 역V자형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분석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이아몬드형은 직사각형 패턴처럼 아래, 위 추세선이 돌파되는 순간 완성된것으로 판단하며, 완성 이후 예상되는 주가 목표치는 다이아몬드의 추세선이 돌파된 시점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두께만큼 더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수준으로 판단한다.



20-6 갭(Gap)

1. 갭의 개념

봉차트를 보면 주가가 어느 특정일에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므로써 주가와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 빈 공간을 갭(Gap)이라고 한다.

차트상에 갭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매도세와 매수세 사이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로, 앞으로 주식시장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고해준다.

갭의 발생으로 어느 특정가격대에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갭이 발생한 가격대는 앞으로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상승추세에서 발생한 갭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며 하락추세에서 발생한 갭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갭이 일단 채워지면 그 갭은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진다.

2. 갭의 종류

1) 보통갭(common gap)

보통갭은 횡보국면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매우 적은 경우에 확인할수 없는 소문이나 일부 작전세력에 의하여 시초가 부터 큰폭의 갭이 발생하는 경우로 조만간 소문이 확인 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면서 갭은 다시 채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2) 돌파갭(break-away gap)

돌파갭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조정 국면이나 횡보국면을 마감하고 주가가 과거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할때 나타난다. 돌파갭의 발생은 새로운 주가 움직임이나 새로운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돌파갭은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나타나며, 보통갭과 달리 갭이 채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3) 급진갭(run away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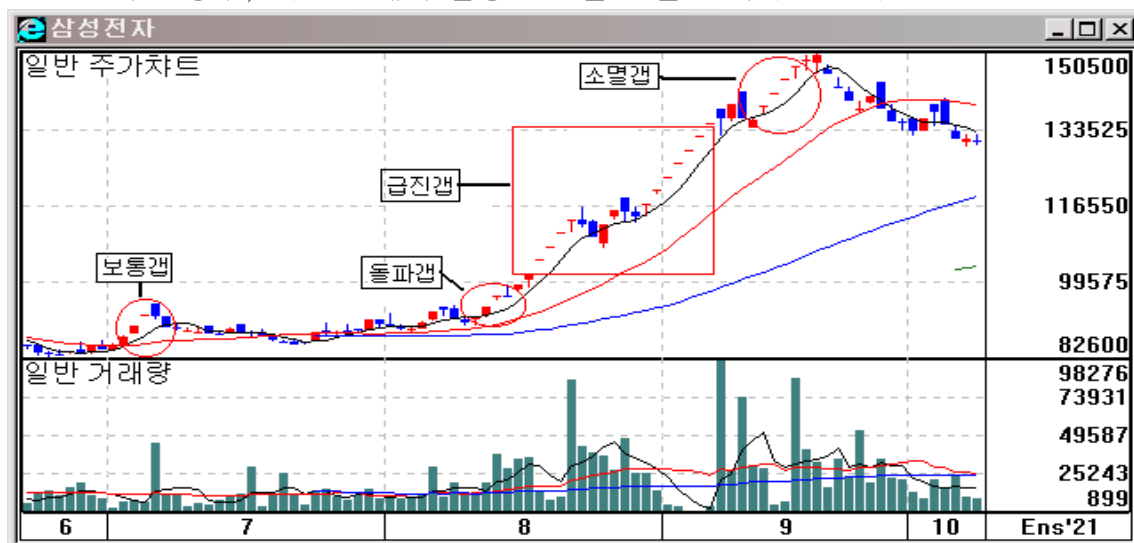
급진갭은 주가가 거의 일직선으로 급 상승하거나 또는 급 하락하는 도중에 주로 발생한다. 급진갭은 주가 움직임이 급속히 가열되거나 냉각되면서 이전의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는 갭으로 볼 수 있다.

급진갭의 발생은 일부 강력한 작전 세력에 의해서나 또는 과열된 분위기에서 자제력을 잃은 투자자들이 뇌동매매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급진갭은 여러개가 연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투자심리의 과도한 분출로 주가 상승및 하락 분위기가 서서히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매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급진갭은 주가의 예상 목표치의 중간지점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또한 급진갭을 확인할 수 만 있다면, 향후 주가 움직임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급진갭을 중간갭 이라고 하기도 한다.

4) 소멸갭(exhaustion gap)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 급격한 수직 상승을 지속하는 도중에 나타난다. 주가의 상승 추세가 가속화 되면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가열된 강세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험적인 투자가 들이 공매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경우나, 또한 이제까지 주식시장의 수직상승에 불안감을 느끼던 잠재매입 세력들이 서둘러 매수에 참여한다. 이들 매입 세력에 의하여 주가 상승 막바지에 한두갭이 발생하는데 그후 바로 주가의 상승이 멈추고 하락으로 반전되는 경우, 바로 앞에서 발생한 갭을 소멸갭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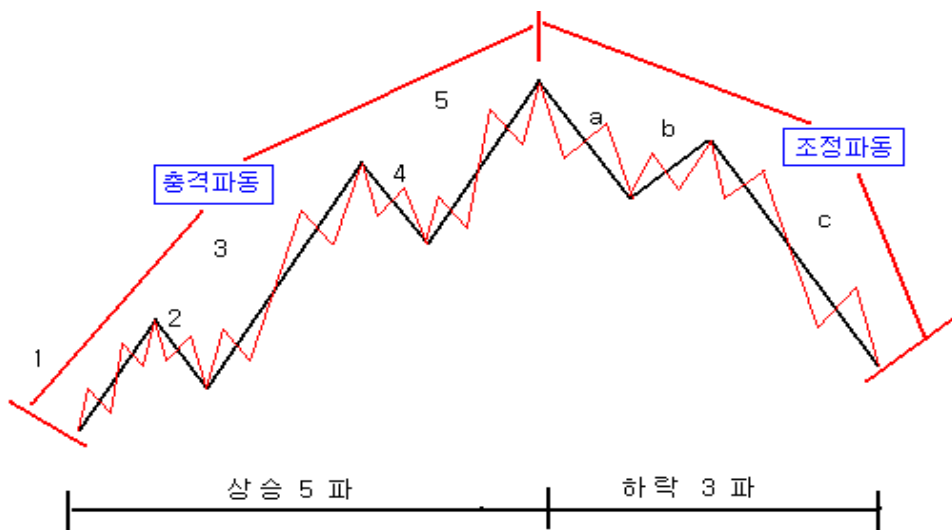


21. 엘리엇 파동이론

21-1 파동이론의 개요

1. 개요

주가는 연속적인 파동에 의해 상승하고 다시 하락 함으로써 상승5파와 하락3파의 8개 파동으로 구성된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며, 이후 새로운 상승5파와 하락3파에 의해 또 다른 사이클을 형성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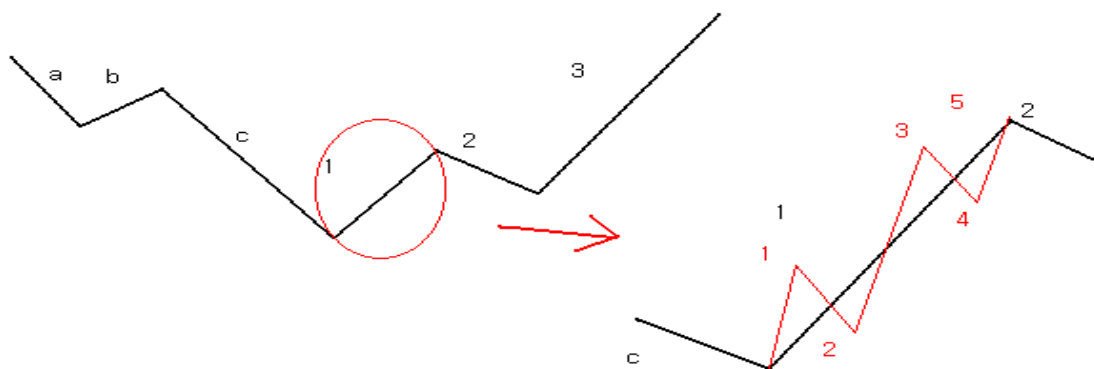
21-2 각 파동의 특징

1. 상승5파

1) 1번 파동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으로 이제까지의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다섯개의 파동중 가장 짧다.

1번 파동은 충격파동 이므로 반드시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



1번 파동: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파동으로 일반적으로 다섯개 파동중 가장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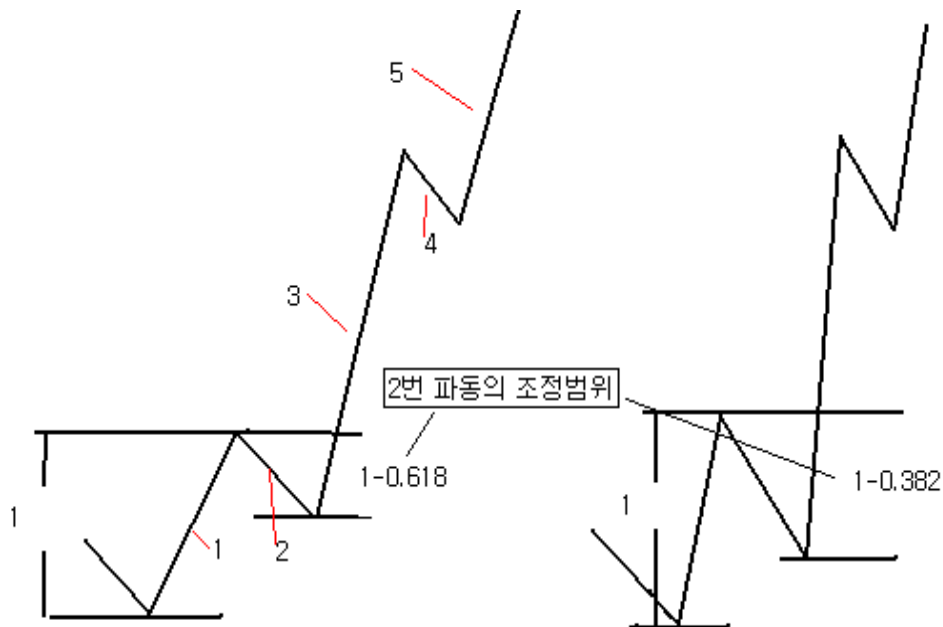
2) 2번 파동

1번 파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

*** 대개의 경우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38.2% 또는 61.8% 비율만큼 되돌리는 경향이 높고, 1번 파동을 100% 이상 되돌리는 경향은 없다. 이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절대불가침의 법칙에 해당된다.***

따라서 2번 파동이라 생각되는 파동이 1번파동을 100% 이상 되돌려 형성되면 이제까지의 1번 및 2번이라 생각되던 파동이 결코 1번 및 2번 파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2번 파동은 성격상 조정파동 이므로 반드시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1번, 2번 파동은 이중 바닥형이나 역 헤드 앤 쇼울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번파동: 1번파동 전체 상승폭의 38.2% 나 61.8%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3번 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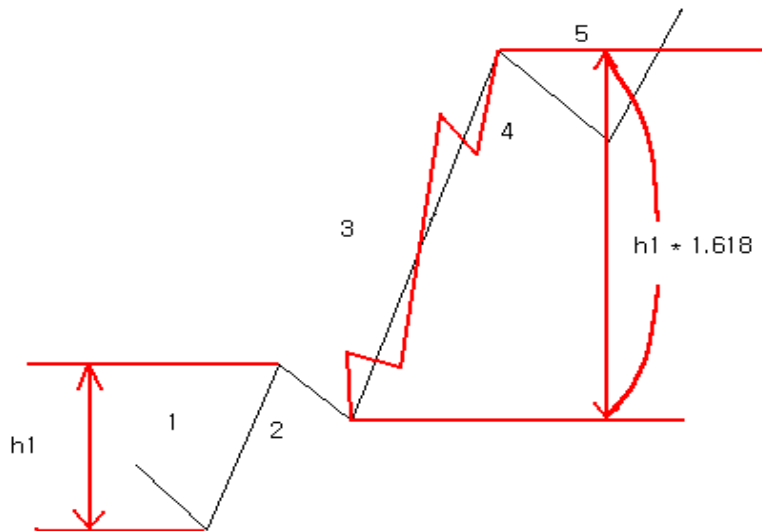
3번 파동은 다섯 개의 파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격변동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파동으로, 다섯 개의 파동중에서 가장 긴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다른 파동의 길이가 3번 파동보다 길 수는 있어도 3번파동이 가장 짧은 파동일 수는 없다.

이는 3번 파동이 가장 짧은 파동 일 수는 없다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절대불가침 법칙으로 불리어지며,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

반드시, 3번 파동은 1번 파동에 비해 길이가 길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1.618배의 길이가 된다.

그리고 3번 파동은 충격파동 이므로 다섯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다른 형태로 연장 되는 수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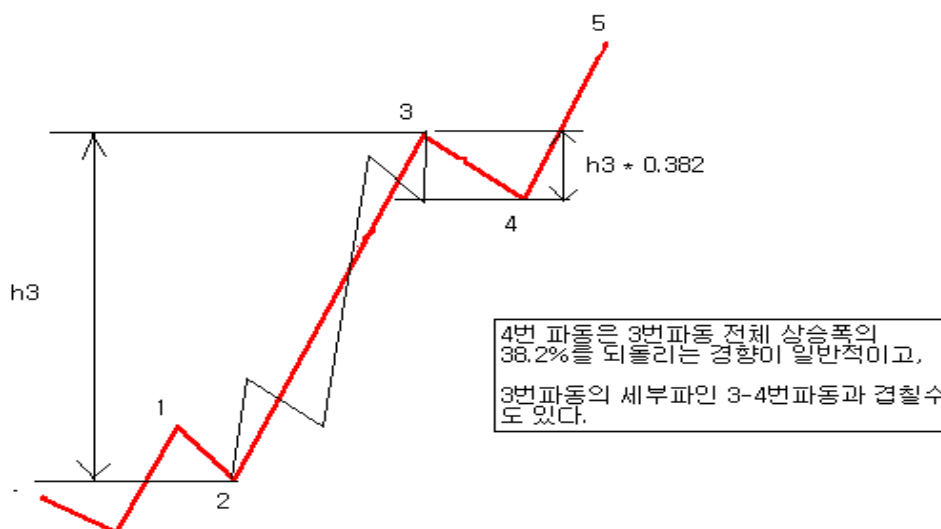


4) 4번 파동

4번 파동은 3번 파동을 38.2% 되돌리는 경우가 많으며, 3번 파동을 5개의 작은 파동으로 나누었을때 그 중에서 네번째 파동 만큼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다.

***엘리어트 이론에서 절대불가침 세번째 법칙은 4번 파동이 결코 1번 파동과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4번 파동의 최저점은 반드시 1번 파동의 최고정보다 높아야 하며, 1번 파동의 최고점은 반드시 4번 파동의 최저점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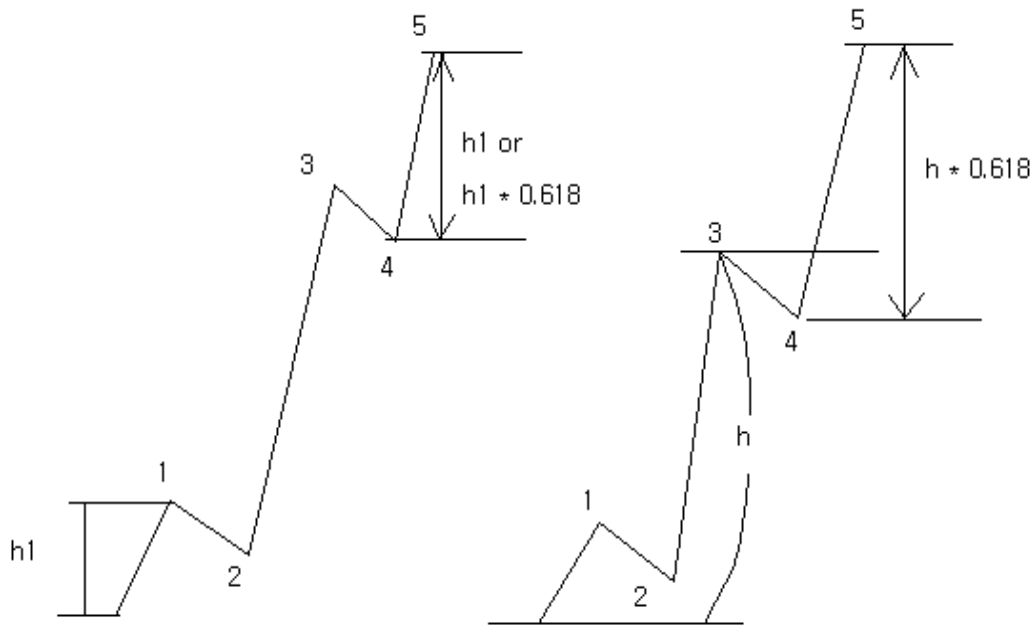


5) 5번 파동

5번 파동은 이제까지 진행 되어온 추세가 막바지에 이르는 국면으로서, 3번 파동에 비해 가격의 움직임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며 거래량도 3번 파동에 비하여 적게 형성된다.

5번 파동 역시 충격파동 이므로 5개의 작은 파동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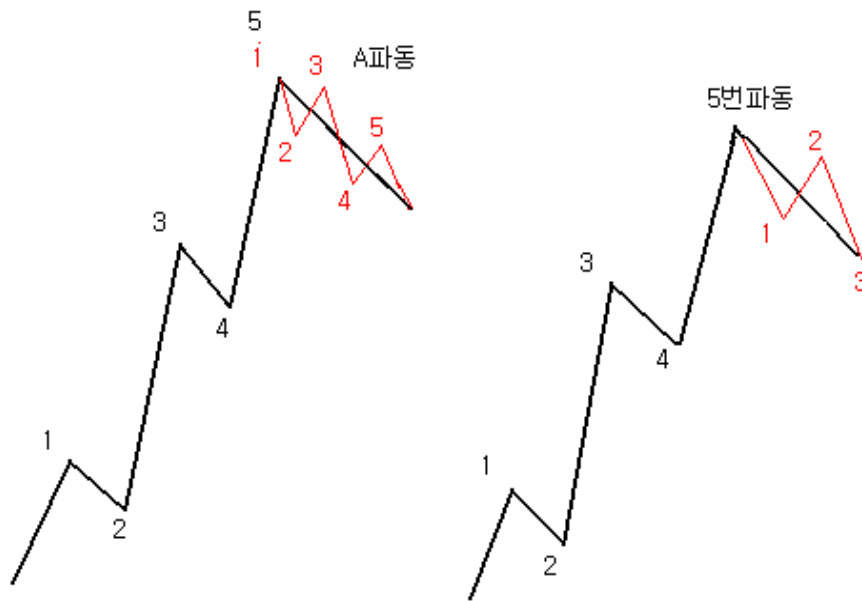
5번 파동은 일반적으로 1번 파동과 똑같은 길이로 형성 되거나, 1번에서 3번 파동까지 길이의 61.8% 만큼 형성되는 경향이 높다.



6) a 파동

a 파동부터는 이제까지의 추세와는 반대방향의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 a 파동으로 생각되는 파동은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충격파동이므로, 반드시 다섯 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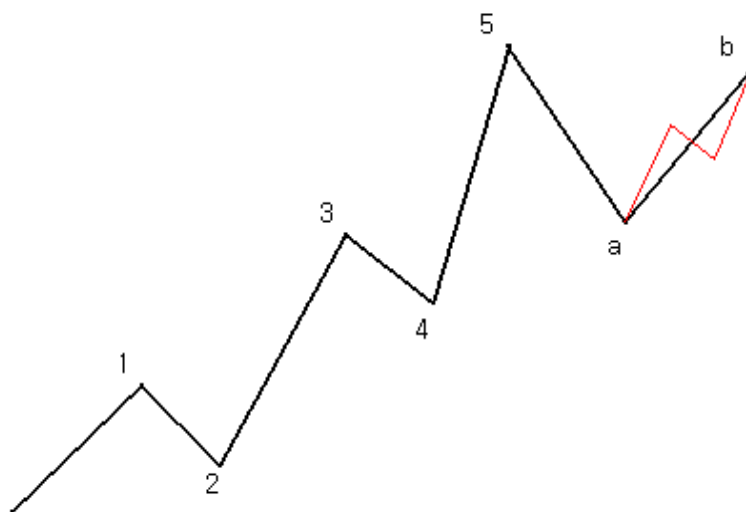
따라서 a 파동이라고 생각되었던 파동이 세개의 파동만 구성하고 기존의 움직임이 재개 된다면, 이는 a 파동이 아니고 5번파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b 파동

b 파동은 하락추세의 시작인 a 파동에 반대하는 매입세력으로 인해 상승추세가 잠시 이어지는 조정파동이며, 세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된다.

b 파동은 1번 파동의 상승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믿기 쉬우나 이제까지의 보유주식을 매도할 마지막 기회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매도기회를 찾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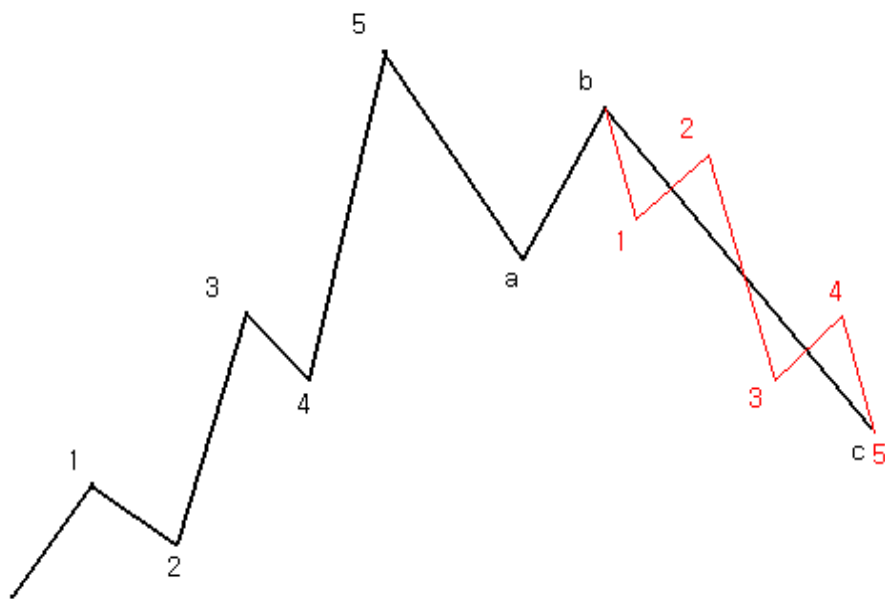


8) c 파동

c 파동은 하락파동의 마지막 파동으로 거래는 활발하고 가격의 변동폭도 크게 나타난다. 가격의 하락추세가 가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시기이다.

보통 c 파동은 a 파동의 최저점을 돌파하여 진행되는데 패턴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5번 파동과 a 파동으로 구성되는 머리를 중심으로 헤드 앤 쇼울더 패턴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파동은 충격파동 이므로 다섯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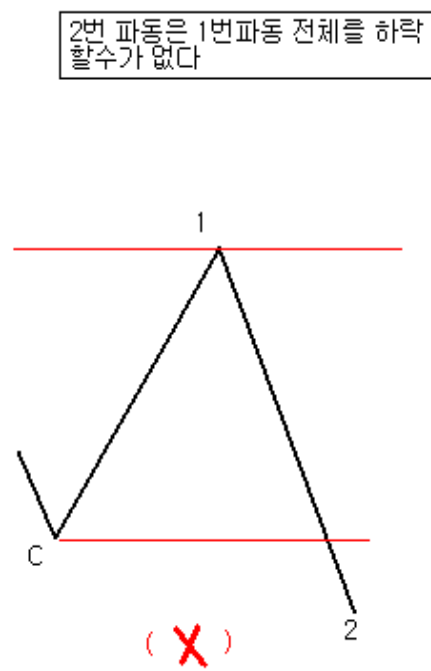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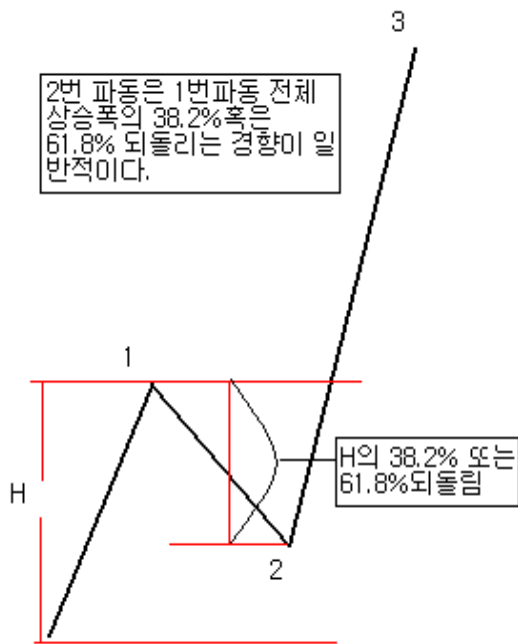


21-3 파동의 법칙 과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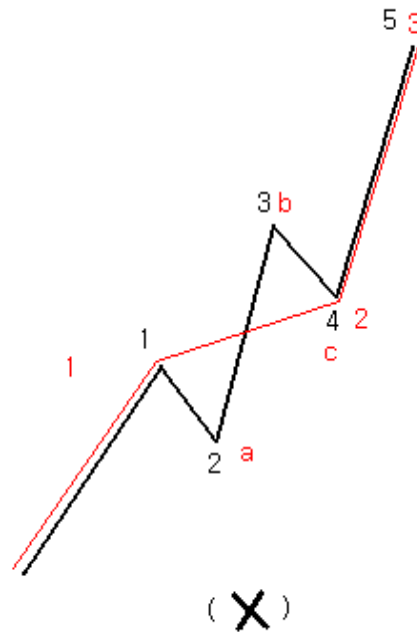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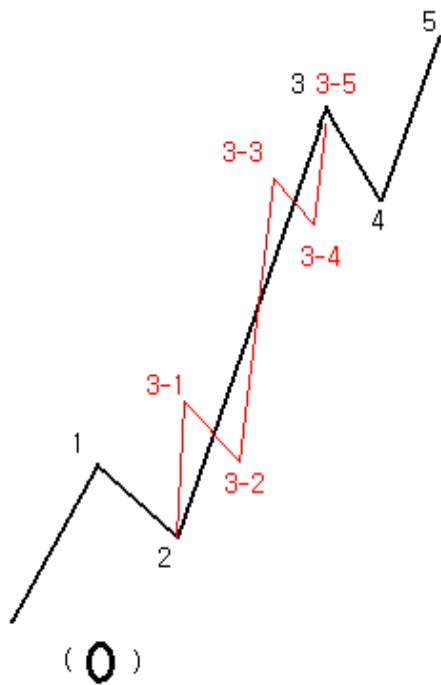
21-3-1 절대 불변의 법칙

1) 절대 불변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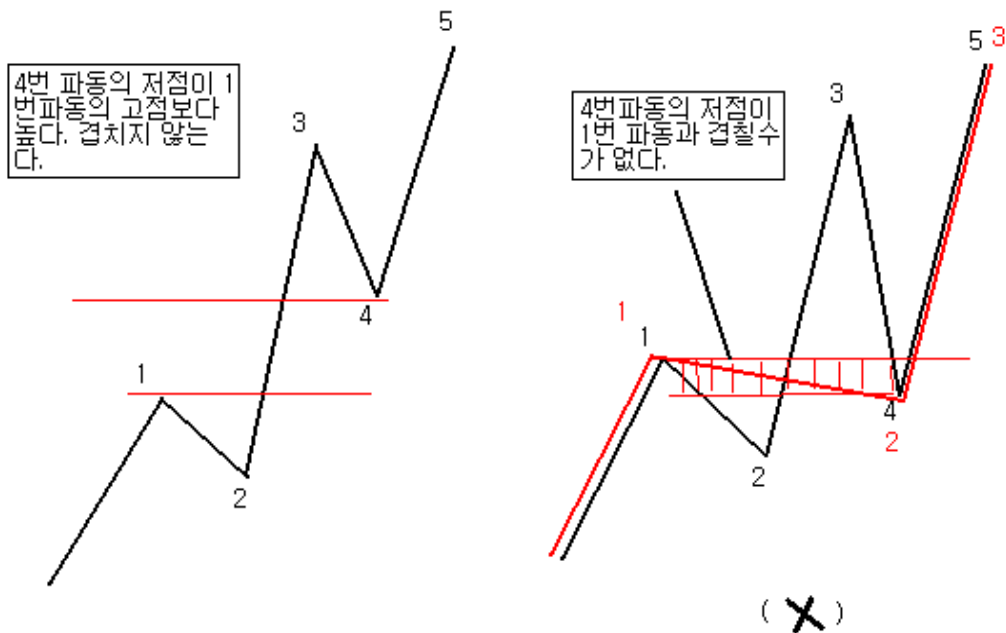
법칙 1 : 2번 파동이 1번 파동을 100% 이상 되돌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대개의 경우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38.2%, 혹은 61.8%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2) 법칙 2: 1.3.5의 충격파동 중 3번 파동이 가장 짧은 파동일 수는 없다. 보통 3 번 파동은 가장 강력한 파동이어서 파동의 길이가 가장 길고 거래량도 활발한 경우가 많다.



3) 법칙 3: 4번 파동은 결코 1번 파동과 겹치지 않는다. 즉 4번 파동의 최저점이 1번 파동의 최고점 보다 높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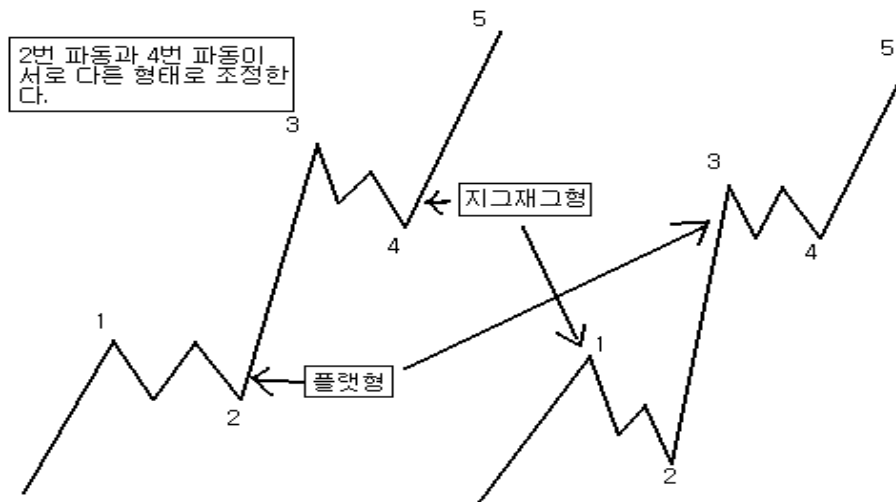


21-3-2 파동 변화의 원칙

파동 변화의 원칙

파동 변화의 원칙은 각 파동을 세분화 하였을때 동일한 패턴이 지속되기 보다는,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으로

예를들어, 2번의 조정파동이 플랫폼 패턴을 보이면 4번 파동은 지그재그형 패턴이 나타나고, 반대로 2번이 지그재그형 패턴이 나타나면 4번은 플랫폼 패턴을 보이는 등, 두 파동이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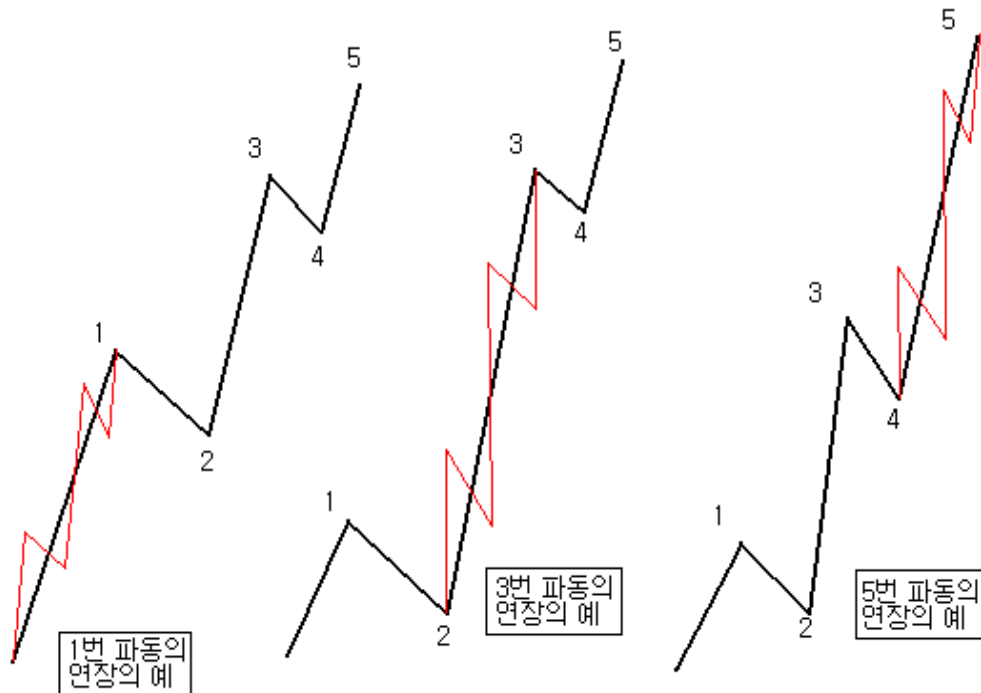
21-3-3 파동 연장의 원칙

파동 연장의 원칙

충격파동은 그 움직임이 활발하여 때로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파동의 길이보다 길고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하나의 충격파동 안에 다시 커다란 다섯개의 파동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 파동이 연장 되었다고 한다.

파동의 연장은 1.3.5 파동의 충격파동만이 나타나며 2.4번 파동의 조정파동과 a.b.c 의 하락파동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연장 파동은 한 사이클 안에서 단 한번만 나타나므로 1.3.5번 파동 중에서 한개만이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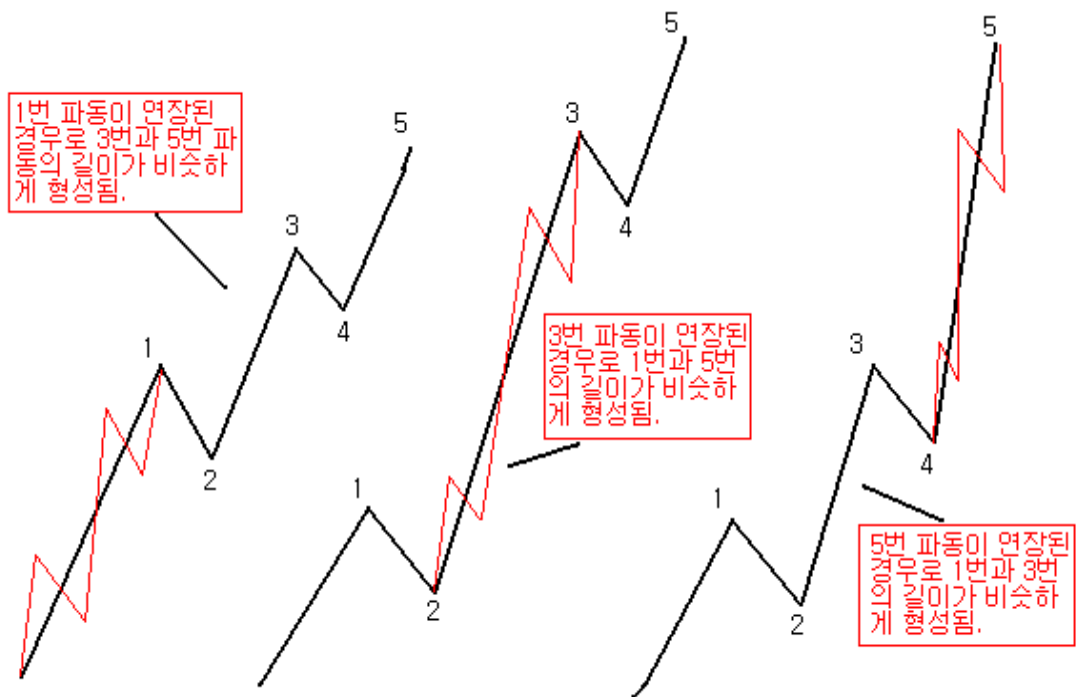


21-3-4 파동 균등의 원칙

파동 균등의 원칙

파동 균등의 원칙이란 충격파동인 1.3.5 파동 중에서 두개의 파동은 그 길이가 비슷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서, 특히, 3번 파동이 연장 되었을 경우 1번 파동과 5번 파동의 길이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주가 목표치 계산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수 있는 원칙으로 만일 3번파동이 연장 되었음이 확실하고 4번 파동이 끝나는 시점이라면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비슷한 길이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21-4 파동 적용시 주의사항

*** 파동이론 적용시 주의사항 ***

** 진행구간의 시간예측과 각 파동별 전환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

1. 한 파동이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파동의 정점과 바닥 혹은 정점과 정점 사이의 시간 예측에 대한 어떠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파동이 언제 시작 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각 단계의 전환시작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시말해서, 어느 파동이 끝나 다른 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파동 불변의 법칙에 의하여 이전 파동의 연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동의 진행이 아닌 경우도 발생 한다는 점이다.

*** 이와 같은 적용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엘리엇 파동이론은 400년 통계학 (주식투자의 심리학)으로서, 각 증권회사나 투자전문가들이 향후 주가전망을 예측할 때는, 선행지표로서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21-5 조정파동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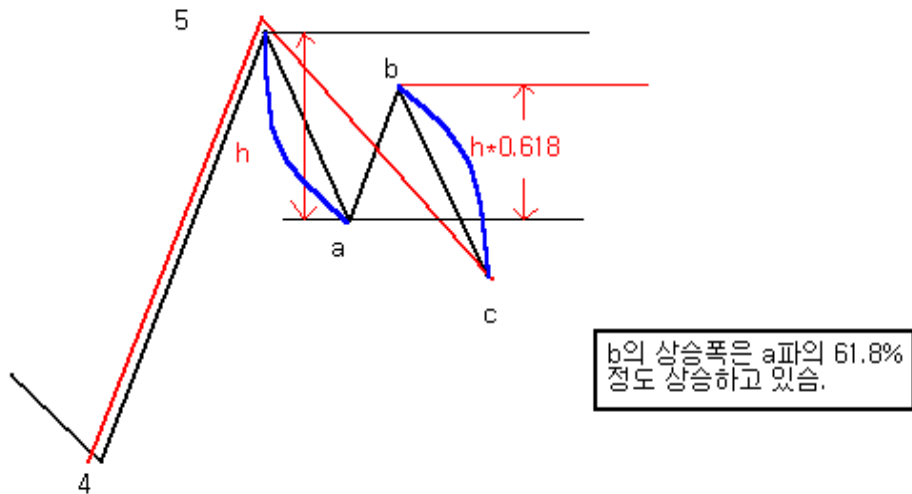
조정파동의 유형

1. 지그재그형

지그재그형은 5-3-5의 작은 파동을 갖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조정파동인 b 파동은 a 파동의 시작점 보다 낮은 a 파동의 61.8% 정도 상승한다. c 파동의 저점은

a 파동의 저점보다 낮게 형성되며 길이는 a 파동과 비슷한게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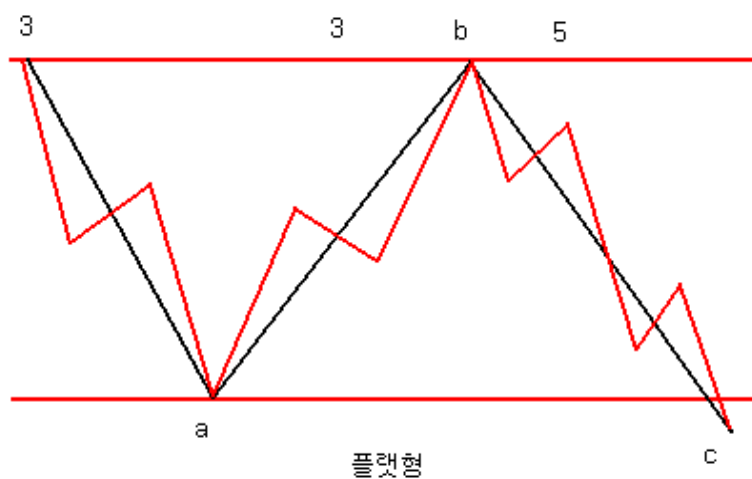
— 길이가 비슷하다.



2.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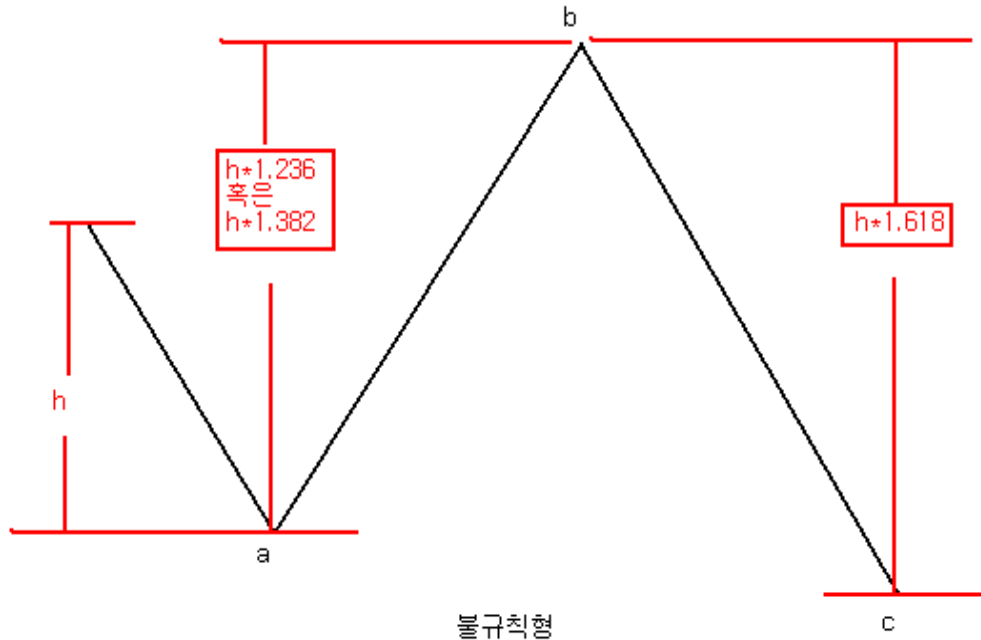
플랫폼형은 a.b.c 세개의 파동이 하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세개의 파동이 각각 3-3-5의 작은 파동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b.c 파동의 길이가 a 파동의 길이와 비슷하나 c 파동은 a 파동보다 다소 낮을수 있다.

b파동은 a파동의 시작점을 100% 회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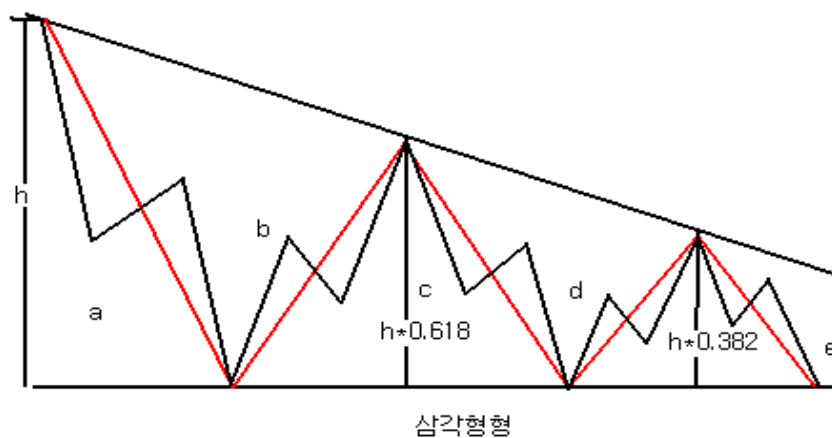
3. 불규칙 조정형

불규칙 조정형은 플랫폼이 변형된 형태로서 b.c 파동의 길이가 모두 a 파동의 길이보다 길며, b 파동은 a 파동의 1.382배 혹은 1.236배, c 파동은 a 파동의 1.618배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삼각형

삼각형은 각각 세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된 파동이 모두 다섯개 모인 형태로 각각의 파동들은 서로 61.8%만큼 조정되는 형태로 나타낸다.



22. 보조차트의 이해 (1)

22-1 OBV(On Balance Volume)

OBV(On Balance Volume)

1. 개념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함을 전제로 하여 거래량 분석을 통해 주가를 분석하는 전형적인 거래량 지표중의 하나이며, 전체시장이 매집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분산단계에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알아보는 데 있다.

특히, 전체시장이 큰 변동없이 정체상태에 있을때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이와 유사한 지표로 VR(Volume Ratio) 을 들수 있다.

2. 작성방법

- ㄱ)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가의 전일종가가 전일에 비해 상승한 날의 거래량은 더하고, 하락한 날의 거래량은 뺀다.
- ㄴ) 주가가 전날과 같은 날의 거래량은 계산에서 제외시킨다.
- ㄷ)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있는 경우에 그날의 종가가 시가(이론주가)보다 높으면 당일의 거래량 전량을 가산하고 낮으면 거래량 전량을 감산한다.
권리락 주가가 시가와 당일 종가가 같을때에는 ㄴ)과 같다.
- ㄹ) OBV선이 직전의 고점을 상회하면 U표시를 직전의 저점을 하회하면 D표시를 한다.

3. 적용

- ㄱ) 주가가 하락함에도 OBV가 보합권에 있으면 시장 내부에서는 주가 하락에 따른 매집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주가는 조만간에 상승 한다.



ㄴ) 주가가 상승함에도 OBV가 이전의 고점아래에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으면 주가 상승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하려는 분산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주가는 조만간에 하락한다.



ㄷ) 주가가 보합권에서 파동운동을 반복하고 있을때 OBV선의 고점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향후의 강세장을 예고하는 것이고 OBV선의 고점이 하락하면 향후 장세의 약세를 예고하는 것이다.



⇒ U표시는 단기적인 매입신호를 나타내고, D표시는 단기적인 매도신호를 나타내는데, U표시 다음에 D표시가 나타나거나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반전할 소지가 있다.

ㄱ) OBV선의 형태

. 양선형: OBV선상의 고점이 계속해서 이전의 고점보다 높아지는 형태
--- 장기추세가 양선형인 경우 도중에 D표시가 나타나면 매입신호로 인식.

. 음선형: OBV선상의 저점이 계속해서 이전의 저점보다 낮아지는 형태
--- 장기추세가 음선형인 경우 도중에 U표시가 나타나면 매도신호로 인식.

. 중선형: 일정한 범위내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형태.

22-2 VR(Volume Ratio)

VR (Volume Ratio)

1. 개념

VR 은 OBV지표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래량 지표로서 현재의 시장 상황이 과열인지 아니면 침체인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OBV는 기준일을 어느날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발생하며 개개의 국면을 분석하기에는 용이 하더라도, 절대수치 자체로서는 시세를 판단하거나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누적차수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을 하락일의 거래량과 비교 함으로써 시세의 강약을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 VR 이다.

2. 해석

VR이 100%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주가 상승시의 거래량이 주가 하락시의 거래량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날의 거래량이 하락하는 날의 거래량에 비해 다소 많기 때문에 평상시의 VR은 150% 정도를 나타내거나 강세장에서는 주가 상승시의 거래량이 하락시의 거래량 보다 더욱 많아 3배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험적으로 볼때 VR이 450% 이상이면 과열로 판단 매도에 나설수 있으며 75% 이하이면 바닥권으로 보고 매수 준비에 임할수 있다.

물론 VR도 여타 지표와 병행하여 분석하여야 실패의 확률이 적다.

3. 계산방법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 합계를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 합계로 나눈 것인데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보통 1개월(20일)로 계산한다.

계산방법은 미국식과 일본식 두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미국식 VR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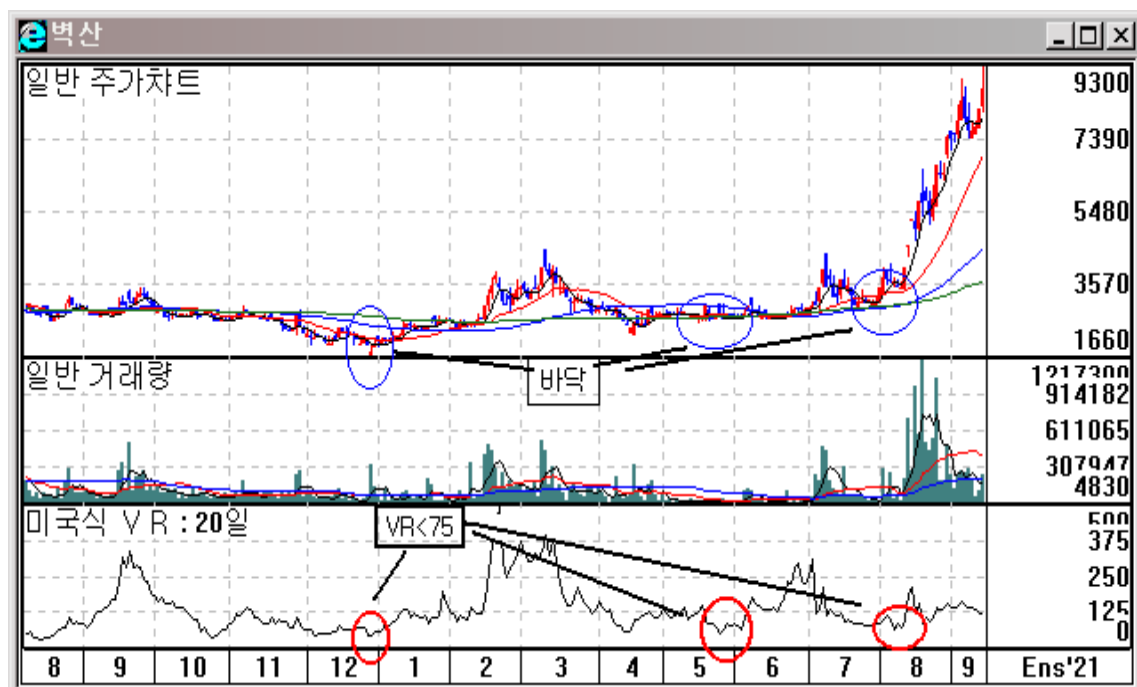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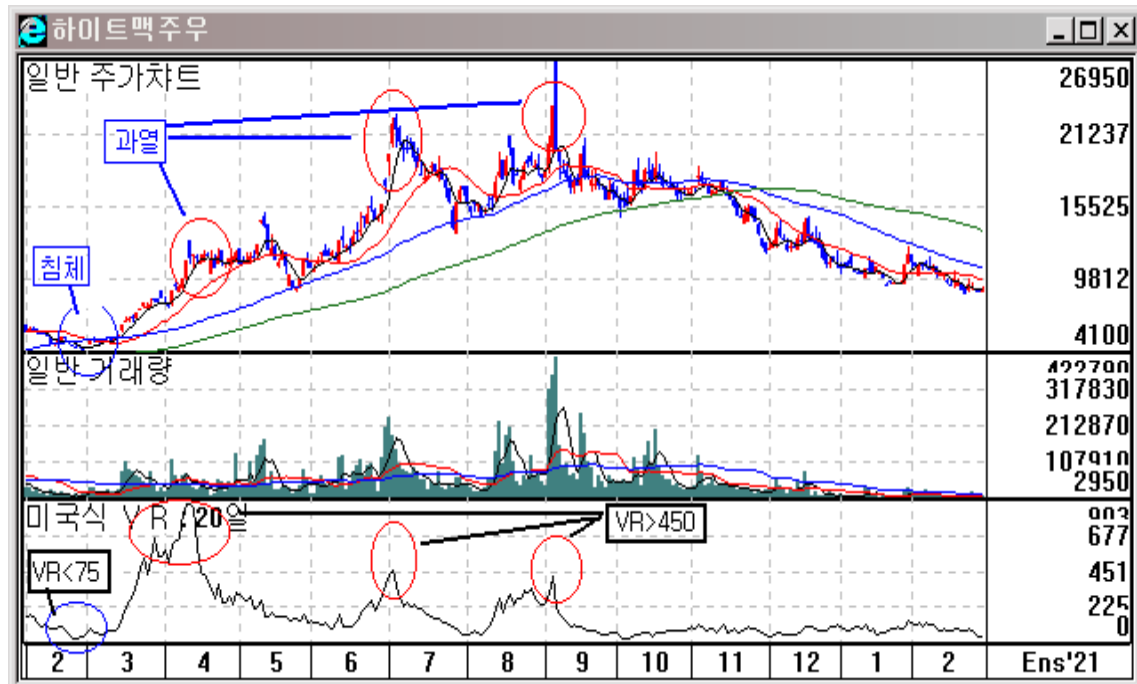
설명 하고자 한다.

미국식VR =(과열 450%, 침체 75%)

주가상승일 거래량의 합계 + 주가변동이 없는 거래량 합계 * 0.5 * 100 주가 / 주
가하락일 거래량 합계 + 주가변동이 없는 거래량 합계 * 0.5

일본식VR =(과열 85%, 침체 15%)

(주가 상승일 거래량 합계 - (주가하락일 거래량합계 + 보합일 거래량 합계)/거래
량 합계) * 100



22-3 Equivolum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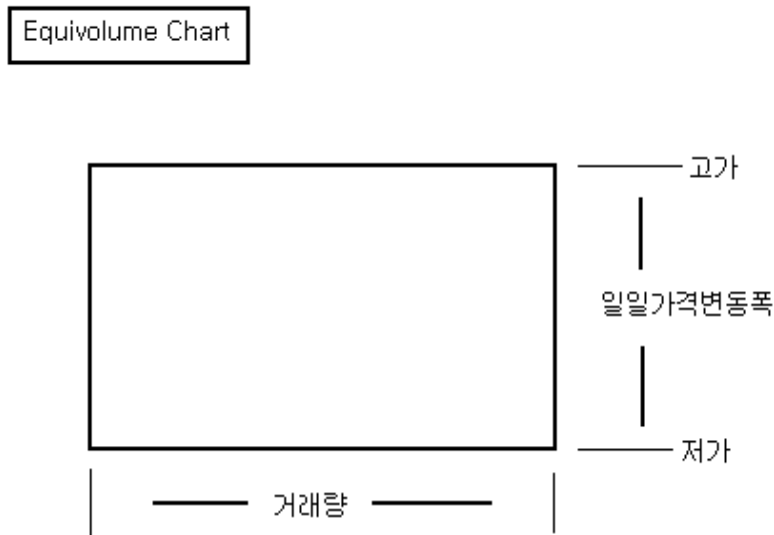
Equivolum Chart

1. 개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을 동시에 파악할수 있도록 고안한 차트로서, 거래량과 주가에 모두 초점을 맞춰 향후 장세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2. 작성 방법

특정일의 고가, 저가, 거래량을 하나의 상자(직사각형)로 나타낸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고가, 저가는 상자의 높이를 거래량은 직사각형 상자의 넓이를 나타낸다. 이때 사각형의 크기는 곧 당일의 시장 크기이다.



3. 분석방법

1) 키다리형(narrow day)



주가의 움직임이 용이한 형태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매수세나 매도세 중 어느 한쪽 세력이 강한 날에 나타난다.

2) 정사각형



주가의 움직임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주가가 쉽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3) 뚱보형



과다물량 공급으로 인한 과공급상태를 나타낸다. 매도세가 강해 조만간 하락장세를 예고함, 이는 주가가 상승국면에서 경계매물에 의하여 많이 출현되나 만일 바닥권에서 이형태가 나타나면 강한 매집세력 등장으로 향후 주가상승을 예상할수 있다.

22-4 등락주선 (ADL:advanced-decline-line)

등락주선(ADL)

1. 개념

등락주선은 시장의 폭(the breadth of market)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시장의 자금이 어느정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출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시장의 내부세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원리는 상승종목수에서 하락종목수를 차감하여 매일 누적할 경우, 상승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시장내부로의 자금유입이 활발함을 의미하고, 하락종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반대로 자금유출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와같이 자금유입 수준을 통해 주가가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유용한 선행지표이다.

2. 작성방법

일정기준일 이후의 주가상승 종목수와 하락종목 수의 차이를 매일 산출 누계한 것

이며, 이것을 선으로 이은것이 등락주선이다.

3. 분석기법

일반적으로 등락주선은 주가의 선행 지표로서 이해되고 있는데, 그 분석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종합주가지수가 등락주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
- 2) 종합주가지수가 등락주선과 함께 상승하는 경우는, 시세의 기초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이다.
- 3) 종합주가지수가 등락주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경우는, 시세가 반락할 징후 이다.
- 4) 종합주가지수가 등락주선의 하락과 함께 하락하는 경우는, 시세 기초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이다.
- 5) 종합주가지수가 이전의 고가에 접근하고 등락주선이 그 고가 당시의 수준 아래에 있는 경우는, 눈앞의 단기적인 주가 전망은 약세가 예상된다.
- 6) 종합주가지수가 이전의 고가에 접근하고 등락주선이 그 고가 당시의 수준위에 있는 경우는, 눈앞의 주가예측은 강세가 예상된다.
- 7) 종합주가지수가 앞의 저가에 접근하고 등락주선이 그 저가 당시의 수준 아래에 있는 경우는, 눈앞의 주가전망은 약세가 예상된다.
- 8) 종합주가지수가 앞의 저가에 접근하고 등락주선이 그 저가 당시의 수준위에 있는 경우는, 눈앞의 주가전망은 강세가 예상된다.



사례: 종합주가지수

등락주선은 5월말에 시작하여 7월 초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7월 중순이후 하락세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8월 중순이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락주선은 9월 중순에 와서 수평으로 움직임을 보여, 조만간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풀이 된다.

22-5 등락비율(ADR: Advanced-Dcline-Ratio)

등락비율(ADR)

1. 개념

등락비율도 등락주선과 마찬가지로 상승종목수와 하락종목수를 이용하여 작성한 지표로서, 하락종목수에 대한 상승종목수의 비율로 정의 된다.

등락주선이 전체시장의 대세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인 반면, 등락비율은 특정시점에서의 시장상황을 나타낸다.

마치, 거래량 지표중 VR이 OBV와는 달리 하락한 날의 거래량에 대한 상승한 날의 거래량을 비율을 이용하여, 특정시점에서의 시장상황을 파악하려는 것과 유사하다.

즉, 등락비율이 100%라 함은 상승종목수와 하락종목수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등락비율의 상승은 시장인기의 상승을, 등락비율의 하락은 시장인기의 하락을 의미한다.

2. 작성방법

일정 기간동안 매일의 상승종목수를 하락종목수로 나누어 백분비를 구하고 그것을 이동평균하여 도표화 하면 된다. 즉 최근 1개월간, 매일의 백분비를 합계해서 20으로 나눈 것이다.

등락비율 = (분석대상기간동안의 상승종목수(20일)/분석대상기간 동안의 하락종목수(20일)) *100(%)

3. 분석기법

등락비율이 100%수준 이라는 뜻은 상승종목과 하락종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110%라면 상승종목수가 하락종목수보다 10%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90%인 경우는 하락종목수가 상승종목수보다 10% 많은 것을 나타낸다.

등락비율의 분석기법은 등락주선의 기법과 거의 같은데, 등락비율의 상승은 시장인기의 확대를 나타내고, 등락비율의 하락은 시장인기의 저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등락비율에 의한 매매기법은 아래와 같다.

1) ADR > 125% --- 경계지대로서 매도시기

2) ADR > 75% --- 안전지대로서 매입시기

3) 등락비율의 절정은 주가의 절정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22-6 투자심리선

투자심리선

1. 개념

투자심리선은 최근 10일간(2주간) 동안 주가가 상승한 날의 백분율을 이용, 이 값의 크기에 의해 주식시장에 대한 인기의 변화를 판단함으로써 현재의 시장상황이 과열상태인지, 침체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투자지표이다.

시장의 상황이 정보에 의하여 좌우 된다고 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정보의 변화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 되었다.

투자 심리선은 호재 혹은 악재의 발생이 시장가격에 즉시 반영 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지표의 등락을 이용하여 시장의 인기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매매시점을 잡는 데도 활용가능 하다.

2. 작성방법

먼저 10일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항상 최근 10일동안의 전일대비 상승일수를 누계해서 이것을 백분비로 나타낸다. 실제 매일의 계산에 있어서 11일전의 주가변화가 제외되고 새로운 주가변화가 첨가 됨으로써 새로운 10일간의 전일대비 상승일수가 계산된다.

3. 해석방법

75% 이상 : 과열 경계지대(매도)

25%-75% : 중립지대

25% 이하 : 침체, 안전지대(매수)

4. 투자심리선 사례



22-7 이격도

이격도

1. 개념

주가는 이동평균선 으로부터 멀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 오려는 경향이 있다.

즉 주가가 이동평균선 보다 높아 괴리도가 커지면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하향하게 되고, 낮으면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상향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가와 이동평균선 과의 괴리도를 측정하여 지표화 한것이 이격도 인데, 당일의 주가를 이동평균주가로 나눈 백분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이격도가 적정 범위로 부터 이탈하면 추세전환 시점으로 인식하여 매매시점 포착에 이용할 수 있다.

2. 작성방법 및 적용

이격도 = (당일의 종가 / 당일의 이동평균주가) * 100

이격도가 커지면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 오려는 반복운동을 되풀이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 이러한 반복운동은 대체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범위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범위를 초과하면 단기적인 매입 또는 매도시점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상승국면시

20일선 - 98%수준 매입, 106%수준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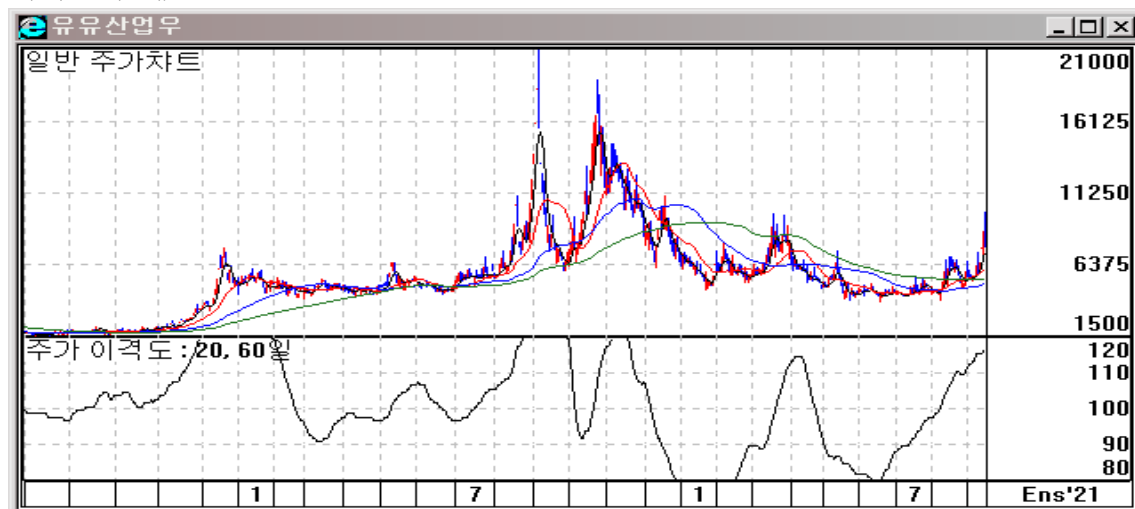
60일선 - 98%수준 매입, 110%수준 매도

*하락국면시

20일선 - 92%수준 매입, 102%수준 매도

60일선 - 88%수준 매입, 104%수준 매도

이격도의 예



23. 보조차트의 이해 (2)

23-1 MACD(Moving Average Convergence & Divergence)

MACD

1. 개념

MACD는 장단기 이동평균선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매매신호를 포착하려는 기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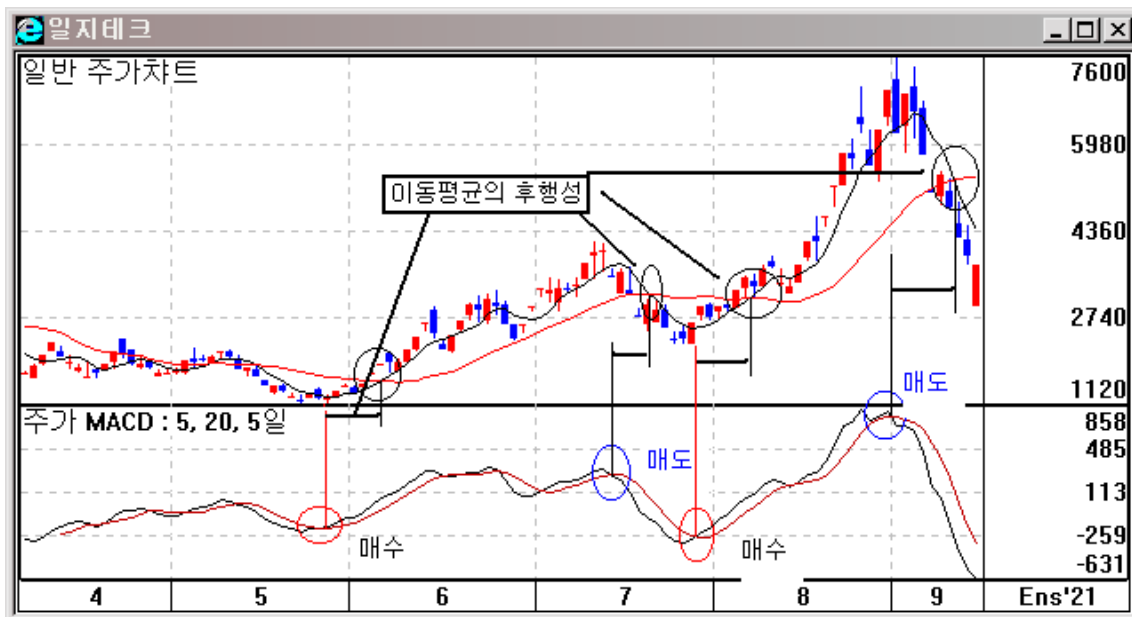
MACD의 기본원리는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 (divergence),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져(convergence) 어느시점에서 서로 교차하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 두개의 이동평균선이 멀어지게 되는 가장 큰 시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교차점을 매매신호로 보는 이동평균 기법의 단점인 시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장기 지수이동평균선과 단기 지수이동평균선의 벌어진 차이를 산출하여 작성된 MACD곡선과 이 MACD 곡선을 다시 지수이동 평균선으로 산출하여 작성한 시그널 곡선이 교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호를 매매신호로 본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MACD의 선행성의 예



2. 작성방법

MACD = 단기지수 이동평균 - 장기지수이동평균

signal(시그널) = n일 MACD지수이동평균

각지수 이동평균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할수 있다.

금일 지수이동평균 = 전일 지수이동평균 + $a \times (\text{금일 종가지수} - \text{전일 지수이동평균})$ $0 < a < 1$

예) MACD(5, 20, 5) — 단기이동평균 5일, 장기이동평균은 20일 signal은 MACD의 5일 이동평균을 사용한 경우의 MACD

3. 분석방법

1) MACD곡선과 SIGNAL곡선의 교차

이 방법은 MACD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으로서 MACD곡선이 signal 곡선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할 때를 매도시점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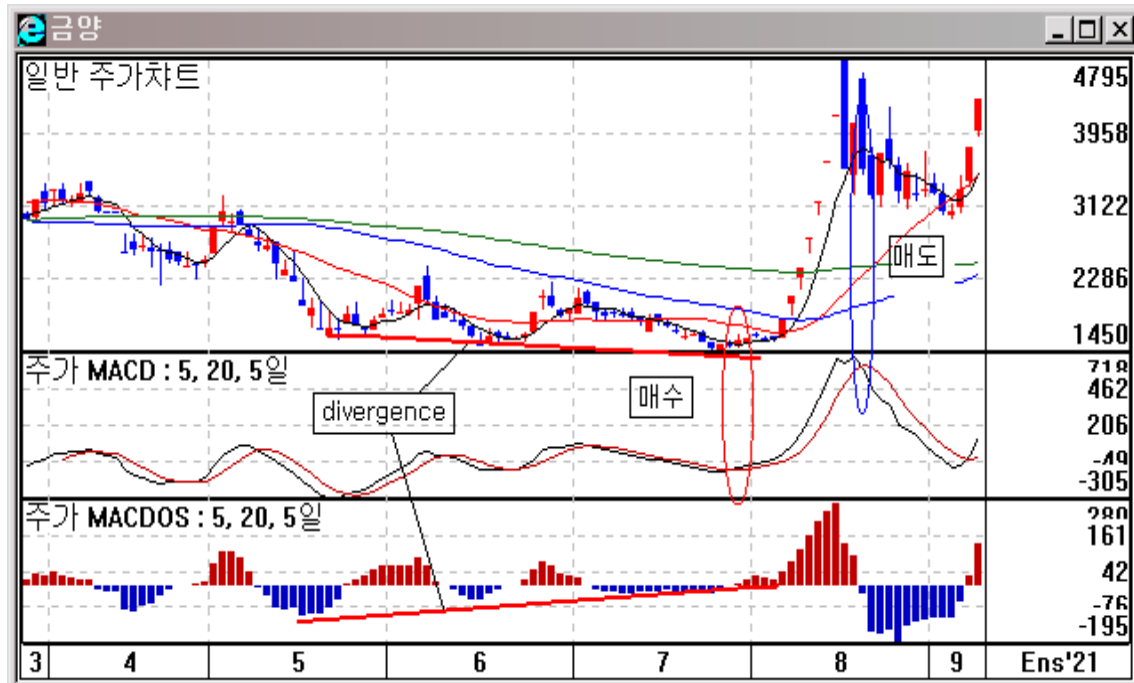
2) MACD 오실레이터

기존의 매매신호 방법을 한단계 발전시켜 MACD값에서 SIGNAL의 값을 빼서 산출한 MACD 오실레이터 움직임으로 매매신호를 찾는 기법.

MACD 오실레이터 값은 시장가격의 움직임을 미리 선도하는 경향이 크므로, 어제의 MACD 오실레이터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면 매매신호로 인식해야 한다.

시장가격과 MACD 오실레이터 사이에서 divergence가 발견되면 추세반전이 강력히 예견 될 수 있다.

오실레이터의 값이 제로(0)선을 돌파할 때도 추세전환이 임박했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하는데, 마이너스에서 제로선을 돌파하여 플러스로 변하면 상승추세로의 전환으로 보고, 플러스에서 제로선을 돌파하여 마이너스로 변하면 하락추세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MACD 오실레이터가 0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가 상승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하향 돌파하는 시기가 하락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0선을 돌파하기 전이라도 오실레이터의 추세가 반전되어 급격히 상승 또는 하락하는 시기가 나타나면, 즉시 매매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MACD 오실레이터가 시장가격의 움직임을 미리 선도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가격과 MACD 오실레이터 사이에서 divergence가 발견되면 추세 반전의 예고 신호로 보아야 한다.

4) 응용방법

이동평균기간을 달리 설정함에 따라 매매시점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나 확실한 것은 이동평균기간이 길수록 매수로부터 매도하기 까지의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이동평균기간이 짧을수록 그 반대현상이 발생 한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할 경우 속임수의 발생확률이 높으나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면 속임수를 최대한 줄일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다소 장기간의 주식보유를 원한다면 이동평균기간을 길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단기위주의 매매를 원하는 투자자는 다소 속임수를 감수 하더라도,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3-2 SONAR 모멘텀 차트(Sonar Momentum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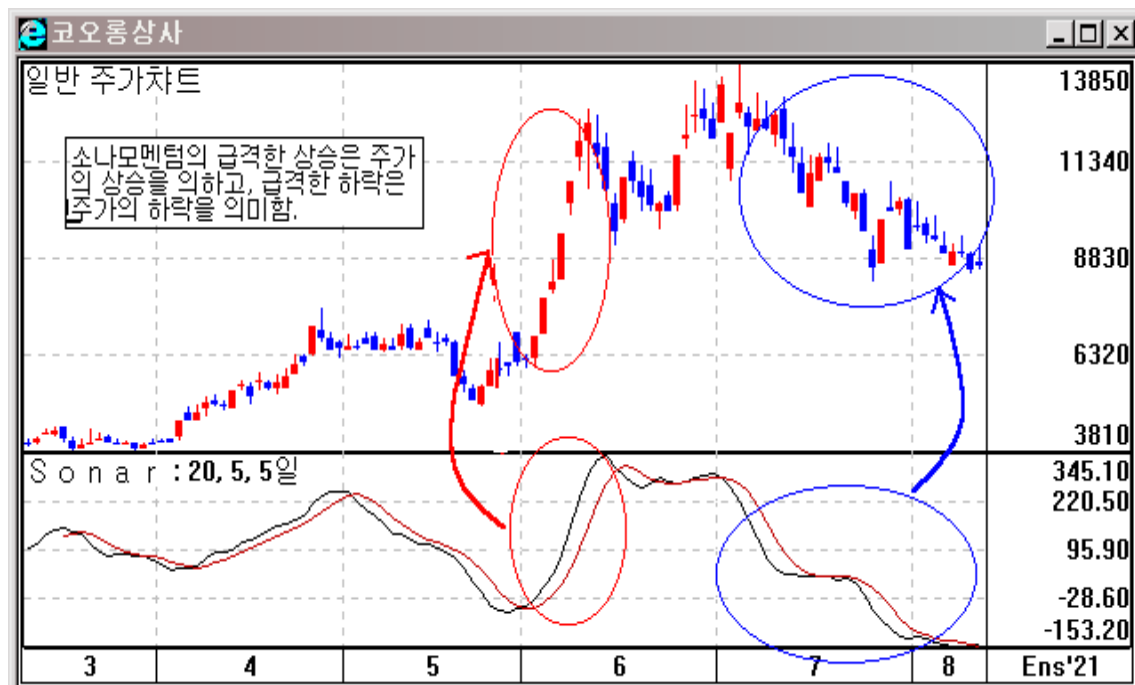
소나차트

1. 개념

SONAR모멘트 차트는 주가사이클의 전환점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시계열 차트이다.

모멘텀이란 기하학적으로 곡선위의 한점의 기울기를 경제학적으로는 한계변화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SONAR모멘텀은 기울기의 변화를 통해 주가의 상승.하락의 강도를 사전에 알수 있게 해준다.

즉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기울기가 둔화되면 향후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울기가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나 모멘텀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주가의 기울기 혹은 한계변화율로 정의 되며 따라서 소나 모멘텀의 급격한 증가는 주가의 가파른 상승을 의미하며 하락은 주가하락을 뜻한다. 또한 소나 모멘텀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어 조만간에 주가의 전환이 임박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2. 작성방법

지수 이동평균 산출공식

$$\text{금일 지수이동평균} = \text{전일 지수이동평균} + a * (\text{금일종가지수} - \text{전일지수이동평균})$$
$$0 < a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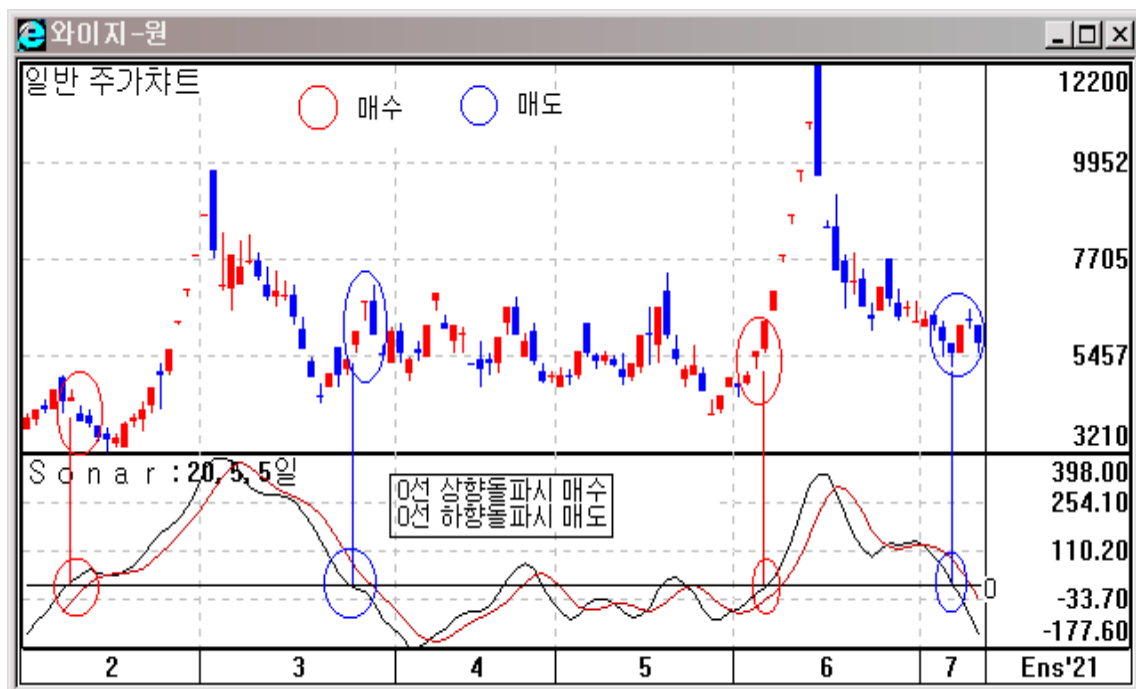
소나 모멘텀 산출공식

$$\text{금일의 } n\text{일 소나 모멘텀} = \text{금일 지수이동평균} - n\text{일 전 지수이동평균}$$

3. 분석방법

1) 주가와 지수이동평균이 어긋남 없이 그려진 경우 모멘텀의 제로(0)선이 교차하는 점이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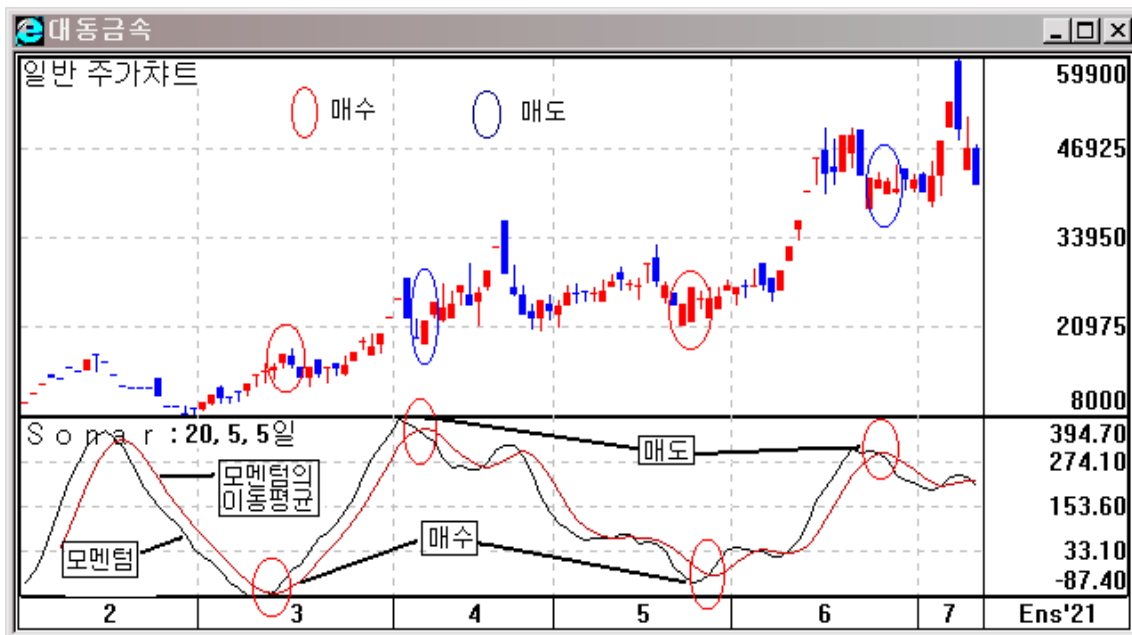
즉 모멘텀이 음에서 제로(0)선을 교차하여 양으로 전환하면 매수신호가 되고, 역으로 양에서 제로(0)선을 교차하여 음으로 전환되면 매도신호가 된다.



2) 주가의 급격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수이동평균선이 주가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모멘텀이 제로(0)선을 교차하는 시점을 매매시기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멘텀과, 모멘텀 이동평균이 교차하는 점을 매매전략에 이용한다.

즉 모멘텀이 모멘텀 이동평균 아래에서 위로 교차했을 경우 매수신호로, 모멘텀이 모멘텀 이동평균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했을 경우는 매도신호로 간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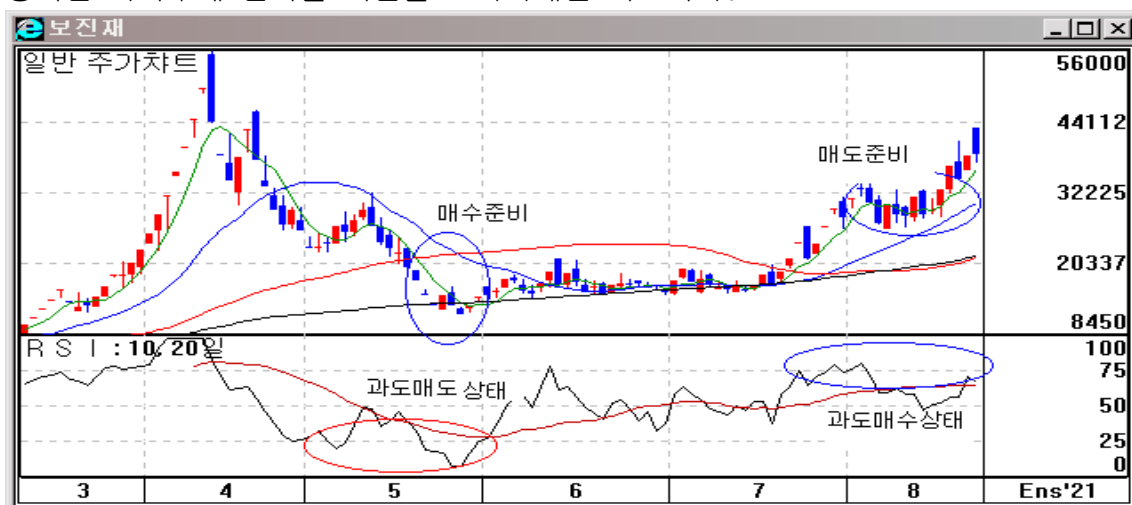
23-3 RSI(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강도지수)

상대강도지수(RSI)

1. 개념

가격의 추세전환을 포착하고자 하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 추세가 전환 되는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추세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면 과도한 상승추세시 매입을 자제할 수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매도에 나설 수 있고 반면에 과도한 하락추세시 매도를 자제하고 도리어 매수에 나설수 있는 등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SI를 개발하였다.

RSI는 현재의 가격추세가 얼마나 강력한 상승추세 인지 혹은 하락추세 라면 얼마나 강력한 하락추세 인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2. 작성방법

$RSI = n\text{일 간의 주가상승폭 합계} / ((n\text{일간의 주가상승폭 합계} + n\text{일간의 주가하락폭 합계})) * 100$

n일은 5-10일 또는 20일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3. 적용

75% 이상 : 강세

50% 정도 : 보통

25% 이하 : 약세로 판단함.

1) RSI값에 의한 판단법

RSI의 값은 이론적으로 100 에서 0 까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한범위가 70 에서 80 까지 형성되고, 하한범위는 20 에서 30 까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RSI의 값이 70 이상으로 나타나면 과도 매수 상태로 판단하여 매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RSI의 값이 30 이하로 나타나면 과도 매도 상태로 판단하여 매수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RSI는 시장가격을 일차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2차적 지표이므로, 단순히 RSI가 70 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거나 3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즉, RSI의 값이 주는 신호를 중요한 주의신호로 인식하고 다른 기술적분석 기법에 의해 추세의 반전을 확인한 후 매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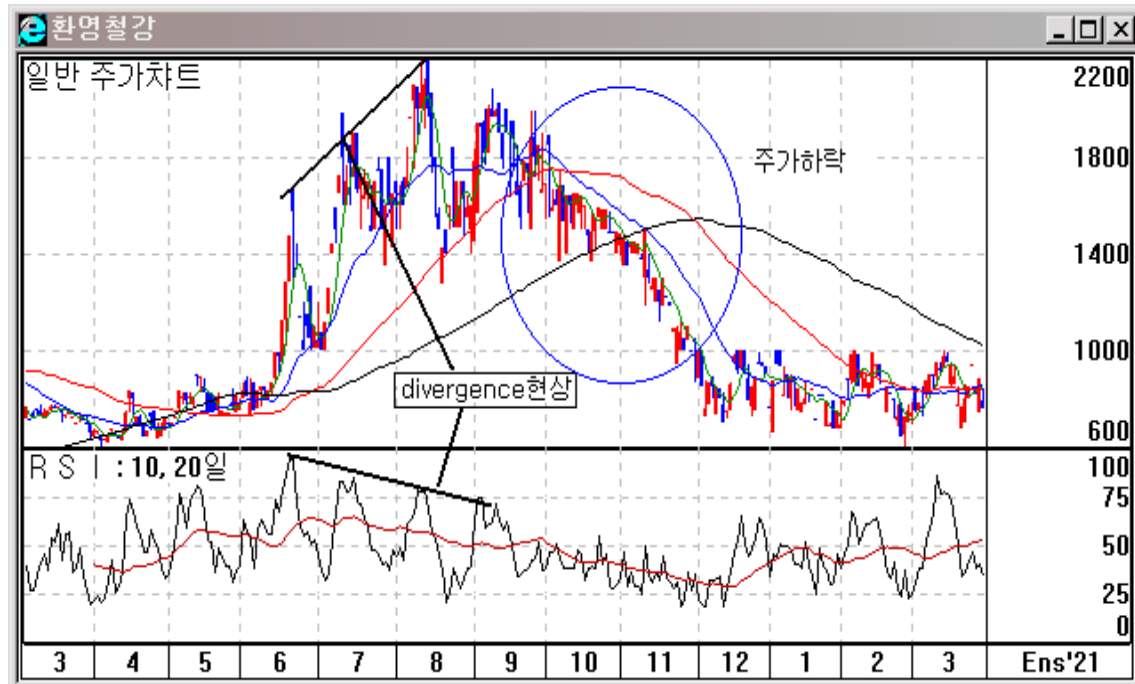
2) RSI와 시장가격의 Divergence

Divergence는 시장가격의 움직임과 RSI의 움직임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RSI의 값이 30 이하로 결정될 때나 또는 70 이상에서 결정될 경우, Divergence가 나타나면 이는 강력한 추세반전 신호로 간주된다.

주가 하락시의 divergence 현상의 예



주가상승시 divergence현상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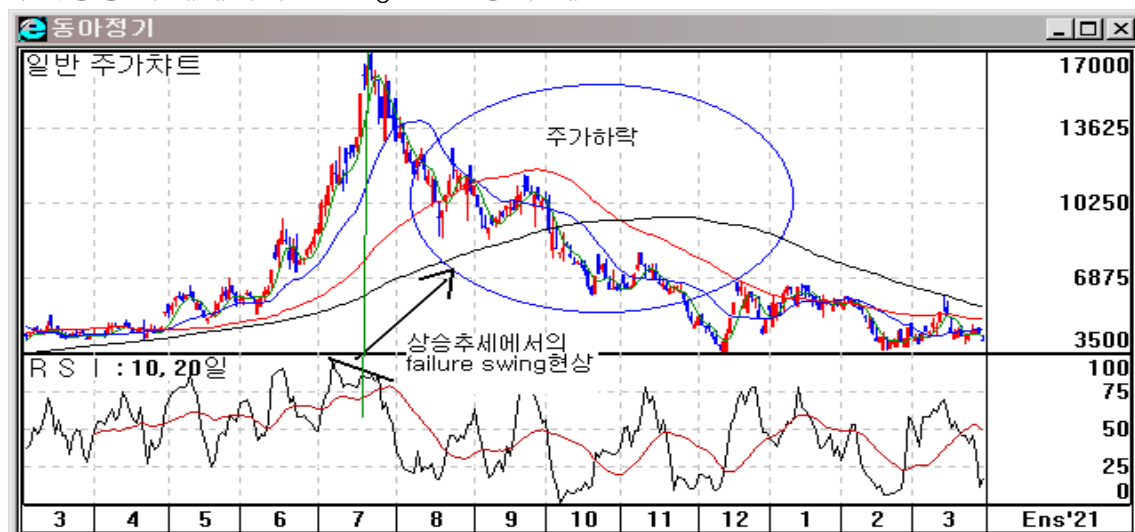
3) RSI의 failure swing

failure swing 이란 RSI의 값이 직전에 나타났던 최고점 또는 최저점 기록을 초과하지 못하고 진행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RSI의 값이 70 이상일때 top failure swing 이 나타나거나, RSI의 값이 30 이하일때 bottom failure swing 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가격의 추세반전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을때 rsi의 값이 직전 최저수준을 돌파하지 못하고, 상승하다가 직전 고점을 상향돌파하는 순간이 매수 시점이 된다.

주가상승 추세에서의 divergence현상의 예



주가하락 추세에서의 divergence현상의 예



23-4 스토케틱 차트(Stochastics chat)

스토케틱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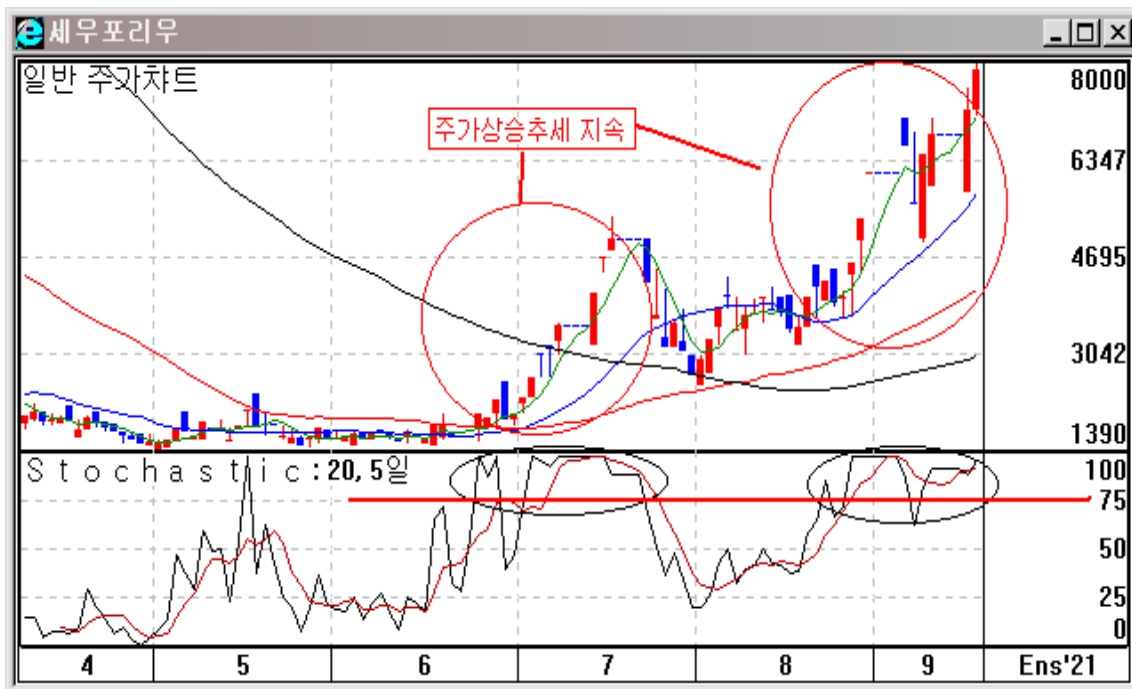
1. 개념

시장가격 움직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로, 백분율 %K와 %D를 이용하여 가격변동을 예측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으면 매일매일의 종가가 최근에 형성된 최고가와 최저가 중에서 최고가 부근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으면 매일매일의 종가가 최근에 형성된 최고가와 최저가 중에서 최저가 부근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가가 가격변동폭의 최고가 부근에서 형성되면 상승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종가가 변동폭의 최저가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다면 하락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원리에 따라 최근 시장가격 변동폭과 당일 형성되는 종가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K선 및 %D선(%K를 3일로 이동평균한 값)을 이용하여 가격변동을 예측하려는 것이 스토케틱(Stochastics) 기법이다.



2. 작성방법

$$\%K = (C - L5 / H5 - L5) * 100$$

단, C : 당일의 종가

L5: 최근 지난 5일중의 최저가

H5: 최근 지난 5일중의 최고가

$$\%D = (H3 / L3) * 100$$

EKS, H3:(C - L5)의 3일간 합계

L3:(H5 - L5)의 3일간 합계

3. 분석방법

%K의 값이 100 을 나타내면 당일의 가격이 최근 5일동안 형성된 가격중 최고가 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K의 값이 0 이면 최근 5일 동안 형성된 가격중 최저가 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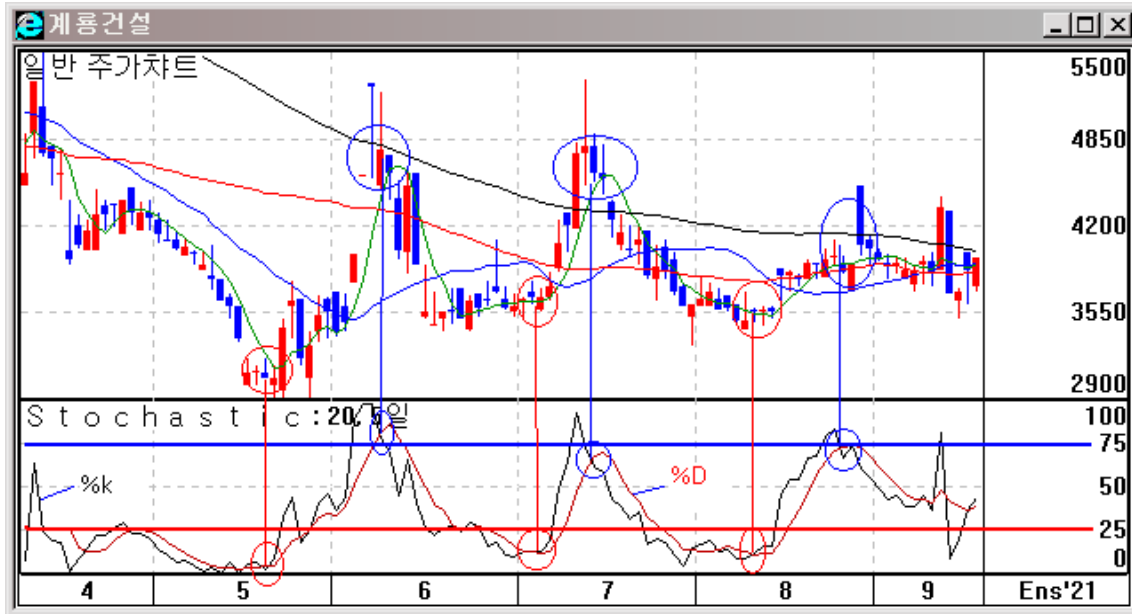
보통 %K의 값이 70 이상이면 시장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고 간주하고, %K 값이 30 이하이면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K를 구하는 기간이 위 공식에서 5일간으로 했으나 꼭 이 기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정해진것은 아니다.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짧으면 %K의 움직임이 사소한 시장가격의 움직임에도 너무 과민하게 변동되게 되고, 반대로 기간이 너무 길면 %K의 움직임이 가격변동에 둔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1) %K선과 %D선의 교차

스토케틱을 이용한 기본적인 매매기법은 %K선과 %D선의 상호 교차 시점을 매매신호

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K선이 %D선을 위에서 아래로 돌파하는 시점을 매도신호로 보고, 반대로 %K선이 %D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시점을 매입신호로 보는데 %K선과 %D선이 서로 교차할 때마다 매매신호로 간주 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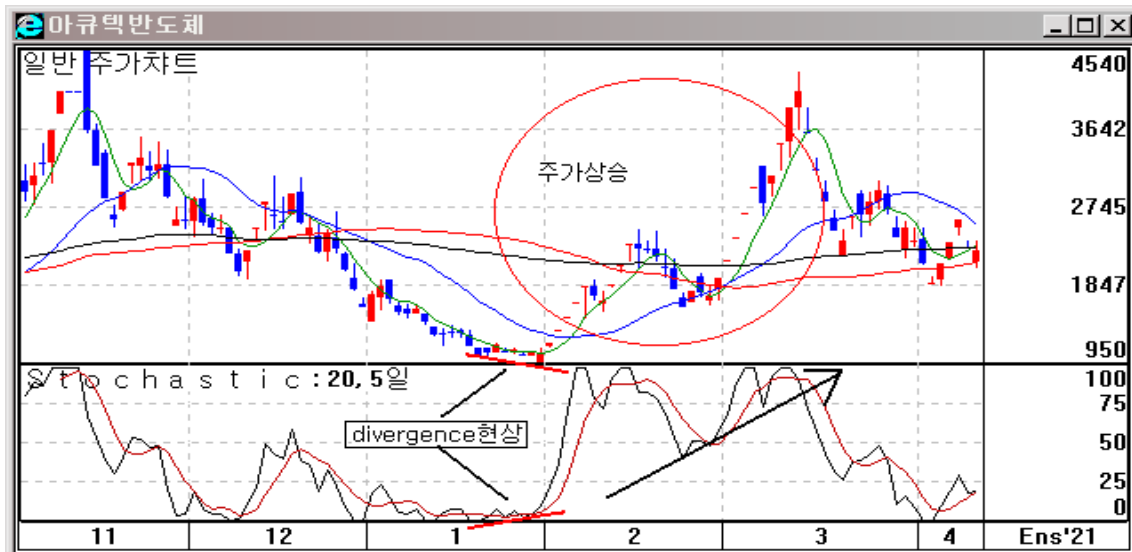
즉, 과도 매수상태라고 볼 수 있는 %K의 값이 80 이상일 때 %K선과 %D선이 서로 교차 한다면 확실한 매도 신호로 보며, 반대로 과매도 상태로 인식될 수 있는 %K의 값이 20 미만일 때 %K선과 %D선의 교차신호는 확실한 매수 신호로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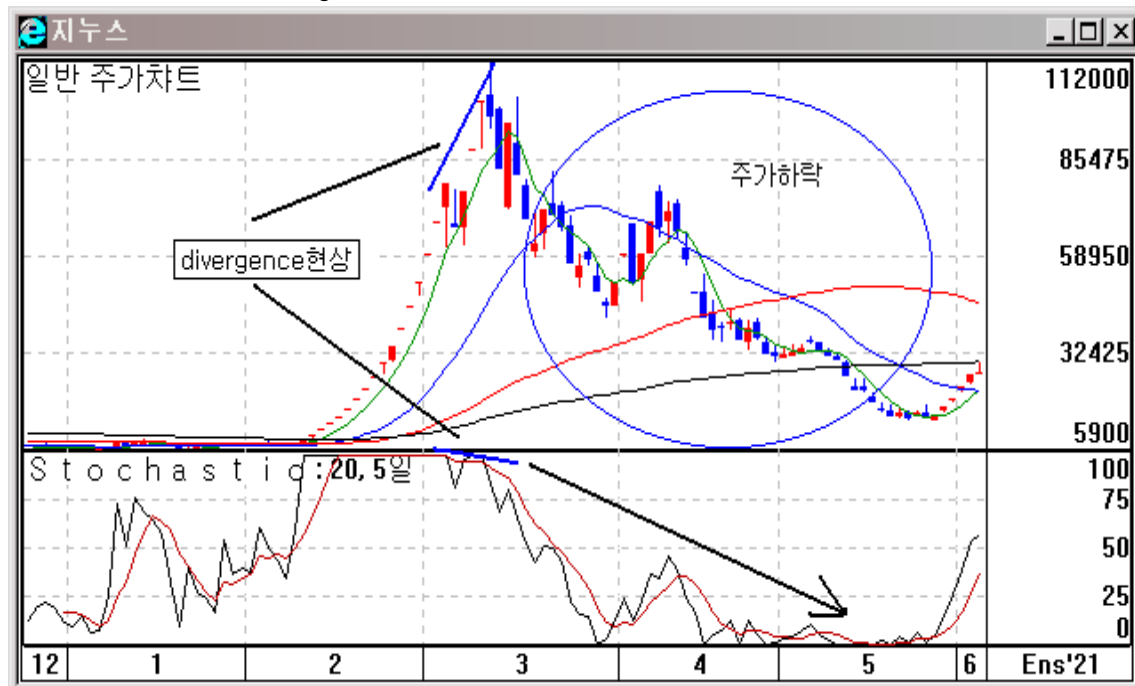
2) Divergence

Divergence란 시장가격의 움직임과 지수인 스토케틱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는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스토케틱의 방향으로의 추세가 전환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격과 %D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Divergence는 가장 유력한 추세전환 신호이다.

하락추세 에서의 divergence현상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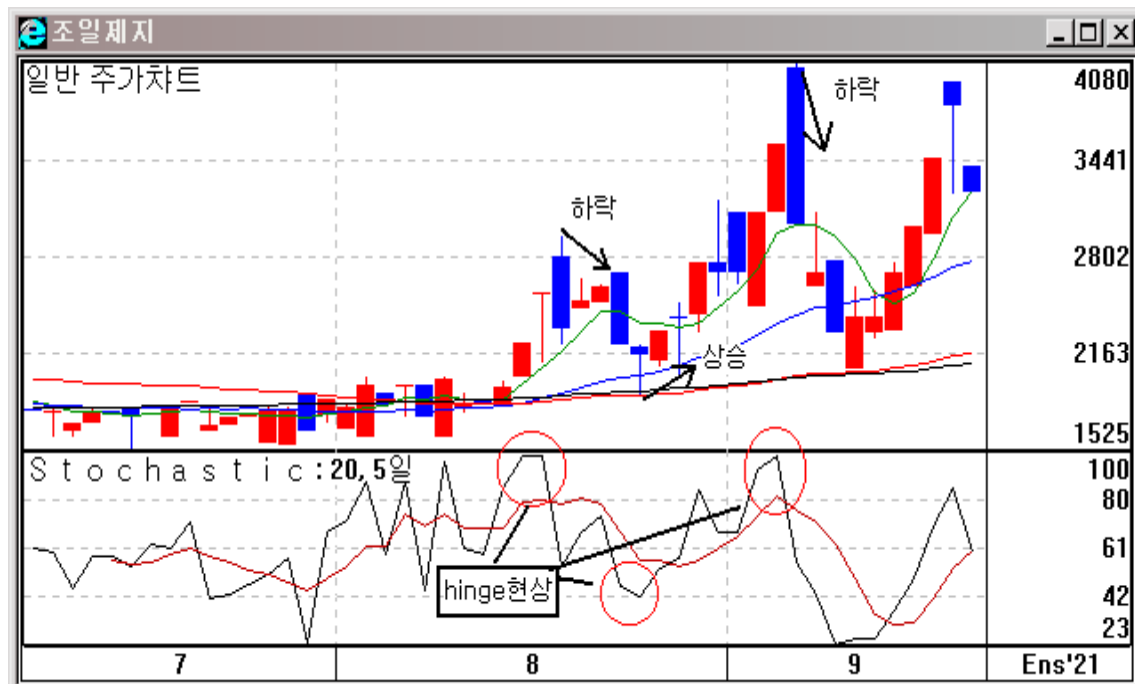
상승추세에서의 divergence현상의 예



3) Hi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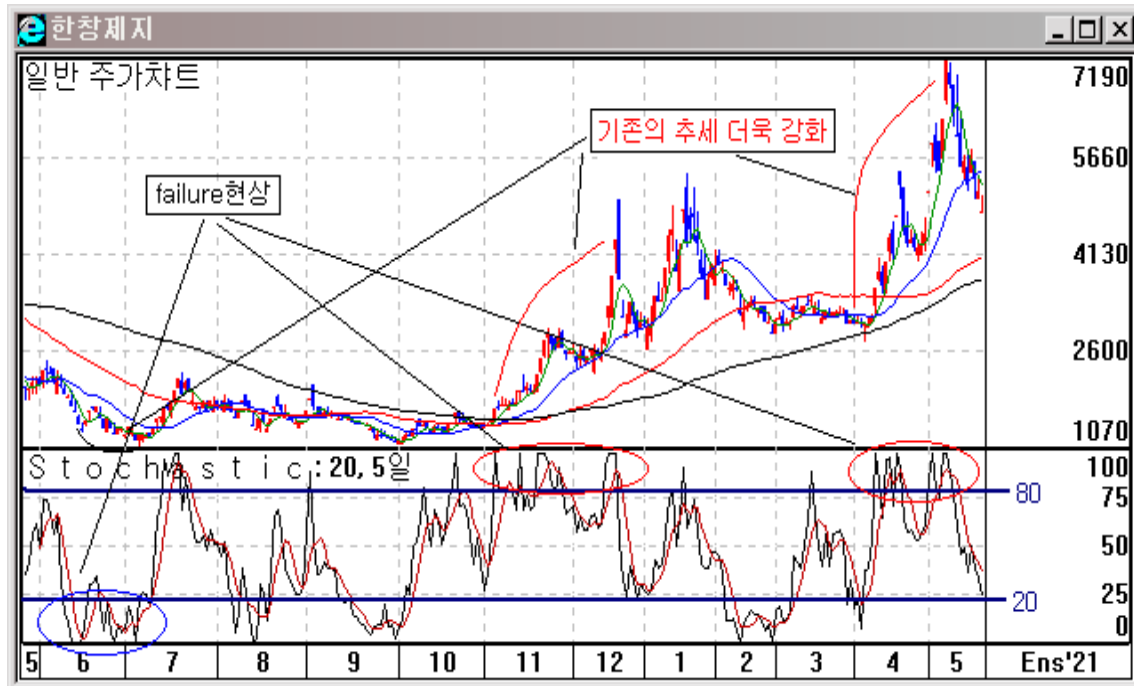
상승 혹은 하락추세로 움직임이 갑자기 둔화될 때가 있는데 이때를 hinge라고 한다. hinge가 발생하면 일단 스토케틱의 추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주로 스토케틱의 움직임의 막바지에 hinge가 발생하지만 이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당장 가격의 움직임이 반전되는 것은 아니다.



4) Failure

%K의 값이 80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상태에서 %K선과 %D선이 서로 교차하여 맴 신호가 발생된 후 얼마 되지 않아 %K선과 %D선이 다시 교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를 failure라고 한다. failure가 나타나면 기존의 추세가 더 강화 된다고 보아야 한다.



23-5 A/D Line (Accumulation/Distribution Line)

A/D Line

1. 개념

A/D Line은 다음 공식에서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가감된 거래량을 누적하여 계산한 지표로서 OBV를 개량하여 만든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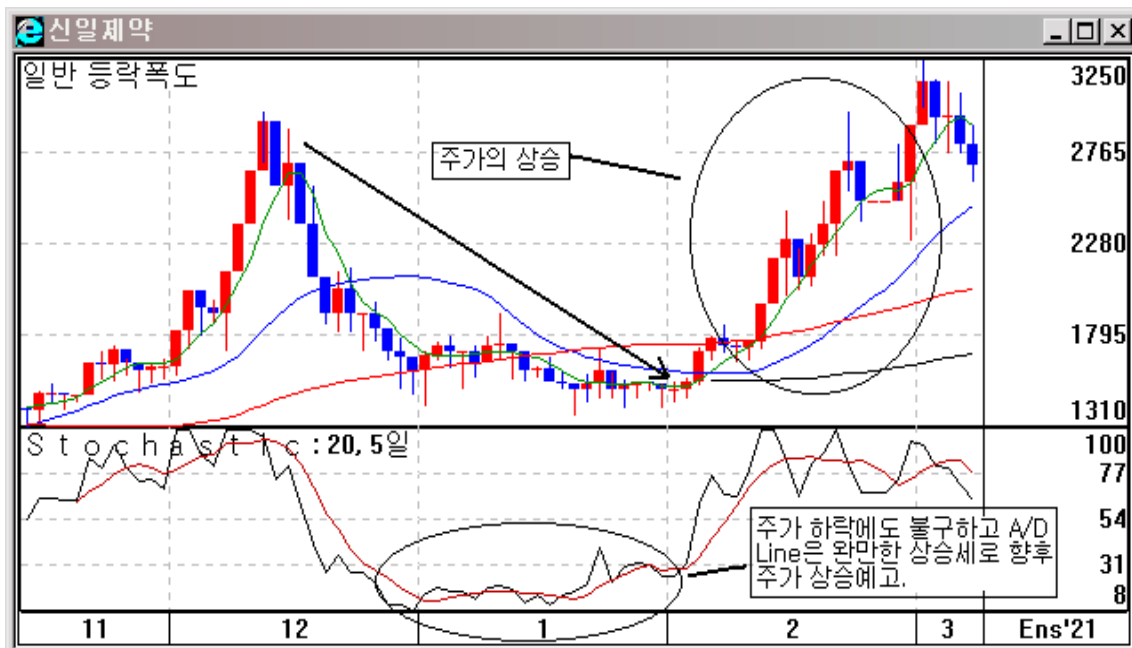
$A/D = ((C - L) - (H - L)) / (H - L) * V + \text{전일 A/D Line지수}$

C: 종가 H: 고가 L: 저가 V: 거래량

2. 적용

A/D Line 은 매집 또는 분산을 분석 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 후 계속 상승하는데 반하여, A/D Line 은 상승세가 기울어 반전되면 가격의 반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가격이 급하락 하거나 지속적인 약세를 보인 후에도 계속 하락 하는데 반해, A/D Line은 하락을 멈추고 반전하게 되면 가격의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



23-6 ROC (Price Rate of Change)

R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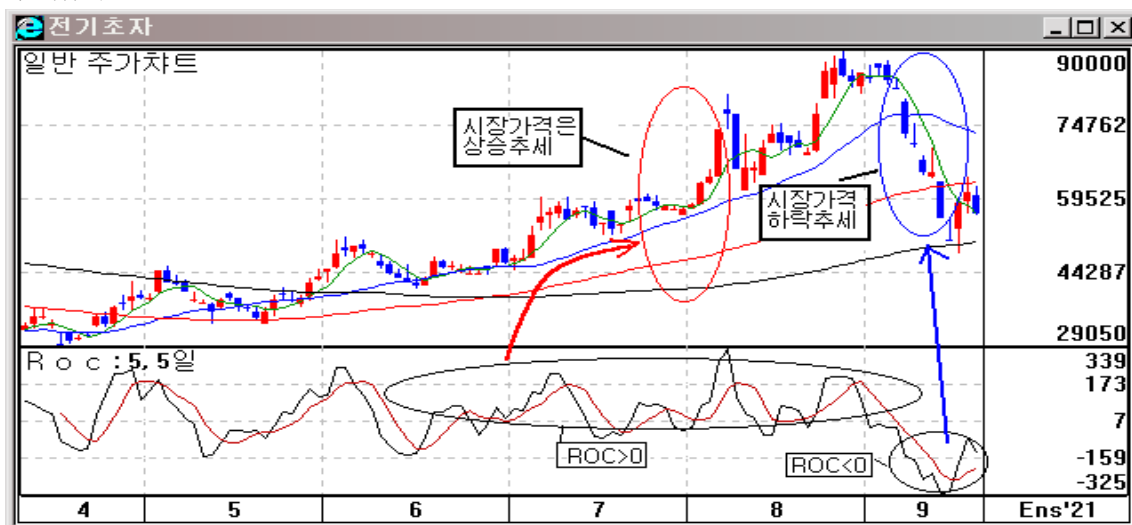
1. 개념

ROC는 과거 일정시점의 가격과 대비한 현재가격의 상승률로서 추세의 반전을 알려 주는 지표로 사용되며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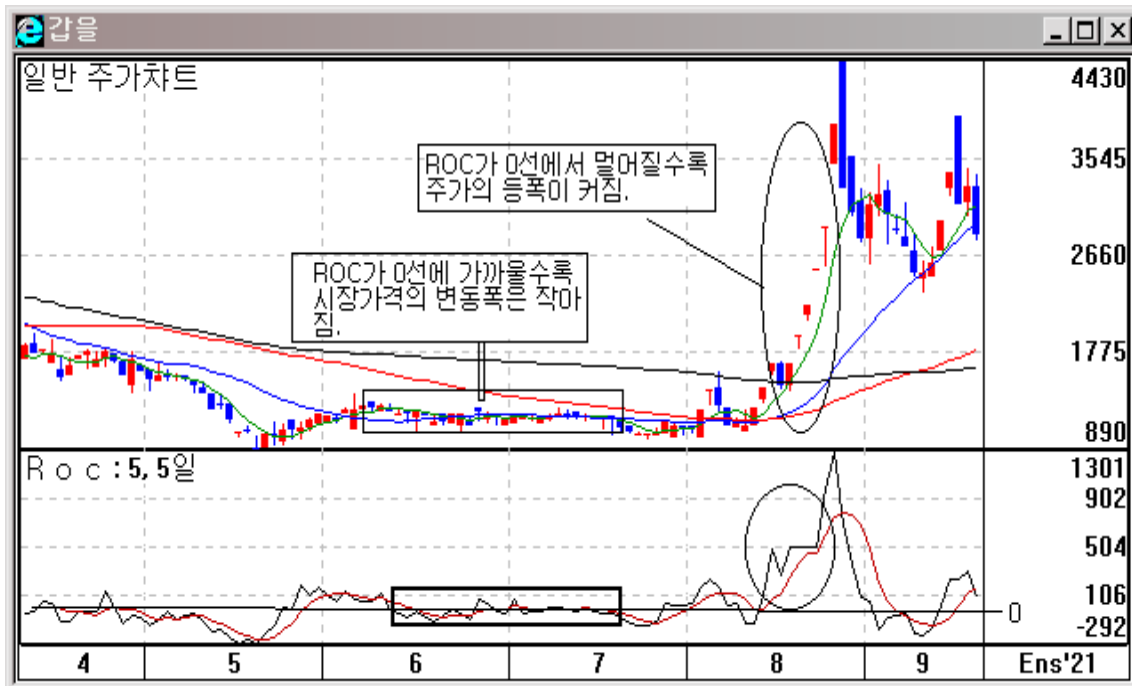
$$ROC = (\text{금일종가} - N\text{일전의 종가} / N\text{일전의 종가}) * 100(\%)$$

2. 시장가격의 움직임과 관련한 ROC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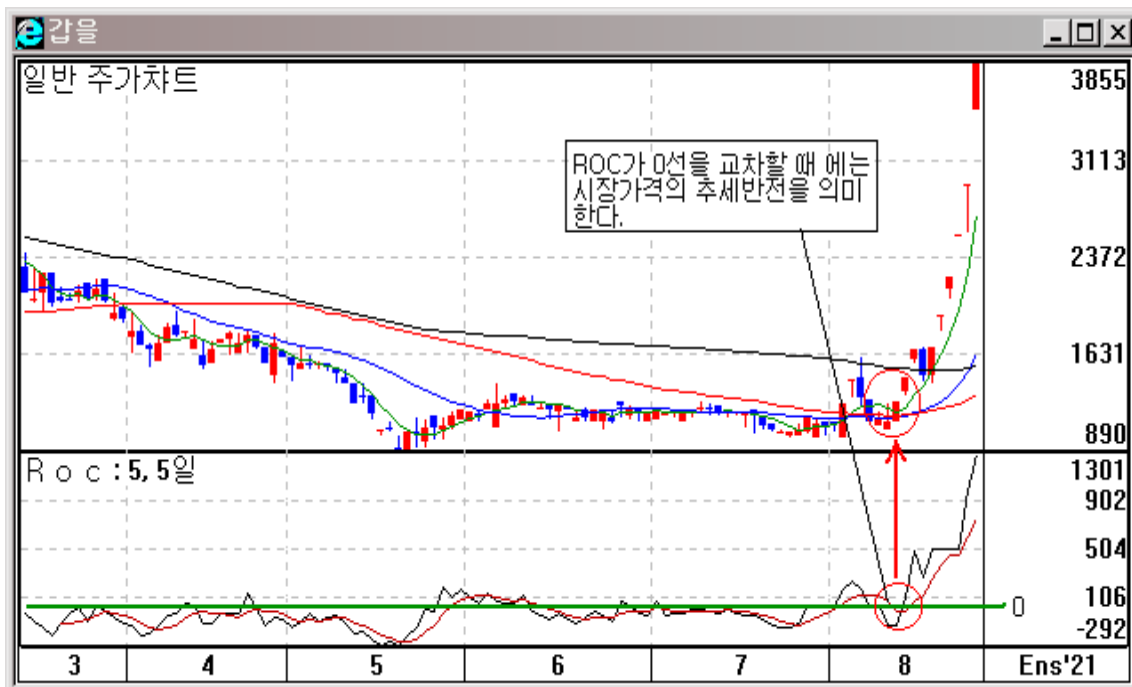
1) ROC의 움직임이 0선 위쪽에서 나타나면 시장가격은 상승추세에 있다고 보고, 반대로 ROC의 움직임이 0선 아래쪽에서 나타나면 시장가격은 하락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ROC의 움직임이 0선에 접근할수록 시장가격의 변동폭은 작아지며, 반대로 ROC가 0선에서 멀어질수록 시장가격의 변동폭은 커진다.



3) ROC가 0선을 교차할 때는 시장가격의 추세가 반전됨을 의미한다. ROC가 0선 아래에서 위쪽으로 상향 돌파하면 시장가격은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 반전하게 되고, 반면 ROC가 0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하면 시장가격은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 반전하는 것을 나타낸다.



3. ROC를 이용한 매매기법

1) 0선을 이용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신호 인식법

ROC 선이 0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 매수신호로 보고, ROC선이 위에서 아래로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본다.

23-7 Envel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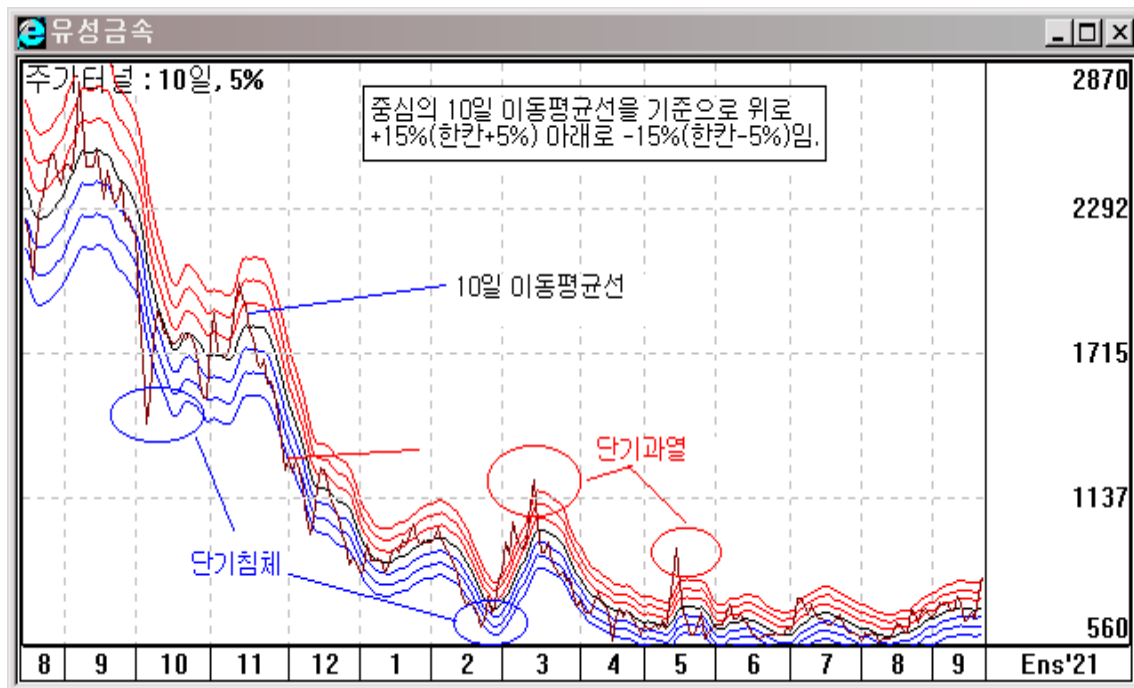
Envelope

1. 개념

주가의 이동평균선에 나란히 이동평균선의 n%선을 그린 것을 이동평균선에 대한 Envelope선이라 하며, 이 선을 각각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결국 가운데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n%의 상한선과 -n%의 하한선을 나타낸것과 동일 하므로, 주가가 이 상하한선 밖에 놓일경우 과열 혹은 침체로 판단, 매매에 이용할 수 있다.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통상 10일 이동평균선에 5%선을 사용한다.



2. 이용방법

1) 가운데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서 매입, 바로 아래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전략과 동일하다.

즉 주가와 이동평균선간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하여, 매수. 매도시점을 포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2) Envelope선을 벗어난 후 다시 Envelope선과 만나는 시점을 매매시점으로 잡거나 지지선 부근에서 매입,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 한다.

23-8 MAO(Moving Average Oscill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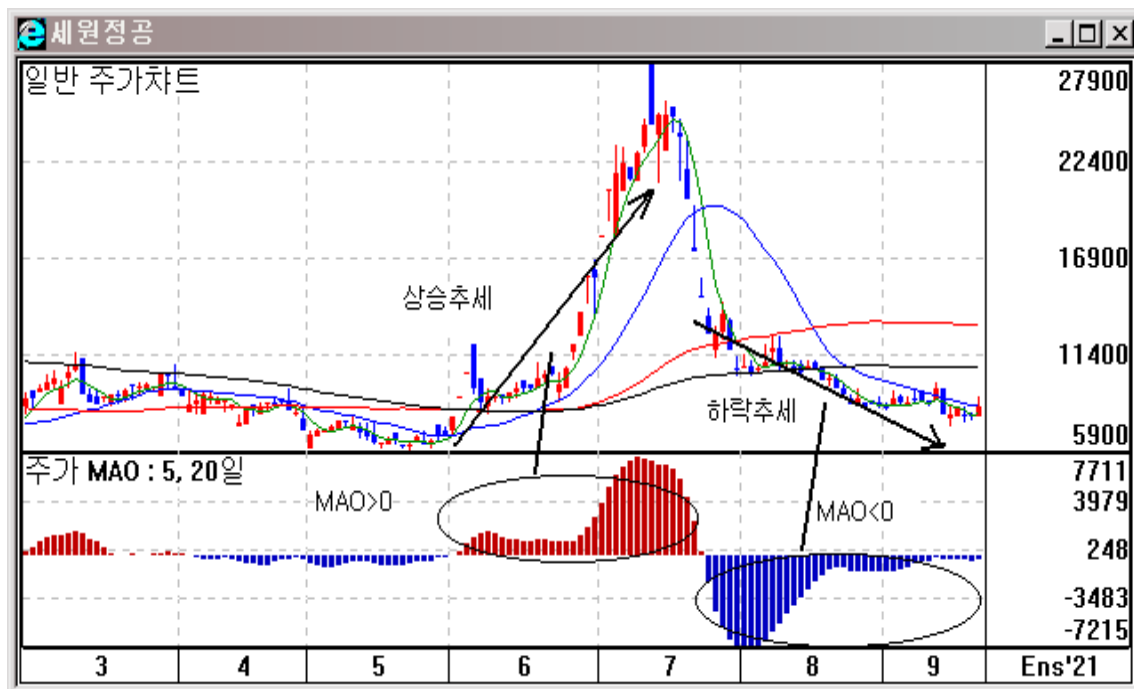
MAO

1. 개념

이동평균 오실레이터는 단기 이동평균값에서 장기 이동평균값을 뺀 차이를 차트상에 나타내어 현재 시장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세분석기법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이동평균 오실레이터 = 단기이동평균값 - 장기이동평균값

오실레이터 값이 양의 값을 유지하면 현재의 시장가격이 상승추세에 있고 음의 값을 유지하면 시장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오실레이터가 0선을 교차하는 시점은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는 시기이므로 두 이동평균선의 교차에 의한 매매시점의 포착이 가능하다.



2. 이동평균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매매기법

1) 0선 교차를 이용한 매매

이동평균 오실레이터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오실레이터 값이 0선을 교차하는 시점에서 매매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오실레이터의 값이 음의 값을 유지하다가 0선을 상향돌파하여 양의 값으로 바뀌는

순간이 매매시점이 되고 양의 값을 유지하다가 0선을 하향돌파하여 음의 값으로 바뀌는 순간이 매도 시점이 된다.

2) 오실레이터의 움직임 분석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두 이동평균의 차이가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현재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였다고 급락한 경우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격 추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언젠가는 그 추세가 꺾이는 것이 주가의 속성이기 때문에, 오실레이터의 움직임이 일단 지속적인 상승(하락) 움직임을 멈추고 하락(상승)의 기미를 보였다면, 그것은 현재의 시장가격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

3) 시장가격과 오실레이터의 Divergence

Divergence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의 추세와 투자 판단지표의 추세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에는 머지않아 투자 판단지표의 추세방향으로 시장가격이 전환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동평균 오실레이터와 시장가격 움직임과의 관계에서도 Divergence가 나타나면 이는 중요한 추세전환 신호로 간주 할 수 있다.

4) 0선 돌파의 실패

오실레이터가 0선에 접근하다가 0선 돌파에 실패했거나 돌파는 했으나 즉시 0선이 다시 역으로 돌파되는 경우, 지금까지의 가격추세를 바꾸려는 세력이 기존의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세력에 의해 압도되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가격 추세가 오히려 강화 된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23-9 DMI(Directional Movement Indicators)

DMI

1. 개념

DMI는 주식시장의 추세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이다.

2. 해석요령

주식시장은 크게 추세시장과 비추세시장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그것이 강세 시장이든 약세 시장이든, 주가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며 진행되는 주가의 형태를 추세시장 이라 하고, 일정한 방향이 없이 횡보하는 시장을 비추세 시장 이라 한다.

시장이 이와 같을때 DMS를 이용하여 지금의 시장이 추세시장인지 아닌지, 또한 상

승추세인지 하락추세인지, 그리고 추세시장과 비추세시장의 전환을 확인 하는데 사용한다.

PDI 그리고 MDI

PDI(Plus Directional Indicators)는 PDM(Plus Directional Movement)와 TR(True Range)로 구분할 수 있는데

PDM은 금일의 고가와 전일의 고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금일의 고가가 높으면 양(+)의 값을 가지며 금일의 고가가 전일의 고가보다 낮으면 제로 값을 갖는다.

또한 MDI는 PDM과 TR로 구할 수 있는데 PDM은 금일의 저가와 전일의 저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금일의 저가가 전일의 저가보다 낮으면 양(+)의 값을 가지고 금일의 저가가 전일의 저가보다 낮을 경우 PDM과 PDM을 비교해서 절대값이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값은 제로로 둔다.

TR(True Range)

TR이란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금일의 고가와 저가를 비교해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가격이 얼마나 변화 되었는지를 수치화 하는데, TR은 다른 세가지 중 큰 값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금일의 고가와 금일의 저가와 차이, 금일 고가와 전일종가와 차이, 금일의 저가와 전일종가와 차이 는 물론 위의 수치는 절대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계산된 TR로 PDM, PDM 을 나누면 이것이 PDI, MDI 값을 가지는데 각각의 가격 움직임 중에서 PDI, MDI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 바로 DMI 지표이다.

이 지표 개발자인 Welles Wilder는 위에서 설명한 지표의 기간을 14일로 기본화 하였으며 PDI(통상 +DI)가 MDI(통상 -DI)를 상향돌파 할때를 매수 시점으로 사용하고 PDI가 MDI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시점으로 추천한다.

또한 DMI지표의 특징으로 Whipsaw(톱니)현상으로 나타나는 빈번한 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extreme point rule 을 제안 하는데 (extreme point rule란 PDI 와 MDI가 교차하는점)

예를들어 PDI가 MDI를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신호를 보이더라도 주가가 매매신호가 나온날의 고가를 종가가 넘어설때까지 매수를 기다려야 하며, 만약 매수 신호가 나온날의 고가 갱신을 종가가 실패할 경우 매수 유보나 매도를 지속하여야 한다.

반대로 PDI가 MDI를 하향돌파하면 매도신호로 분석하며, 만약 매도 신호를 보이더라도 종가가 그 신호일 저가를 하회할 때까지 매도를 유보 하여야 하며, 저가를 하향 돌파 실패시 보유나 매수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

그래프 예



24. 어떤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

'대박'들이 말하는 성공투자 가이드

별 중의 별, 대박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윤 마이다스에셋 펀드매니저 등 내노라하는 대박들은 12일 서울경제신문이 마련한 상담에 참석,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몸에 맞는 투자기법 발굴을 강조했다.

일단 다양한 주식투자 기법을 접해보되 자신에게 맞는 기법 하나만을 찾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기법을 섞을 경우 혼선을 빚어 오히려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투자가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 ; 이 름 / 직 업 / 고수익 전적

@ 박정윤 /마이다스에셋 펀드매니저 / 한화 1차 대학부(2,191%), 2차 일반부(2,057%), 웨르파게임(1,823%) 1등

@ 나윤호 / 전업투자자 / 대우 모의 수익률게임 2등(1만8,778%)

@ 권정태 / 매크로머니이사 / 하이텔 실전수익률게임 네차례 우승, 연 2,000% 달성

@ 김대화 / 전업투자자 / 메리츠증권 수익률게임 1등(1,371%)

@ 이형복 / 한투 펀드매니저 / 웨르파 수익률게임 1등(206%)

@ 이용철 /하나증권 압구정 지점장 / 증권사이트 아크론 수익률게임 1등

@ 조대행 / 동원증권 부평지점 / 스타트레이드 1등

@ 김동윤 / 국민대 학생 / 인터넷 증권투자, 현대증권 5회 대학생부, 대우 모의투자 1등

▲오현환기자=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군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신화적인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박들은 불우이웃돕기에 관심이 많은 등 상당히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투자자의 관심은 고수익을 낸 비결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나윤호=여기에 계신 분 모두 투자기법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박 겉핥기나 일과성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그 비결을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재가치 우량주, 저평가주 매수를 금과옥조처럼 말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오늘 매수한 뒤 내일 곧바로 팝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보다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윤=저는 기술적 분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무시하는 편이고 나름대로 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주의 있게 관찰합니다.

▲김대화=데이트레이딩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투자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지만 제가 보기엔 현재 장세에서 중장기투자를 하면 수익률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윤호=저는 데이트레이딩으로 재미를 못봤구요 예측도 안 합니다.

단기면 1일, 장기면 3일인 스윙트레이딩으로 큰 수익을 얻었죠. 차트는 저도 안 봅니다.

이론공부가 필요없다는 걸 아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있게 마련이죠.

저같은 경우는 상한가 치는 종목들에 무슨 공통점이 있나 하는 연구에 6개월을 매달렸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10개 가운데 서너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력의 개입이죠.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적분석 책을 만든 사람은 기관투자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는 이들을 이기기 어렵죠.

누구는 태권도, 누구는 유도룰 하는 것처럼 자신이 잘하는 방법을 하나 택한다면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나옵니다.

▲이용철=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주식은 패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올 패션을 만들어가죠. 저는 그것을 예측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으려 합니다.

새로운 테마와 주도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권정태=저는 예측해서 사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를 것 같다 싶어 사면 수익이 안나요.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움직일 때 사죠.

데이트레이딩은 안 합니다.

▲이형복=솔직히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기업분석 투자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보력이 동등하지 않다보니 적극적인 설명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 하나를 권하고 싶어도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과거처럼 주가가 밋밋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박들도 한템포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신문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화=저는 차트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시황이 들리면 곧바로 귀를 막습니다.

시황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건 큰손들이나 할 일이라 생각해요.

▲박정윤=저는 중장기투자를 안 합니다.

8년이나 해봤지만 수익을 올린 적이 없어요.

중장기투자가 가능한 건 삼성전자와 SK텔레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정태=중장기투자는 돌맹이 던져 맞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김대화=저 역시 중장기투자를 반대합니다. 다 잃고 절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중장기투자도 해야 하지만 모두 그것만 하라는 건 모순이 있습니다.

▲김동윤=저는 배당하는 종목에 관심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배당수익률이 없다고는 하지만 찾아보면 30% 정도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모 주식의 경우 부도 날 리스크가 없고 4년간 매년 배당했기에 샀습니다.
코스닥에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용철=대박들의 방식을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대박들이야 페인트 모션이 나오는 걸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죠.
오히려 장기투자보다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물렸을 때 조정인지 내려갈건지 판단하는 것은 저희도 어렵지 않습니까.

▲박정윤=저는 개인들에게 주식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어떨 때 보면 대주주를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정보 등 모든 어드밴티지의 90% 이상을 빼앗긴 상태에서 임합니다.
그러니 10%만 성공하죠.

▲나윤호=저도 다 잃고 지난해 밑바닥 생활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주식도 잃어야 배웁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공부하지 말라는 말과, 잃어도 될 만한 돈으로 투자하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실상 잃어도 될만한 돈으론 절대 못 배웁니다.
모순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 남기는 법 말고 손절매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HTS내 모든 기능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HTS에 전문가가 된 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정윤=HTS는 개인들에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젠 쪼개서 얼마든지 단기투자를 할 수 있죠.
사이버 트레이딩이 없었다면 이런 수익률을 낸 우리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 무기를 잘 활용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권정태=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기법은 없어요.
하나가 완벽히 될때까지는 다른 것은 안보는 게 좋아요.
자기에게 맞는 기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정윤=저도 유명한 대박들에게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것으로 완벽히 활용하기는 어렵더군요.
결국 내 스타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윤호=자신의 성격이나 나이 등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걸 택해야 합니다.
아주 빠른 사이클, 비교적 완만한 사이클 등 자기가 노려야 할 기법을 구분 짓는 게 중요합니다.

▲이형복=말씀하신 분들과 저는 다소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단기니 장기니 다 의미 없고 내 소신과 원칙이 중요하죠.

하지만 고수들의 방법을 일반투자자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과 원칙이 정답입니다.

▲김대화=주식투자에 영원한 승자란 없어요.
스타와 화려함만이 부각되는 건 좋지 않죠.
그 이면에 너무 많은 다수가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죠.

▲박정윤=지금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기업가치 설정이 먹히지 않는 방향으로 너무 오래 갔죠.
데이트레이딩이 정답인지 또 다른 게 있을른지는 몰라도,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척
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화=증권산업은 사실 키워야 하는 중요한 산업이죠.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고 솔직히 공개해 확산시켜야 합니다.
주식시장 개방시 국제간 투자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5. 다른사람은 어떻게? (1)

박정윤 마이다스에셋 펀드매니저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주식 투자자」

박정윤(朴廷胤 · 27) 마이다스에셋 펀드매니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평하는 수식어다.

박 펀드매니저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2개월 반동안 열린 한화증권의 제 1회 수익률 게임에서 대학부 1등 수익률 2,191%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3개월간 열린 2회 대회에서도 일반부 1등 2,057%의 수익률을 올렸다.

박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신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반동안 열린 전자신문-쉐르파 주최 수익률 게임에서도 1등 1,823%의 수익률을 거뒀다.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영향을 받는 업종과 기업, 테마를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종목과 종목의 흐름을 알면 돈이 보입니다」

지난 2월 고려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한 박 펀드매니저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다.

◇떠올리기 (2~3일투자기법)= 큰 사건이 터진 후 언론을 통해 며칠간 이슈가 이어질 때 손해가 예상되는 종목을 남보다 미리 떠올려 매수한다.

그런후 2~3일이 지난뒤 단기 정점에서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야후 등 인터넷 사이트가 잇따라 다운됐을 때는 싸이버텍홀딩스 · 장미디어 등 보안솔루션 종목들을, 얼마전처럼 무더위가 일찍 시작될 것으로 전망 되면 음료 · 빙과 업체들을 미리 사뒀다가 기상청 발표나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올 때 파는 것이다.

남북경협에 연관된 SOC종목 · 시멘트 · 비료주도 마찬가지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떠올리는 것이다.

박 펀드매니저는 『일상 생활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느낌을 실제 종목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항상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서 큰 뉴스가 나올 때 관련종목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능력이다.

관련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정점에 올 시기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미리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들여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타이밍이 늦으면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

◇그룹짓기= 평소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들을 그룹지어 놓고, 그중 한 두 종목이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들을 사들인 후, 단기 정점에 오르는 2~3

일 뒤에 매도하는 방법이다.

그룹으로는 반도체 · 남북경협 · 네트워크 · 게임 · 통신장비 · 바이오 · 단말기 · 솔루션 등의 테마와 건설 · 은행 등의 업종, 코스닥 대장주군, 비슷한 시기에 등록된 신주그룹, 코스닥 소외 개별주 등인데, 이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생성됐다 소멸된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업체인 웰링크가 오르기 시작하면 오리콤, KDC, 코리아링크, 자네트시스템 등도 올라가며 다음이 올라가면 같은 코스닥 대장주 그룹인 새롬, 한글과컴퓨터, 핸디소프트 등도 따라 올라가는 것을 이용해 매매한다는 것이다.

박 펀드매니저는 『거의 모든 종목이 비슷한 파동을 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같은 전략은 확실하다』며 『길어야 3~4일 차이로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간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도 첫번째의 떠올리기가 중요하다.

어떤 테마나 업종이 부상할 지를 떠올리는 노력을 하다보면 그룹내 한 두 종목이 오르는 것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이 매우 깊어졌기 때문에 미국시장의 테마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 주식에 관련시켜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全) 종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 해당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기업에 큰 문제는 없는지 등 전 종목을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떠올리기, 그룹짓기 등의 투자방법을 쓸 수 있다.

박 펀드매니저는 종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단 전체 업종의 상황을 공부하고, 다음으로 해당 종목들이 업종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수익가치는 어느정도인지, 재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익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업계의 친구들을 통해 기업을 파악하며,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 해당기업 주식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라도 익혀 두어야 한다고 박 펀드매니저는 강조했다.

박 펀드매니저는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주식투자를 시작하면서 부터 7년째 거의 매일 투자일지를 쓰고 있다.

주식을 사들이면서 앞으로의 목표와 현재의 상황 등을 적고, 매도한 후에는 전략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펀드매니저는 실권주,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월 2~3개씩 나오는 해당기업에 대해 꾸준히 연구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관련 책도 70~80권 정도 보았으며, 재학중에 주식투자를 위해 경영학과 회계학을 공부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화를 안 걸어본 회사가 드물 정도로 부지런을 떤 것과 재야의 고수들이 하는 강의를 열심히 찾아 들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26. 다른사람은 어떻게? (2)

나윤호 전업투자자 - (일반인이 따라할 수 있는 기법)

나윤호(羅允浩·51)씨는 지난해 8월 대우증권 수익률 게임대회에서 1만8,778%의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무원으로 출발해 건설업체, 개인사업, 부도, 리어커상, 주식투자 실패 등 온갖 인생역정을 겪은 후 수익률 게임으로 재기에 성공한 주식전문 트레이더다.

그의 핵심적 투자기법은 분차트를 지켜보면서 5일 동안 4~5회의 파도를 일으키는 「잉어주식」을 골라 저점 매수, 1~3일 경과 후 고점에 파는 것이다.

羅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주 5~10%, 월 20~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혹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 해도 월 10%는 올릴 수 있으며 따라서 500만원이면 5년 만에 15억3,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5일 주가파도 타기 = 데이트레이더와 달리 순발력을 요하지 않아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도 없고 뛰어난 순발력도 필요하지 않는다.

매수 때는 주가의 5일 파도, 매도 때는 3일 파도를 이용하지만 일반인은 5일 파도만으로 매수·매도하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홈트레이딩 사용은 필수며 그 중에서도 분차트는 항상 켜놓고 봐야 한다.

◇잉어주식 고르기=주가파동이 별로 많지 않은 고래주, 적당히 치는 잉어주, 들쭉날쭉 자주 치는 피래미주로 나뉘는데 5일 투자에는 잉어주식이 가장 적합하다.

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식으로 삼성전자·현대전자·데이콤·LG증권·현대차·LG화학·새롬기술·다음·비트컴퓨터·LG홈쇼핑 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대형 우량주로 거래량도 많고 거래대금도 많다.

매일 잉어주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날의 시황, 거래량, 외국인·기관 매수 종목을 살핀 후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거래량이 많아야 한다.

5일 중에 가장 많은 대량거래가 이루어졌고 전날 같은 시각보다 주가가 높은 주식이 최고 주식이다.

그러나 대량거래가 이뤄져도 전날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 빠져 나와야 한다.

세력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법=1분 차트상의 멈춤현상을 이용하는 방법과 1분차트와 10분 차트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가는 오르내리다 일정시점이 되면 가격이 소폭으로 등락하는 멈춤현상이 발생한다. 심리적으로 매도·매수세력이 집중되는 가격대다.

저점 멈춤현상이 발생하다가 직전고점 돌파가 확인되는 시점에 매입하고
고점 멈춤현상에서 전저점을 하향돌파하는 시점에 판다.

고점 멈춤현상 후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면 내버려 둔다(연날리기).
전고점과 전저점은 투자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심리적 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가의 1분 차트가 10분 이동평균 차트를 상향돌파
할 때(골든크로스) 사서 하향돌파(데드크로스) 때 파는 것이다.

◇시황 이용방법=시황은 매수·매도에 예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물지수, 나스닥선물지수, 기관 및 외국인의 매수·매도 강도 등을 장중에 세밀하
게 살핀다.
지수선물은 현물보다 3~4분 빠르다. 시황이 좋으면 미수까지 친다.
지수선물이 떨어지고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며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 강도를 높이
는 등 시황이 나쁘면 매수시점이 와도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조금 상승해도 팔고
나온다.

27. 다른사람은 어떻게? (3)

조현선 대한투신 펀드매니저

조현선(36) 대한투신 펀드매니저는 증권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개최된 제1회 서울 경제-웨르파 수익률게임에서 8주 만에 627%의 높은 수익률로 우승했다.

지난 6월에는 목표수익률 10%짜리(만기 3개월) 스폣펀드 2개를 불과 7일과 20일 만에 조기 달성, 상환하기도 했다.

그의 핵심 투자전략은 주도주를 찾아 투자한 후 짧게는 2일, 길게는 3개월 보유하면서 최고 80%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다.

조 펀드매니저는 『주도주에 중단기로 집중 투자할 경우 손실을 피하면서도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도주 찾기=어느 시장에도 주도주는 있으며 돌아가면서 부상한다.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예측 못해도 당일의 시장을 살펴 주도주를 찾을 수 있다.

대체로 하루 중 10~20개 종목이 떠오른다.

이들은 업종별 매매비중, 주가상승 상위종목, 주가 거래량 동시 상승종목, 주가 이동평균선 등을 보고 찾아낸다.

주가 상승종목 중에는 어떤 업종이 많은지 또는 테마관련 주식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를 체크한다.

거래량 상위종목과 회전율이 높은 종목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회전율이 높은 종목은 손바뀜이 빨리 온다는 의미다.

경제신문을 읽는 것도 주도주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매수·매도시기 잡기=매수 시기는 당연히 주도주를 찾아냈을 때다.

매도시기는 주도주가 얼마나 오래갈지를 판단한 후 시장추이를 살펴서 정한다.

주도주는 길게 3~4개월 가지만 짧게는 2~3일에 그칠 수도 있다.

침체국면이면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금해져 조금만 이익이 생겨도 팔기 때문이다.

주도주가 소멸되는 징후는 겹다리로 올라간 종목이 상승대열을 이탈할 때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조흥·외환·한빛 등 3인방이 오르면서 국민·주택은행도 뒤따라 오른 후 국민·주택은행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때가 바로 매도시점이라는 것이다.

다만 추세적인 하락이 있기 전까지는 매도를 자제해야 한다.

외부 충격에 따라 하락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나쁜 뉴스가 나온다고 곧바로 반응하면 큰 시세를 낼 수 없다.

뉴스에 한 템포 늦춰가며 시장 반응을 보고 매도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원칙=이같은 투자전략과 함께 다음 투자원칙도 지켜야 한다.

전체 장세 판단을 잘 해야 한다=주도주 형성이 어려우며 수익을 내기 힘든 하락장을 피하기 위해서다.

성장률, 금리, 시장자금의 성격, 예탁금 수준, 외국인과 나스닥 움직임, 주식형 수익증권 유입추세 등을 살펴서 예측한다.

개별종목 주가는 종합지수와 연동시켜 생각한다=종합지수는 개별종목의 집합체로 결국은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상한가 능력을 보유한 종목이 1~2일에 끝날 수도 있다.

손절매를 잘 해야 한다=대체로 2~3% 손실이 나면 다시 점검해보고 손절매를 한다.

만약 주도주라는 판단이 확실하면 하락해도 추가 매입하는 물타기를 한다.

소액 투자로 시작한다=자신의 심신상태, 리듬이 정상으로 유지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투자를 시작할 때엔 일단 50%만 투입하며 첫 매매는 10%만 한다.

첫매매가 실패하면 다시 첫 투자금액의 절반만 투자한다.

장을 잘못 보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종목에 자기의 희망을 싣는 우를 피하기 위해서다.

28. 다른사람은 어떻게? (4)

권정태 매크로머니 증권팀장

권정태 매크로머니 증권팀장(34·사진)은 98, 99년 세차례에 걸쳐 하이텔 증권사랑 동우회 실전투자게임에서 우승했다.

한편 「내 공합에 맞는 주식투자」, 「주식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101가지 이야기」, 「클릭! 데이트레이딩 길라잡이」 등 다수의 주식관련 서적을 집필했다.

특히 대학생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투자기법의 핵심은 상한가 종목을 공략해 2~5일 보유,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권 팀장은 『자신에 맞는 한가지 방법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잣돈이 500만원 이하면 수익률을 연 1,000%,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200~300%, 1억원 이상이면 100%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한가 따라 잡기=주식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위험도가 높고 세계적으로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속도가 빨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손실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장 기가 센 주식(상한가 칠 종목, 상한가 친 종목)의 흐름을 쫓아가서 단기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전략은 특히 하락장에서도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유형별로 골라내기=대체로 하루에 거래소에서는 20~30개, 코스닥에서는 40~50개 종목이 상한가를 친다.

장중에 상한가 종목을 합하면 100개가 넘는다. 이들 종목은 상한가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10일 이상도 간다.

상한가 종목은 대체로 세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먼저 상한가가 깨지더라도 사야할 정도로 좋은 재료를 갖는 종목(A급).

이 종목은 계속 급등이 예상되고 세력이 개입한 종목이다.

첨단 신규등록주의 초기물량 출회, 주도·테마주의 첫 상한가, 굉장히 좋은 재료주의 첫 상한가, 세계적인 테마주, 급락 후 장 흐름이 바뀔 때의 첫 상한가 종목, 세력이 개입했지만 아직 이탈하는 모습이 안보이는 주식, 매수 주체가 있는 종목 등이 해당된다.

그 다음은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종목(B급)이다. A급 종목이 2일 이상 상한가를 쳤을 때 해당된다.

세번째로는 얼마전 평화은행 우선주처럼 내용도 없이 상한가를 계속 치는 종목(C급)이다.

수급으로 연속 상한가를 치는 종목, 자본잠식·관리종목 등으로 부실주면이서도 상한가 치는 종목, 과도한 연속 상한가 종목, 대형주의 두번째 상한가 종목 등이 해당된다.

◇유형별 매수·매도 타이밍 잡기=기본적으로 매수세가 셀 때 사서 매도세가 셀 때 판다.

일단 사들인 후 일정 거래량이 되면 팔겠다는 기준도 설정해둬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1만주로 늘면 판다든지 상한가가 6일 정도 지속되면 매도하는 식이다.

A급 종목군은 대놓고 사들인다.
이들 종목들은 대부분 시초에 상한가가 깨졌다 다시 간다. 이 경우 첫날 깨질 때 사들인다.
이들 종목들은 초단위로 상황이 달라진다.
매수 주세력이 팔면 판다.

B급 종목군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들인 후 매수·매도 잔량, 유입속도, 시간 등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상한가가 무너지면 판다.

C급 종목군의 투자기법은 단순하지만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관찰해야 한다.
매도물량이 터지면 바로 내다 팔아야 한다.
깨지는 순간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몇일간 계속 하한가를 맞기 때문에 깨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
이 종목군은 상한가 초기에 사며 자금의 일부분만으로 적게 투자한다.

29. 다른사람은 어떻게? (5)

강방천 에셋플러스투자자문 전문

강방천씨는 지난 97년 12월 증권 우선주를 공략해 3억원의 원금을 50억원으로 불러 시중에 화제가 됐다. 98년 2월에는 한진·삼성전자·삼성전기를 매수해 1년만에 50억원을 100억원으로 늘렸다.

그의 투자기법은 생활의 변화에 따른 가치변화를 주목, 관련업종을 찾아내고 그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택해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가치기준 투자=그는 항상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그는 남극에서 살면서 단말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를 꿈꿔본다.

그처럼 생각해보면 디지털·반도체 등 앞으로 주목받을 업종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업종 내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골라낸다.

가장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이유는 경기가 바닥을 칠 때 오히려 다른 업체의 시장까지 장악하면서 수익이 늘어나고 부도 등 무너질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97년 증권 우선주를 공략해 큰 돈을 벌었을 때도 이같은 방법으로 장기 투자했는데 불과 4개월만에 목표주가에 도달해 이익을 실현한 것이었다.

즉 국제통화기금(IMF)을 지나면서 경제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했고 이럴 경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며 기업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될 경우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만큼 증권업체의 수익이 가장 빨리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매매타이밍 잡기=거래량이 크게 줄어 들었을 때가 바로 주가가 가장 낮게 떨어진 시기다. 가치변화를 주목하고 관련업종과 종목을 찾아낸 다음에는 거래가 잘 안되는 시기를 택해 매수에 들어간다.

대체로 주식을 매입할 때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장기투자를 겨냥하지만 차익이 빨리 실현되면 이익을 실현한다. 목표가격은 특별한 수치계산보다도 전반적인 주가흐름을 보고 변화의 에너지를 고려해 어느 정도 갈 것인가를 추정하는 정도다.

해당 업종이 어느 정도로 좋아지고 그 업종 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삼성전자 등 성장업체들의 수익증가 추이를 보면 수익 증가세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목되는 가치투자 대상=앞으로의 세상은 결국 디지털과 금융이라는 게 강씨의 판단이다.

대부분 국가의 지도자들이 디지털 육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변화를 이끌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의 자원이 정보통신분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수익성 모델 부재·수급문제 등으로 코스닥시장이 연초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회복될 것으로 강씨는 예상하고 있다.

금융 역시 주목되는 가치투자 대상인데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의 전망이 가장 밝다는 게 강씨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투기규제 및 환경문제와 맞물리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금융자산 중 은행예금의 경우 보장 규모가 2,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위험성은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져 수익성은 떨어진다.

또한 채권시장도 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면서 위험성은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져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의 경우 위험성은 동일하지만 경제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일반 기업의 체질이 개선돼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30. 다른사람은 어떻게? (6)

정한신 매크로머니 이사

정한신(32) 매크로머니 이사가 올들어 주식투자로 월평균 100%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그는 IMF가 시작된 지난 97년 11월 새한증금에 재직하면서 무위험의 현-선물 프로그램 매매로 1개월 만에 60억원을 벌어들여 프로그램 매매의 확산을 불러오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98년 12월부터 99년 3월까지 아람투자자문사에 근무할 때는 선물-옵션 데이트레이딩으로 연 500% 가량의 수익률을 냈다.
옵션거래 초기인 97년 10월에는 풋옵션 매수로 200%의 수익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의 투자기법은 대세상승장과 하락장별로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며 특히 대세상승장에서 집중공략한다는 게 특징이다.

정 이사는 『타이밍을 잘 맞춰 단기낙폭 과대주 공략하면 주 20~30%, 테마주는 1주일에 최대 50%까지, 작전주 공략은 70~80% 가량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낙폭 과대 종목 공략=3일 이상 연속 하락한 종목 가운데 1주일 동안 30% 이상 하락한 종목을 찾아내 매수한 후 3~5일 후 매수가격보다 30% 가량 오를 때 매도하는 기법이다.

100년 이상된 투자전략으로 불변의 원칙이며 모두 아는 얘기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증권전산의 체크단말기나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코너에서 종목을 발굴한다.

떨어질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낙폭이 커도 배제한다. 매수·매도타이밍을 잘 잡아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순발력이 떨어지면 5%, 10%의 수익을 내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코스닥과 거래소종목의 타이밍 잡기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매수 타이밍은 단기낙폭이 5%, 7% 떨어지다 하한가가 연속날 때가 가장 좋다.

매도 때는 종목 외적인 이유로 오름세가 지속되더라도 보유하지 않고 무조건 팔아야 한다.

차트는 느낌을 파악하는데 쓰이는 정도다.

◇작전종목 역공략법=작전세력이 진입했음을 확인하고 작전세력이 1단계 매집을 끝낸 시점에 매수해 2단계, 3단계 매집을 거친 후 80% 가량 올랐을 때 판다.

작전종목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1단계에서는 7~10일간 작은 물량의 매집이 일어나며 자사주 매입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지만 종가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게 다른 점이다.

2단계에서는 4~5일간 큰 물량의 매집·매도가 일어나며 등락하지만 상승추세가 유지된다.

2단계 끝나는 시점에 대량으로 완전히 매집한 후 두 단계에 걸쳐 팔고 빠져나간다.
작전세력의 목표가격은 대체로 거래소종목의 경우 2배, 코스닥은 3~4배에 달하고
반드시 재료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따라서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은 작전세력이 완전매집 후 1차 물량을 털 조짐을 보
이면 팔지만 그렇지 않으면 80% 정도 오른 시점에 파는 게 좋다.
보통 세력들은 100% 올랐을 때 1차 물량을 털기 때문이다.
물론 물량터지는 조짐은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테마주 공략·상한가 공략=주로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받는 종목을 매수해 2~7일 보유한 후 분위기가 수그러질 때 팔면서 차
익을 얻는 방법이다.

인터넷 테마는 지난해 1년 동안 지속됐으며 연초 야후 등의 헤킹 사건이 터진 후
생긴 보안주는 1개월 가량 지속됐다.

상한가 종목공략은 주로 상한가가 오래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1차 조정을 거칠
때 사들였다 몇차례의 상한가를 기록한 후 주매도세력이 팔 때 함께 팔며 빠져나오
는 기법이다.

이들 기법은 장이 대세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다.

31. 다른사람은 어떻게? (7)

이형복 펀드매니저

이형복 펀드매니저(37)는 회사의 내재가치를 분석, 적정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사서 적정가에 오면 팔아 차익을 내는 정통 투자기법을 사용한다.

그는 지난 4월3일부터 6월23일까지 증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서경-쉐르파 수익률 게임대회에서 206%의 고수익을 올려 우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종합지수가 846포인트에서 760포인트로 8% 하락했음에도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이 펀드매니저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타깃 종목 100개를 만든다=우량주만 매매하고 아는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903개 상장 종목 가운데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내재가치가 우량한 200개 종목을 추려낸 후 그 중에서도 뛰어난 100개 종목을 다시 선정한다.

종목은 대체로 주가수익비율(PER)이 15배 미만이고 부채율 역시 200% 미만이다. 또한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 EV/EBITDA 15배 미만, 성장성 지표인 PSR(업종따라 차이)이 좋은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 10배 미만인 기업도 중요 기준이다.

이들 종목들은 기업가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하고 교체해야 한다.

◇매매방법=타깃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해당 종목이 적정주가보다 최소한 20~30% 이상 싸다고 판단될 때 매입해 3개월~1년 후 적정가에 오면 팔아 차익을 낸다. 뒤집어 말하면 20~30%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싼 종목은 적정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재료가 나타나거나 주식시장의 침체, 외부충격 등으로 해당 주가가 대폭 떨어진 경우에 발생한다.

수익률 게임을 위한 단기투자 때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매매타이밍을 빠르게 할 뿐이다.

강세장이면 사서 장기보유하는 「바이앤홀더」작전, 약세장이면 목표수익률을 낮게 잡고 짧게 보유한다.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투자 규모를 줄이되 저평가 주식은 꾸준히 사서 모은다. 이는 반등 때 내재가치가 뛰어난 종목이 반등폭이 크기 때문이다.

종목평가의 기준으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참조하지만 스스로 판단한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틀릴 경우에는 고민해서 결정한다.

기술적 분석은 추세를 갖고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참고로만 할 뿐이다.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질 경우 다시 분석, 기업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과감

하게 팔며 여전히 적정가보다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한다.

다만 일정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회복에 집착하지 않고 손절매를 단행 , 손실을 최소화한다.

◇장기테마주에 투자한다=통신주 · M&A주 · 반도체주 등 테마흐름이 1~3개월간 유지되는 테마에 투자한다.

올해의 경우 연초 바이오주 · 반도체주 · 금융주가 상당기간 테마를 유지했다. 이 때도 물론 싼 주식을 고른다.

◇종목연구방법=긴 기간에 걸쳐 하는 것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는 기초적 지식 습득을 위해 3~6개월은 투자해야 한다.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주식 · 경제 관련 용어, 증시흐름, 제도, 재무구조 ·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등 기업회계 등이다.

시간이 많이 들지만 이 방법이 최선이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경제신문 · 종합신문의 경제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신문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32. 다른사람은 어떻게? (8)

이재현 펀드매니저

「장세에 맞게 목표수익률과 주식투자 비중을 정한 후 우량 소수종목만 집중 공략, 평균 분기 1회 매매하라.」

이재현 대한투신 펀드매니저(34)의 투자 전략의 핵심이다.

지난 99년 한국펀드평가 주관의 베스트 펀드매니저 3위로 선정됐고 99년 9개월 동안 열린 한경스타워즈 수익률 게임대회에서 3,27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우승했다.

지난해 7월에는 투신권 최초로 주식형 수익증권 수익률 100%를 달성했으며 연초 투신사 최연소 주식운용팀장으로 발탁된 후 현재 50개 펀드 1조3,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그의 투자전략은 우량·절대저평가주를 공략하는 것과 상승장에서 테마주를 공략하는 것.

이 매니저는 자신과 같은 방법을 쓸 경우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세판단이 가장 중요=현재의 장세가 대세상승장인지, 상승장인지, 반등장인지, 하락장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종목투자 목표수익률을 잡고 주식투자 비중을 결정한다.

종목당 목표수익률이 20% 나오느냐 10%냐, 5%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따블」이나 「따따블」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이 매니저는 올해는 하락장으로 종목당 목표수익률을 10% 정도로 잡고 있다.

따라서 연간 목표수익률은 채권수익률의 2~3배 정도인 20~30% 가량이다.

장세에 따라 달라지는 또 하나는 주식투자 비중. 하락장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손실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매니저는 주식투자 비중을 연초에 70%로 잡았다가 현재 50%로 줄였다.

나머지는 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하고 있다.

◇우량 소수종목 집중공략=공략 종목을 적게 잡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매니저는 현재 40~50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변동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주가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매니저는 개인들은 자금도 작고 많은 종목을 분석,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5~10개 종목만 집중 공략할 것을 권했다.

종목선택은 실적호전으로 모멘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량 대형주나 순자산가치(PBR)나, 수익가치(PER)가 좋고 사양산업이 아닌데도 저평가된 종목을 고른다.

종목 분석은 순자산이나 수익가치 등 절대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국내 동종업체와 해외 동종업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적정주가를 산출해낸다.

이 적정주가는 또 수급상황이나 한국 주식시장만의 특징을 고려해 장세에 따라 높이거나 낮춘다.

적정주가를 산출하는 방법과 상대적인 평가방법을 익히는 것도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개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종목분석자료를 꾸준히 실고 있고 전문적으로 종목을 분석해주는 사이트도 많이 생겨 상장기업편람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매방법=절대가치와 상대가치를 따져 자신이 확신하는 적정주가를 찾은 후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를 통해 해당주가의 박스권 움직임을 관찰한다.

해당 종목의 펀더멘털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박스권의 바닥에 와 있을 경우 매수해 자신이 확신하는 목표가격에 왔을 때 판다.

종목당 목표수익률은 장세에 따라 5~20%로 적절하게 잡는다.

매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평균적으로 연 3~4회, 분기 1회가 적당하다.

매매를 자주 하지 않 돼 평소에 집중공략 종목의 주가변동상황을 지켜보면서 펀더멘털의 변동상황을 업데이트한다.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기다리면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매도기간은 짧지만 목표가격(타겟)을 설정하면 매도를 자제해야 한다.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당종목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테마주 공략방법=철저하게 상승장세에서만 공략하고 하락장세에서는 테마투자를 하지 않으며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테마를 공략한다.

이 투자방법은 뉴스와 사회전체의 흐름, 주가의 동향에 따라 감각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정보통신테마처럼 몇개월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투자기간은 7일~3개월.

폭발적인 상승장의 경우 테마에 따라 일정 수익이 났을 때 1~2일 만에 내다팔고 사들이는 것을 반복할 수도 있다.

테마공략은 상승장세에서 유효한 투자방법이어서 언제 상승장세로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33. 다른사람은 어떻게? (9)

김동윤씨

『생각은 기관처럼, 투자는 재미처럼』

이는 수차례의 수익률 게임대회에서 우승한 김동윤씨(28·국민대 3년)의 「변수 투자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즉 김씨가 견지하고 있는 투자이론의 핵심은 시장에 미치는 요인을 긍정과 부정의 두가지 변수를 압축하고 이 변수에 근거해 투자여부·현금 및 주식 비중·투자방법을 선택해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변수투자란=주식시장과 해당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고 압축한 다음 긍정 변수가 강할 때 주식을 매입하고 변수효과가 끝나거나 약화될 경우 파는 방법이다.

변수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실제 투자할 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강도를 파악해 투자하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변수는 미국시장이나 한국시장·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등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구체적으로 거시변수·정책변수·대외변수·투자심리변수·개인환경·종목별 변수 등 다양하다.

◇장세별 투자패턴=일단 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찾아내 변수로 설정하고 변수강도에 따라 장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한다.

그리고 난 후 예상되는 장세의 형태에 따라 데이트레이딩, 3~4일 투자하는 스윙트레이딩, 1~6개월 가량 보유하는 장기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주가가 포함이지만 변동폭이 클 때는 데이트레이딩, 굴곡을 거치면서 상승하는 장세에서는 3~4일 보유하고 파는 스윙트레이딩이 적합하다.

대세가 상승할 경우에는 가치있는 종목을 선택해 1~6개월 가량 보유하는 투자방식을 쓴다.

장세예측이 나온 다음에는 종목별로 변수를 찾아나선다.

투자가 유망하게 보이는 한 종목을 선택하면 일단 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찾아낸다.

◇변수설정 방법=종목은 우량종목과 부실종목으로만 나눈 뒤 우량종목만 골라내 변수를 찾아 투자한다.

김씨가 평소 변수를 압축, 관리하는 타깃종목은 상장사 200개, 코스닥 100개.

요즘에는 주식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50여종목으로 줄었다.

변수에는 미국시장의 테마흐름, 투자자 심리상태, 종목 관련재료, 낙폭과대, 주가관리, 잔량변화 등 다양하며 긍·부정변수로 분류한다.

이어 다양한 변수의 강도를 비교한 후 데이트레이딩 방식을 쓸 경우 1~2개로, 3~4

일 투자패턴을 사용할 경우 2~3개로 압축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D램가격이다.

이 변수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변수가 강할 때엔 매수하고 변수효과가 끝나거나 악화될 때엔 판다.

해당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너질 경우 팔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적다.

지난 3월 증권사 결산을 앞두고 대신증권 우선주를 매매대상으로 선정했을 때는 긍정변수로 증권업 99년 순이익 6조6,000억원, 시장테마 강력 부상가능성, 시가배당제 실시, 제3시장 개장,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 등을 설정했다.

반면 부정적 변수로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무한경쟁 가능성, 거래소 시장의 위축 등으로 설정했다.

증권업종의 미래 불확실성은 크지만 긍·부정 변수를 고려할 때 단기 투자 메리트가 발생한다고 판단, 고액배당 예정인 대신증권 우선주를 매입했던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해보면 장세에 따라, 종목에 따라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된다.

일단 매수하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나 또는 모르는 변수가 없나를 추가로 살핀다.

1년 전체로 보면 1월에는 1월 효과, 3월에는 춘투, 선물·옵션 만기 전후, 여름의 서머앨리, 결산일 주변의 배당투자 등 매년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반복 현상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4. 다른사람은 어떻게? (10)

박래신 동원증권 광화문지점장

박래신 동원증권 광화문 지점장(45)은 지난해 동원증권 전지점 직원 중 약정고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올해도 4월과 5월에 1등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달에도 10위권 범위를 유지하는 실적을 보였다.

약정고가 반드시 고 수익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객의 돈을 잘 관리해줬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박 지점장이 원하는 투자전략의 핵심은 극도의 침체장에서 우량주를 산 다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몰려들 때 파는 중장기 투자다.

박 지점장은 이같은 방식을 쓸 경우 최소한 20%, 최고 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투자가 좋은 이유=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주식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따라서 금리보다는 높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자신이 보유하는 자산포트폴리오 중 일부로 여기고 적절한 시점에서 편입했다가 때가 되면 빠져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 지점장은 IMF 이후 경제와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최대주주 맘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해 부실기업이 되는 일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익모델이 없을 경우 주가가 바로 빠지면서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게 된 것도 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점점 더 장기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게 박 지점장의 전망이다.

◇매수·매도시기 잡기=종합주가지수를 이용하는 것도 약세·강세장을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다.

종합지수가 경기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120일(6개월) 주가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80 이하일 때가 투자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약세장이며 120일선을 넘어서면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나서는 강세장으로 보는 것이다.

참고로 60일(3개월) 주가이동평균선은 수급에 의해, 20일(1개월) 이동평균선은 재료에 의해 움직이는 재료선으로 불린다.

이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1년에 매수시기가 4~5번 나타난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1년 단위의 긴 기간을 텀으로 잡아 약세장에 들어갔다가 강세장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분위기상으로는 투자자들이 질려버려 주식투자에서 손을 뗄 때, 주식투자로 목숨끓은 사람이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질 때 주식매입에 나서고 누구나 주식투자하고 직장 회식자리에서 주식애가가 만발할 때 판다.

손절매는 자신이 예측한 경기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변경됐을 때 단행하고 자신의 확신이 옳다고 판단되면 최소한 2년은 보유한다.

◇종목선정=기본적으로 업종대표주 중 2개 정도만 고르면 된다.

박 지점장은 구체적으로 조정장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동종업종 내에서 시장평균 PER보다 밑도는 종목, 거래량 120일 이동평균선을 밑돈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종목, 역시계곡선이 매도유보에서 매수검토 방향으로 상승전환 되고 있는 종목을 고를 것을 권했다.

우량종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상장회사의 재무비율, 전문연구소의 분석보고서, 증권사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해당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있다.

35. 다른사람은 어떻게? (11)

주형진 스톡챗 대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시기에 투자하라』

지난 99년 상반기에 1,000여만원의 원금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장외주식투자에 나서 1억원을 30억원으로 불린 주형진 스톡챗대표(28)의 주장이다.

건국대 경영학과 재학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바탕으로 98년초 주식투자에 나섰던 그는 98년 중반에 반토막이 나기도 했으나 98년말에는 은행예금 수익률까지 회복하기도 했다.

올들어 지난 1월5일에는 증권사들에게 증권대화방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스톡챗을 출범시켰고, 2월에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의 핵심 투자기법은 4~5년만에 오는 대세 상승장이나, 1년에 1~2번 나타나는 반등장을 공략해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큰 수익을 내는 것이다.

◇투자시점 찾기= 돈이 주식시장에 몰리는 시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세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증권사 시황팀이나 오랫동안 관련업계에 종사한 사람들도 60% 이상 장세판단이 틀린다.

자신만의 판단기준을 세운 다음 그에 따라서 중심을 잡고 경제와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대체로 신문에서 주식폭락 얘기가 자주 나오고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의 얘기가 자주 나올 때가 바닥에 근접한 시점이다.

나쁜 뉴스, 악재에 대해서 시장의 저항력이 있을 때,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관리종목 등에 순환매가 일 때 등이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종목선정과 타이밍잡기= 1년에 한두번 나타나는 반등장이나 4~5년에 한번씩오는 대세상승장에는 반드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 테마가 있다.

큰 테마는 시대의 조류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미국시장이 세기시장 조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스닥 종목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다.

돌아가면서 오는 구(舊) 테마는 이들 신(新) 테마보다 수익율이 낮지만 그래도 투자 해볼만하다.

대세 상승이나 반등장에서는 지수 관련주의 상승이 반드시 진행되므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우량주를 골라 투자하는 것도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평소에는 경기와 경제 전체의 흐름을 바탕으로 장세판단과 시대조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수·매도 시점은 추세 상승이 확인된 후 투자를 하고 추세 하락이 확인되면 파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유효한 투자방법이다.

데이트레이딩은 전업투자자만이 할 수 있으며 요즘에는 데이트레이더들이 많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장외주식 공략방법= 장외주식 10개를 매입해 그중 1개만 성공하면 10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코스닥에 등록되면 대체로 10배의 수익을 내지만 실패하면 부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유기간은 대체로 2~3년을 잡는다.

주씨의 경우 장외시장에 대해 일반인이 잘 모르던 시기에 개척, 저평가 상태에서 사들여 큰 수익을 올렸지만 요즘은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99년 하반기만해도 장외투자 개인이 1만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40만~50만명선으로 늘었다.

따라서 장외시장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저평가됐을 때 찾는 게 좋다.

장외기업에 투자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해당기업을 찾아가 보는 것이다.

직접 방문해 대표도 만나보고 해당기업의 주식담당자도 만나 분위기를 파악해 봐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회사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경영자의 자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외주식을 거래할 경우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함께 증권사를 찾아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다른사람은 어떻게? (12)

문양근 머큐리라인홀딩스 이사

『주식 투자는 때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9급 공무원에서 주식투자 성공으로 벤처기업가로 변신한 문양근 머큐리라인홀딩스 이사(33)의 주식투자 비결이다.

문 이사는 지난 93년 7월 500만원으로 시작, 97년 말까지 6,000만원이나 날린 후 1년간 쉬 다음 98년 말부터 다시 투자에 나서 1년 만에 300만원의 원금을 5억원으로 늘렸다.

그의 성공비결은 1년에 2~3번 오는 상승장의 테마주에 투자하며 하루 중에서도 적절한 매수타이밍인 오전 10~11시, 오후 2시께 매매하는 것이다.

그는 『어떤 장에도 테마는 존재한다』면서 『다만 약세장에서는 단기투자, 강세장에서는 중기투자를 하는 것이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테마종목 선정방법=테마 부상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100~200개 정도를 선정, 테마별로 분류한 뒤 꾸준히 지켜본다.

매일 장이 끝난 후 이들 종목 중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30개 골라낸다.

테마 중에는 항상 대장주가 있게 마련인 만큼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약세장에서 개별주를 고를 때에는 거래량이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 장중고가 대비 대폭 하락한 종목, 첫 상한가 종목을 찾는다.

문 이사는 현재 바이오·보안·엔터테인먼트·무선인터넷 등을 상승장에서 기대되는 테마로 보고 있으며 대세 전환장이 오면 금융주도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중소형 개별주·자산주·제약주 등도 테마로 보고 있다.

◇매수·매도 타이밍=강세장에서는 테마 대장주와 주변주를 사들인 후 상승추세가 무너지면 팔고 약세장에서는 주로 대장주가 상승할 때 주변주를 매수하고 대장주가 꺾이면 주변주를 판다.

약세장에서는 테마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대장주 투자는 비교적 위험한 편이지만 주변주는 대장주의 흐름을 보고 팔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테마가 형성되면 강세장의 경우 2일~1개월 정도, 약세장에서는 1일~1주일 정도 상한가를 이어가거나 상승한다. 테마 초기에 매입해 장세에 따라 그만큼 보유한 후 판다.

하루 중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오전 10~11시와 오후 2시께며 매도 타이밍은 오후 2시께다.

오전 10시에는 동시호가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대체로 하루 중 조정을 보이는 시기여서 매입하기 좋다.

오후2시에는 이때의 주가흐름이 종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하락폭이 커질 것 같으면 보유종목을 매도, 상승폭이 커질 것 같으면 매수를 하게 된다.

◇약세장 개별주 투자=약세장에서는 일반 테마 형성이 잘 안되고 중소형 개별주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약세장의 인기주, 테마주는 개별주인 것이다.

개별주는 바닥을 다지고 추세가 반전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찾아 투자한다.
거래량이 4주간 평균치보다 급증하고 상승세를 띠는 종목을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사고 물량이 터지면 파는 것이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규모가 5% 이상, 또는 상한가에 근접하는 종목이 있으면 관심종목으로 편입해 긴밀히 대응한다.

2~3% 정도 오르는 것은 지수에 따라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관심종목에 편입시키지 않는다.

◇주식투자 하루 일과=오전8~9시에는 전날에 고른 30개 종목에 대해 동시호가를 보면서 거래량과 상승추세 등 종목의 움직임을 보며 10개 종목으로 압축한다.

9시에 장이 시작한 후 10시까지는 최종적으로 1~3개 종목을 골라낸 후 10~11시에 매수에 들어간다.

오후2시께에 관심종목의 주가 흐름에 따라 매매한 후 3시 이후에는 당일 장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인 종목을 다시 30개 가량 추려낸다.

37. 다른사람은 어떻게? (13)

정진석씨

정진석씨(31·전업투자)는 한화증권이 실시한 실전 주식투자 수익률 게임 제4회 대회에 참여, 3개월여만에 1,120만원의 원금을 2억7,800만원으로 불렀다.

게임이 실시된 지난 5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40포인트 이상 하락했음에도 자그만치 2,382%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전업투자자인 정씨의 투자 성공비결은 상승추세가 확인된 종목을 5~10분 사이에 사고 팔아 1회당 평균 1%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
하루 10여차례 실시, 그중 2~3차례의 손절매를 감안할 때 하루 평균 수익률은 4~5%다.

◇종목선정=업종별로 대표 종목을 10개씩 총 100개를 선별, 이 포트폴리오 범위 내에서만 투자한다.
테마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테마 주변 일부 종목을 편입했다가도 종료되면 버린다.
포트폴리오 밖의 종목이 강세를 보여도 포트폴리오 내 관련 종목에 투자한다.

장중에는 매매시간을 제외하고는 포트폴리오 내 종목을 흐름을 관찰, 그 종목을 장종흐름을 익히고 강세를 띠는지 관찰한다.

장이 끝난 후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 상한가 종목을 선별해 다음날 매매용으로 10개를 추린다.

또 그 종목의 재료와 상황을 봐 다음날의 저점, 고점을 추정해보고 예상 움직임을 시나리오로 만든 후 매수가능 가격대와 당일 매도 가능 단가 등을 예측해본다.

다음날 장시작 전에 전날 압축된 10개 종목 중 강한 종목들을 다시 1~2개로 압축한다. 예상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우선 공략하며 그 경우 성공률이 높다.

또 그날 그날 포트폴리오 종목 중 급등했거나 움직임이 강한 종목도 1~2개를 골라 함께 공략, 하루 평균 3개 종목을 공략한다.

◇매매방법=전날보다 반드시 상승한 종목에 투자한다.

아침에 최종 선별된 종목도 마이너스권에서 맴돌면 매매하지 않는다.

최종 선정된 종목이 장 시작후 첫 저점에 왔을 때 1차 매수하고 첫 고점에 왔을 때 1차 매도해 수익을 챙긴다.

1차 매매는 해당종목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무조건 한다.

주가가 당일의 첫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2차 매수, 목표수익률(+3%) 이상을 달성한 후 고점을 형성할 경우 그 고점에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재상승 후 고점을 형성할 때 판다.

만약 2차 매수 후 목표 수익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면 곧바로 손절매한다.

상한가로 끝나거나 아주 좋은 상황일 경우 오버나이트 하지만 1개월에 2~3번 정도다. 따라서 1회 매매에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5~15분 정도.

하루 10회 정도 매매하며 2~3회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손절매한다.
매회당 평균 수익률은 1% 정도, 손절매로 잃은 돈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4~5%를 번다.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분차트와 틱차트를 활용한다.

대체로 하루 중 오전 9시~10시, 오후 1시30분~오후 2시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오후2시 이후에는 주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피한다.

매매 금액은 매회당 풀베팅하며 1억원 미만일 경우 미수를 치고 1억원이 초과되면 1억원 범위 내에서만 투자한다. 자기 투자방식의 적정 규모가 있다.

◇손절매가 중요=매수 후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을 불문하고 매도한다. 팔아놓고 다시 기회를 기다리더라도 일단 판다.

수익을 내도 손절매를 못하면 누적효과 때문에 배 이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다.
매일 매일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1%라도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까먹지 않은 매매를 하면 복리로 계산돼 수익률이 시간이 갈수록 엄청 불어난다.

38. 다른사람은 어떻게? (14)

김기수씨

김기수(28)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실시된 한화증권 실전 수익률 게임대회에서 1,144%의 수익률을 올렸다.

300만원의 원금을 3,700만원으로 불린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지수가 40포인트 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의미를 띠고 있다.

그의 투자기법의 핵심은 신문이나 인터넷에 오른 예견된 재료나 루머를 철저히 확인해서 발표시점 직전에 투자, 1회당 10~3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

그는 어떤 좋은 재료가 잡히면 해당 기업에 전화 문의하기 전에 1~2시간동안 인터넷에 있는 언론매체와 증권매체를 뒤져 공부한다.

하루에 문의 전화를 20통이상하는 날도 많다.

◇종목선택요령=인터넷이나 신문에 나온 재료가 돈이 될만하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그 재료를 언제 발표할지를 관계기관에 문의해 확인한다.

예를들어 연초 정부가 워크아웃을 조기에 종료시키겠다고 발표했을 때 조기 종료 예정 기업 명단을 뽑은 후 채권단이나 해당기업의 주식담당자에게 수시로 연락해 조기종료 발표시점을 알아내는 것이다.

일단 매수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잡히면 그 회사의 추가흐름이 이상 이 없는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재료가 발표되면 주가가 오를 정도로 건실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매출이 자본금의 10배정도이고 순이익이 자본금의 50%를 꾸준히 내는 기업은 매우 우수하다.

특히 배당성향이 좋은지도 살핀다.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이 매우 좋은데도 주가가 유사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빠져 있으면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외시킨다.

도덕성이 없는 기업도 배제한다.

특히 장이 안좋은데도 대주주가 물량을 쏟아낸다든지하는 기업들은 결국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재료 강도가 비교적 약하고 발표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10여일전 투자기법, 재료강도가 강하고 발표일이 분명할 경우 3일전 투자기법을 사용한다.

최종 선정된 종목 1개에 집중 투자하며 2종목에 투자할 때도 가끔 있다.

◇매매요령=3일전 투자방식은 자신이 확인한 재료 발표예정 3일전에 보유현금 전액을 투자해 주식을 사며 2일전에는 미수를 2배내지 2.5배까지 치며 매수한다.

하루전에는 대체로 선취매가 일어나는데 선취매가 강하면 매수량의 절반정도를 팔고 생각보다 약하면 보유하다가 재료가 발표되는 날 전량 매도한다.

매수방법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대별로 분할 매수하며 팔때도 분할 매도 한다.

10여일전 투자방식은 10여일전부터 4~5회에 걸쳐 저점에서 분할매수한다.
해당 주식의 박스권의 하단에 매수주문을 내놓아 걸리는 것만 사들이는 것이다.
위험도가 3일전투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이 투자방법을 사용할 경우 해당재료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
황도 잘 봐야한다.
예를들어 대우차 매각실패 등 큰 악재가 발생하면 반영이 지연되거나 아예 되지 않
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여일전 투자방식을 쓸 때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유현금의 50%이상
을 투자하지는 않는다.

매수전에 혹시 해당 주식을 매집한 흔적이 있는지도 살핀다.
매수들어갔을 때 물량을 때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김씨는 『투자원금이 5,000만원이하 정도면 이같은 방법의 투자가 유망하다』고 밝
혔다.

◇주요 재료·루머투자사례=3일전투자 사례로는 워크아웃종료, 외자유치, 대규모 수
출계약 등이 있다.
10여일전 투자 사례로는 배당(12월법인은 12월, 3월법인은 3월), 실적발표(12월법
인 반기는 8월초), 공시, 자회사 코스닥등록 등의 재료가 있다.
3월 증권주 배당투자의 경우 3월초 전증권사의 10년간 배당성향을 입수하고 배당률
이 높은 순으로 배열한다.

3월 15~20일 사이에 해당회사에 전화를 해 얼마정도 배당할 지를 알아낸다.
최종적으로 배당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1~2개 골라낸다.
해당종목에 대해 10일내지 1주일전부터 저점매수하고 배당자가 결정되는 31일까지
주가 오름세를 보고 매도시기를 정한다.
주가가 예상 배당수익률이상으로 오르면 팔고 나온다.

시장에서 예상보다 배당투자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오름세가 지지부진 할 경우 분할매도하고 나온다.

공시투자는 조회공시가 나왔을 때 보통 다음날 조회공시에 대한 답이 나오기때문에
그전에 전화해서 확인되면 매수해 1일정도 보유하고 파는 것이다.

39. 다른사람은 어떻게? (15)

이창현씨

국민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창현(23·사진)씨는 지난 5~8월 열린 한화증권 실전 주식투자 수익률 게임대회 대학생부에서 2,102%라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우승했다.

그의 핵심 투자기법은 재료가 확인된 종목, 상승추세를 보이는 테마, 지수반등 때의 지수 주변주, 매도·매수 호가의 갭이 큰 종목을 골라 다량의 분할매매로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것이다.

◇종목 고르기=재료 종목은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발표 직전에 들어간다. 신문기사에 나온 재료의 확인을 위해 하루에 20번 정도, 많을 때는 100번까지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상승추세를 보이는 테마는 한 종목이 올라갈 경우 따라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 종목군을 말한다.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해 10개 그룹에 30 정도 된다.

예를 들어 대우가 오르면 대우중공업·대우전자·쌍용차 등이 오르는 것.

대장주가 오르면 반드시 덜 오른 주변주를 공략한다.

지수 반등 때의 주변주는 반등의 핵심에 있는 주식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로 아직 적게 오른 주변주가 오름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매수·매도 가격의 갭이 큰 종목은 종간의 가격 차이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사이의 가격으로 사고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

예를 들어 1만원으로 매수가 나오고 1만500원으로 매도가 나왔을 경우 거래가 되지 않지만 1만50원에 매수해 1만150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1만원일 경우 수수료와 세금은 50원이면 되기 때문에 100원을 남길 수 있다.

◇매매방법=사는 즉시 같은 규모로 파는 주문을 낸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경우 매도 주문을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낸다.

파는 주문을 내는 것은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매집량은 거래량의 10분의1 정도. 그 이상 사게 되면 원하는 때 사고 팔 수가 없다.

매수시점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상태, 올라도 2% 미만 올랐을 때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 이상 오르면 차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기한다.

매도 시점은 보통 매수한 후 짧으면 10분 후부터, 길면 1시간 뒤부터다.

물론 매도도 분할 매도한다.

하루에 종목당 평균 매수주문이 20번, 매도주문 20번 정도로 분할 주문이 엄청 많다.

기대수익률을 매매당 1% 정도로 낮게 가져가는 만큼 매매 횟수가 많고 미수도 보통 2.5배까지 다 친다.

오전에는 매도중심, 오후에는 매수중심으로 투자한다.
대체로 오전에 매도물량이 많고 오후에 매수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오후2시를 지나면서부터는 관망하고 미수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대부분 시간 외 주문으로 해소시킨다.

아침 동시호가 주문 때에는 반대매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해 갭을 먹기도 한다.
오전8시30~40분 사이에 매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반대매매가 많이 나온 종목.
이들에 대해 저점 매수주문을 내 걸린 것을 장시작한 후 판다.
이 경우 수익률이 대체로 높다.

◇손절매=수십번에 걸쳐 분할 매수·매도를 하기 때문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주가가 내려갈 경우 상승이 확실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매수만 지속한다.
총알이 바닥났을 경우 일단 매수금액의 절반 정도를 손절매한다.

오후 늦게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을 실현하고 떨어질 경우엔 다시 재매수에 들어간다.
이 경우는 재료주 투자일 경우가 많은데 다음날 올라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40. 훈련이 안된 낚시꾼이 과연 월척을 ?

. 훈련이 안된 낚시꾼이 과연 월척을 낚을 수 있을까?

1분1초를 다투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감상적인 투자성공담 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흔들림이 많은 장세속에서 증권 정보도 중요하지만 개인투자자가 본인자신의 종목을 똑바로 선정하고 매수 및 매도 포인트를 설정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실전투자 경험을 토대로 매수 · 매도 시점 잡는 요령을 제시한다.

첫째, 매도 · 매수세력간의 타협시점이 매수 적기다.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한 후 매도세가 주춤해지고 매도 · 매수 세력이 타협하는 시기가 온다.

타협시점에서 장기 횡보 후 거래량이 급증하는 날이 바로 바닥을 확인하는 날이다. 즉, 집중 매수시점인 것이다.

둘째, 차트상 쌍바닥(W) 이후에 거래량이 실리는 때도 매수 적기다.

쌍바닥은 주가가 하락, 1차 반등이 이루어진 후 다시 하락된 시점까지 재차 하락해 생기는 모양이다.

쌍바닥의 두번째 바닥을 찍은 후 대부분 큰 상승이 이루어진다.

셋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에 있어야 주가가 상승한다.

5일선 밑에 20일선, 60일선, 1백20일선이 나란히 위치한 것을 정배열이라 한다.

이 정배열이 나타나면 주가는 상승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넷째, 주가차트에서 과거의 주가습성을 검토, 비슷한 상황일 때를 참고해 매매에 임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가 저항선과 저가 지지선을 뚫는 경우란 많지 않다.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 상기 요령은 주가그래프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41. 단기투자의 선구자 - 제럴드 로브

★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빈번한 단기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다.

요즈음 데이트레이드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럴드 로브(Gerald Loeb)가 선구자가 아닐까 한다.

그는 40여년간 주식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단기투자로 고객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거부가 됐다.

제럴드 로브는 1920년대초부터 증권회사의 브로커로 일했다. 그는 브로커로서 고객들에게 조언하거나 위임받아 계좌를 관리, 운용하는 한편 투자관련 잡지에 글을 기고했다.

기고한 글을 모아 " 투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 " (The Battle for Investment Survival) 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발간했다.

그는 처음에 유산으로 받은 1만3천달러를 모두 주식에 투자해 신용매매한 결과 9개월만에 3만8천달러로 불렀다.

그러다 1923년 소규모 자동차회사인 맥스웰사의 새로운 경영자가 의욕적인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5천주를 주당 44달러에 샀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 내려갔다.

그는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식을 팔지 않고 기다렸다.

주가가 2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서야 큰 손해를 보고 팔았다.

맥스웰사 투자로 대실패한 후에도 또 한번의 시련을 겪게 된다.

이번에도 내부정보를 믿고 어머니 목걸이를 팔아 마련한 1만달러로 어떤 소규모 기업의 주식을 주당 20달러에 매수했는데 2달러까지 급락했다.

★ 두 번의 실패로 로브는 내부정보란 믿을만한 것이 못되며 의지할 것은 자기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 그후부터는 시세의 움직임 자체를 분석하는 일에 매달렸으며 한 가지 종목을 매입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조금씩 이익을 올리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는 브로커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뉴욕의 허튼(Hutton)사에서 1920년대에 2만5천달러의 거액 연봉을 받고 일했다.

고객은 1백명 정도로 늘었으며 85%의 고객으로부터 매매를 완전히 위임받아 관리했다.

1929년 10월 로브는 주식시장이 지나친 투기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고객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한주도 남기지 않고 모두 팔았다.

그후 주식 판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로부터 3주후 주가는 대폭락(블랙먼데이) 했다.

1930년부터는 고객의 돈을 모아 투자신탁을 운용했다.
시장은 좋지 않았으나 끊임없는 단기매매로 차익을 쌓아나감으로써 하락국면에서도 많은 수익을 올렸다.
영국과 캐나다의 광산회사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는 항상 우량주보다는 가격변동이 큰 투기적인 주식에 관심이 많았다.

로브는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지체없이 팔아서 손실을 실현시키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매수한 주식이 10% 떨어지면 눈을 똑바로 뜨고 매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 가격이 떨어진 주식은 열 가운데 아홉은 팔아버려라.
팔고 나면 그 주식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에 투자할 종목을 검토할 수 있어서 좋다 "

★ 주식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동성이 좋고 주가 움직임이 활발한 주도주만을 매입할 것을 권한다.

우량주나 주가변동이 작은 종목 또는 저가주를 사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주가 움직임이 활발한 주도주에 집중투자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교훈 : 주식투자는 작은 이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다 ***
